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3월 10일(음력2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464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불교문양 '특허'로 지켜라

佛·卍 등 문양 수십종 상표등록 … 업체가 선점

'해인도' 유사문양 이미 등록, 해인사 상표 못 얻어

"대응 안하면 문화포교에 타격"

한 성인용품 제조업체가 연꽃문양과 유사한 이미지로 형상화한 상표를, 어떤 주류업체는 불(佛)자를 술병 모양으로 형상화해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 불교계는 불교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반발하지만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꿈적도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가상 시나리오다. 하지만 그리 먼 시점의 일이 아니다. 최근 드러난 해인사 사례는 이미 불교 문양에 대한 지적재산권 시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인사는 지난해 3월 화엄경의 대의를 그림으로 표현한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최근 특허청 상표심사국으로부터 이와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어 특허를 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등록된 상표는 '옥황도(玉皇徒)'라는 상표명으로 '철학역학사 양성업' 등의 서비스업에 등록돼 있으며, 자세히 뜯어보지 않고는 화엄일승법계도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다.

화엄일승법계도를 '해인도'라고 부르며 사찰의 상징처럼 이 문양을 사용해 온 해인사는 자칫 해인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미 출원된 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는 다소 다른 내용이지만 '불(佛)' '만(卍)'과 같은 문양도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상표등록이 돼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불(佛)'자의 경우는 10여 가지 형태의 상표가 귀금속류나 신발, 모자 등 150여 품목(상품)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만(卍)'이나 '옴마니반메훔'도 5가지 형태의 상표가 사찰운영업, 사찰관리업, 수의 등의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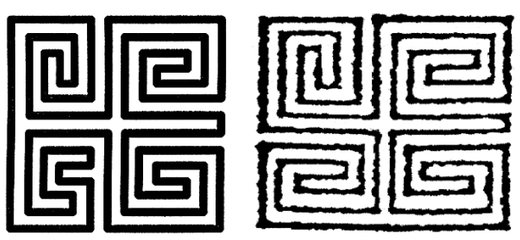
문제는 불교 문양이 캐릭터나 상표 등록에서 선점 당하면서 지나친 상업화나 불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상황까지도 초래한다는 점이다.

해인사의 화엄일승법계도 상표등록 출원을 맡았던 김국진 변호사는 "분쟁소지는 물론 불교계가 불교 문양을 개발하거나 캐릭터화해 불교 문화산업진흥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상품성이 큰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온라인(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찬불가나 한글대장경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캐릭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된 사례는 지난 1997년 봉축위원회가 봉축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기소한 것이 고작이지만, 관계 전문가들은 불교 캐릭터 대부분이 의장등록이나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아 분쟁 소지가 많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종단 명칭 또한 조계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단이 상표등록을 해놓지 않아 일반인은 물론 불교인들마저 혼동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불교 상징이나 문양에 대한 특허출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특별히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어 인식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명우 · 박봉영 기자



해인사가 상표등록을 낸 해인도(왼쪽)와 개인이 이미 등록한 옥황도.



관응당 지안 스님의 영결 · 다비식이 3월 3일 직지사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직지사=박재완 기자

관응당 지안 스님 원적

3월 3일 직지사서 영결 · 다비 엄수

조계종 명예원로이자 제8교구 직지사 조실인 관응당 지안(觀應堂 智眼) 대종사가 2월 28일 오후7시 주석처인 직지사 중암에서 원적에 들어 3월3일 직지사에서 영결식과 다비식이 봉행됐다.

세수 95세, 법랍 76세를 일기로 입적한 관응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1만여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치러졌다.

다비식은 관응 스님의 평소 뜻대로 소박하게 거행됐으며, 다비식 다음날인 4일 습골의식이 진행됐다.

1910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한 관응 스님은 29년 탄옹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일본 용곡대에서 수학했으며 직지사 주지, 김용사 강원 강사, 동국학원 이사, 보문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관응 스님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그림자를 낳지 않는다"며 열반게를 남기지 않았다. 관응 스님 행장 4면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위덕대 새 총장에 한재숙 씨 선임



학교법인 회당학원(이사장 진당)은 2월 27일 한재숙(56 · 사진) 영남대 교수를 제 3대 위덕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한재숙 총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대학, 경쟁력 있고 강한 대학으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총장은 영남대 생활과학대학장과 생활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박봉영 기자

■호외발행안내: 본지는 관응 큰스님의 원적과 관련 3월 3일자로 호외를 발행해 김천 직지사 등 일부지역에 배포했으며금주 464호와 함께 발송합니다.

16+16의 즐거움!

현대불교신문은

세계 불교 정보의 '총본산' 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신청

■ 전화요금 합산 납부 신청
전화요금에 구독료를 합산하여 납부
(한국통신 전화번호와 전화가입자 이름만 전화로 통보하시면 신청완료 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납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 1구좌 1천원 법보시 후원 동참하세요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양로원, 복지기관 등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 월 구독료 : 5천원
■ 구독 · 법보시 동참 문의
02)737-0090, 02)737-8881

선원장 초청 대법회

현산 스님 '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3월 14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2004 부다피아 여름캠프

하와이에서 여름방학을! 영어 배우고 역사 · 문화체험도…

본사는 창간10주년을 맞아 100년전 이민의 첫발을 내디딘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합니다. 2004 부다피아 여름캠프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하와이에서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7월 28일~8월 17일(20박 21일)
□ **참가비:** 250만원(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50명
□ **참가신청:** 3월 15일~5월 10일까지(미국 비자신청은 별도문의 바람)
□ **장소:** 하와이 무량사 한인문화원
□ **주최:** 현대불교신문
□ **주관:** 하와이 싯다르타대학교 부설 영어교육원
□ **후원:**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 **협찬:** 진각종통리원 (재)보덕학회 (재)대한불교진흥원

□ **주요프로그램**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54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총 60시간에 걸쳐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탐방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 **준비물:** 여권, 미국 비자, 학생증, 필기도구, 카메라와 필름, 속옷 3-4벌, 셔츠와 바지 2~3벌, 모자와 선글래스, 수영복과 샌들, 비옷, 수건과 비누, 자외선 차단크림, 작은가방

문의: 현대불교신문 02) 722-4162~3, 016-2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할'



그림 · 조태호

- 대원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다양한 연등을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www.mahamall.co.kr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을 밝힙시다



만 월 등 ▶ 사이즈 : 32cm X 32cm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흰색(영가), 오색등



공단등(비단등,실크등) ▶ 지 름 : 23Cm(大)18cm(中)15cm(小) ▶ 색 상 : 황금, 연분홍, 진분홍, 빨강, 흰색(영가등)



종 등 ▶ 사이즈 : 40cm X 27cm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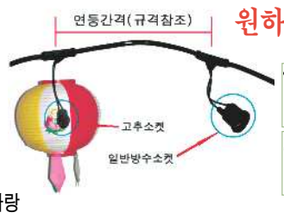


팔모접등(주름등) ▶ 사이즈 : 26cm X 26cm ▶ 색 상 : 핑크, 오렌지, 연두



팔모조립등 ▶ 사이즈 : 26cm X 26cm ▶ 색 상 : 핑크, 오렌지, 연두, 파랑

연등용 전선케이블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 특 징 : 안전검사를 완료한 전선(KS인증) 100%사용 연등전선구입시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전선인지 확인하십시요.
▶ 등간격 : 1M, 2M, 3M, 4M, 5M ※기타 규격 별도 주문 연등의 간격은 등1개당 간격을 말합니다.



마하몰에서 빠르고 편하게 연등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주문 전화 : 02)732-1520



새싹불자 안 기르면 미래 없다

고기를 먹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치어를 대량으로 양식하여 잡아먹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 자란 물고기를 찾아서 건져 올리는 방법이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후자가 효율적인 방법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양식장을 만들고 치어를 부화하는 전자의 방법은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양의 고기를 계속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후자는 현재 있는 고기를 다 잡아먹은 후에는 더 이상 고기 맛을 볼 수 없게 된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도 이와 같다. 현재 불교계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투자할 부분이 많지만 당장 결실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밑 빠진 독'에 비유하고 홀대하고 있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만 제대로 된다면 성인 포교란 말이 필요가 없음에도 말이다.



'밑빠진 독' 인식 빨리 버리고 찾아가는 포교와 투자 서둘자

어린이 · 청소년 불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님을 비롯한 불교 지도자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불교인구가 날로 격감하고 이웃종교에 비해 열등한 추세라고 외쳐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급속하게 변하는 세상에 발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회 등 포교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고전적인 포교 방식도 필요하지만 '디지털 세대'라 불리는 청소년들에게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포교방법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 청소년용 불교의식집이나 경전도 한글화되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는 사찰의 어린이 · 청소년 법회 개설과 운영이 선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포교방안 마련과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어린이 · 청소년 · 청년회 · 신도회와의 네트워크 연결도 고려해봐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 · 청소년 신행활동은 시기적으로 단절되어 연계성이 없고, 또 학생시절에 신행활동을 한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 불교 관계기관에 취업할 때 아무런 우대를 받지 못했다. 즉, 신행에 인과가 없었다. 이것은 불교 인구를 격감시키는 간접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독교는 미래의 가장 확실한 '교회가족'이 되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어린이 · 청소년 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는 어린이 · 청소년관련 전문가와 행정사무관 등이 턱없이 부족해 이웃종교가 받는 지원의 백분지 일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는 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해 씨를 뿌리는 일이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에 따른 노력 없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김형중(전국교법사단장 · 문학 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문화재청 차관급청으로 승격

몸 커졌으니 일 더 많이…

학예직 늘려 전문성 강화…예산확대도
"불교문화재 보존 위한 적극적 정책 기대"

문화재청이 1급청에서 차관급청으로 승격됐다.

국회는 3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으로 불교계는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산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불교문화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기대감도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사찰 내 보수 공사를 할 경우, 현재 매장 · 건조물 · 동산 문화재로 구분된 문화재청 조직이 부분적으로 모두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지난 3일 "진정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주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는 환영의 뜻과 함께 "불교계 또한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문화재청이 관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협력 기능 강화 △행정 조직 확대 · 개편 △문화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크게 3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업무와 관련해 시 · 도 지사를 지휘 · 감독하고, 환경부 · 건설교통부 · 기획예산처 등 상급기관과의 업무협력 관계가 빈번한 자리. 그러나 1급 청장의 위상으로는 상급기관 관계자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하나의 기대 효과는 행정조직의 확대 · 개편이다. 문화재청은 1급청 승격(1999년), 2과 증설(2002년), 1국 3과 증설(2003년) 등이 이어진 결과 3국 12과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직만으로는 1만여 건 수십만 점에 이르는 지정문화재만 관리하기도 버거워, 5만여 건의 불교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를 총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관리 총괄기관'이라는 문화재청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조직 체계의 확대 · 개편과 함께 학예직 증설 등 문화재 담당자의 전문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문화재 전문가들은 문화재청의 인적 구성이 행정직 중심이어서 집행기능 위주로 조직이 운영돼 왔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번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은 문화유산 보존 · 관리를 강화할 교두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문화재청이 '껍데기만 차관청'이 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라고 충고한다. 차관청 승격에 따른 인력 확보, 기구 확충, 고급 정책 생산, 예산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처음 시도되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 초청 교구본말사 주지스님 및 신행단체장 간담회에서 건의와 의견수렴이 활발히 이뤄졌다. 3월 2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에서 열린 간담회.

문화재·복지 관련업무 '관심사'

법장스님, 동화사·해인사서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총무부장 성관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는 3월 2, 4일 제9교구본사 동화사와 제12교구본사 해인사에서 본 · 말사 순회 간담회를 잇달아 가졌다. 교구 본 · 말사 순회 간담회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본 · 말사 현안을 파악하고 종단 종책 과제 공유를 위해 도입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건의와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2일 대구 동화사 간담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경내지 건축행위 규제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종단적 대책 수립 △종단 차원의 병원 건립 △체계화된 교육을 위한 강원 통폐합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4일 합천 해인사 간담회에서는 △시나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하고 문화재 주변 500m 이내에 추진하는 타 시설 건립에 대한 대책 △1교구 1복지법인 설립 △문중제도 폐지 등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다.

법장 스님은 9일 제11교구본사 불국사를 방문한 뒤 제162회 중앙종회가 끝난 뒤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 · 합천=배지선 기자

불교교리 · 역사 교재 발간

조계종포교원, 신도교육용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신도전문교육 필수과목인 불교교리와 불교역사의 교재를 최근 발간했다. <불교의 이해와 신행>은 기존 <불교교리>의 전면 개정판이고, <불교역사>는 3년여의 연구 끝에 처음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신도교육 체계화와 내실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불교의 이해와 신행>은 각 장별로 교육목표와 신행활동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교리 공부 따로, 신행 따로'를 지양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불교역사>는 선사상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포함한 불교 역사는 물론 동남아시아, 일본, 서양 현대 불교의 흐름까지 담아냈다.

도영 스님은 "불자로서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무엇보다 교재가 신행을 북돋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불교문화>도 올해 안에 집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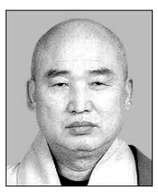
월정사 종회의원에 정광스님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정광 스님이 3월 2일 당선됐다.

정광 스님은 1979년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85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삼척 영은사 주지 등을 거쳐 현재 정선 정암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강화 보문사 주지에 혜장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2월 26일 혜장스님을 강화 보문사 주지에 새로 임명하고 "보문사 운영 및 발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혜장 스님은 1967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같은 해 4월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남동우 기자

상표등록

미수다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25/1, 12/1의 절약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안전장치를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운용과 안전에
더욱 경제적입니다.

▣ 한국전력공사 저압전력 사용량별 요금표

사용량 (kWh)	요금(원)	사용량 (kWh)	요금(원)
50	2,310	260	32,260
60	3,200	270	34,130
70	4,100	280	36,020
80	4,990	290	37,900
90	5,880	300	39,780
100	6,780	310	44,720
110	8,590	320	47,440
120	9,890	330	50,150
130	11,190	340	52,870
140	12,500	350	55,580
150	13,800	360	58,300
160	15,090	370	61,020
170	16,390	380	63,730
180	17,690	390	66,450
190	19,000	400	69,710
200	20,300	500	112,430
210	22,850	600	188,460
220	24,730	700	258,510
230	26,610	800	328,580
240	28,500	900	398,640
250	30,370	1000	468,690

전자전구 사용 전력
1/25 배 절약
일반전구 사용 전력
1250

첨단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 · 9996 · 8872

전화 031-791-8871 792-8867~8

윤달, '수행·나눔 문화' 확산

기복 벗어나 참선·장기기증 서약 등 실천 중시

미신과 기복신앙에 갇혀있던 윤달 풍습이 바뀌고 있다. 아직은 미풍 수준이지만 윤달을 수행과 신행, 나눔을 실천하는 달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윤달은 음력 한달 평균이 29.5일로 한달이 30일 또는 31일인 양력보다 짧아 이를 맞추기 위해 고안된 달이다. '윤달에 수의(壽衣)를 마련하면 장수하고 결혼이나 이사하면 손을 탄다'는 속설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수의가 등장하는 등 윤달을 상술에 이용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선 순조 때 발행된 세시풍속서인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윤달은 택일이 필요 없어 결혼하기에 좋고, 수의를 마련하기도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전할 뿐이다.

불교에도 윤달이면 생전예수재를 지내고, 삼사순례를 하는 등 윤달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생전예수재는 흔히 '살아있는 49재'라고 불리며 죽기 전에 업장과 부귀 복덕을 미리 닦는 의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생전예수재가 기복신앙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 만해 스님이 <불교유신론>에서 '예수재 폐지론'을 주장하는 등 그동안 비판을 받기도 했다.



도선사는 윤달을 맞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마음으로 보살행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국태민안 기원 고승 초청 대법회'를 마련했다. 사진=권형진 기자

그러나 최근 불교계 곳곳에서는 윤달을 보람찬 일로 채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윤달은 없던 것이 공짜로 생긴 날이므로 윤달 풍습의 본 뜻을 살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생전예수재의 변화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는 2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생전예수재를 '참회하고 공덕 짓는 예수재'를 주제로 한 '참살림 수행결사'로 진행하고 있다. 생전예수재 기간동안 가족참선, 5계 지키기, 지장기도 등을 매일 실천하고 헌혈, 장기기증·사후 시신 서약 등의 보살행으로 결사를 회향하게 된다.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도 생전예수재 및 49일 지장기도 법회에 맞춰 4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국태민안 기원 고승 초청 대법회'를 마련했다. 도선사의 고승 초청 대법회는 큰 스님들의 감로 법문을 통해 불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마음으로 보살행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다.

윤달을 참회와 불우이웃을 돕는 달로 삼는 곳도 있다. 대전 광수사(주지 세운)는 21일간의 윤달 신중참회기도를 4월 6일 입재한다. 참회기도는 자기 성찰을 통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청주 흥덕사(주지 정은)에서는 3월 21일 예수재를 지낼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달동네 가족들을 위해 무료로 생전예수재를 지내주기도 한다. 회향일에는 달동네 가족들을 초청해 무료 이발을 실시하고,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도 제공한다. 또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회장 성순경)는 그동안 윤달마다 꾸준히 진행해온 생전예수재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행사를 올해에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산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은 "윤달이라고 마음바탕이 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참회 기도를 통해 부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봉사라는 보시행은 업장을 소멸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공덕을 베풀 수 있어 금상첨화"라고 평가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수행·교화 중심 도량 가꿀터"

인 터 뷰 법주사 새 주지 도공 스님



지난 2월28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산중총회에서 도공 스님이 새 주지로 선출됐다.

법주사 교구의 발전에 대해 스님은 "수행, 포교, 교육 각 분야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좋은 점은 살리되, 고칠 필요가 있거나 보완해야 할 점은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작업은 교구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재가자 수련장 마련
지역 현안 적극 참여

우선 수행과 교육 분야에서 도공 스님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법주사 금오문도의 선 수행 가풍을 그대로 이어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재가불자의 수행을 돕기 위해 수련장을 만들 생각이다.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복안도 제시했다. 법주사를 충청지역 불교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고, 지역 현안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공 스님은 신도회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교구본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안정 속의 개혁을 추구할 것이며, 갑작스럽고 큰 개혁보다는 교구의 안정과 화합을 토대로 차근차근 변화를 유도해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1973년 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법주사에서 월산 스님과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한 도공 스님은 청주 불교방송사장과 제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청원 현암사 주지 소님을 맡고 있으면서 13대 종회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법주사=한명우 기자

디지털방송 시대 '눈앞'

7월부터 상용 서비스
교계방송 대응 서둘러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3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상용서비스가 시작돼 교계 방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성DMB는 손바닥 크기의 단말기를 통해 비디오, 오디오 방송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거나 고음질의 음악 청취가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처럼 뉴스, 증권, 날씨 등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각종 데이터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본격적인 위성DMB 시대를 맞아 불교방송, 불교TV 등 교계 방송사도 대응책 논의에 한창이다.

숙명여대 정보방송학부 도준호 교수는 "즐겨찾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기자

인문·고전·생태 등 강좌 개설

조계사, 불교교육 전문·대중화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불교공부의 전문화·대중화를 위해 '조계사 아카데미'를 개설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3월 16일부터 '현대사상과 불교(10주)', '<조당집>으로 읽는 선종사(12주)', '불교 한시로 배우는 한문교실(12주)', '밥상을 다시 차리자(10주)', '불교의례의 의미와 실천(12주)' 등 총 5강좌를 잇달아 개설한다.

특히 '현대사상과 불교' 강좌는 현대사상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철학적 핵심과 그 불교적 의미를 살핌으로써 불교 공부의 영역을 한층 넓힌다. 다뤄질 인물만도 니체, 훗설, 하이데거 등 서양철학의 쟁쟁한 사상가들로, 서울대 박찬국, 이남인 교수, 김형효 정신문화연구원, 동국대 김종욱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선종사도 선사 253명의 행적과 법어, 게송 등이 담은 <조당집>으로 한 눈에 배울 수 있게 된다. 해인사 강원 학감 법진 스님이 강단에 서고, 강의는 3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7시에 진행된다.

또 '한문과 불교'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한문교실도 개설된다. 강사는 동국대 박상준 역경위원이 맡는다.

생활문화 강좌도 마련됐다. 그간의 음식문화를 반성하고, 자연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생각하는 '밥상을 다시 차리자' 강좌는 1박2일간 남원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에서 현장 학습도 곁들어진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개강은 18일에 한다.

조계사 김남수 교육계장은 "앞으로 불교적 가치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720-1390

김철우 기자

만해백일장 최우철·전민영 대상

"글쓰기는 거친 마음 닦는 또 다른 수행"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가 3·1절 85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25회 전국 만해백일장'에서 안양예고 3년 최우철(시·시조, 사진 오른쪽) 학생과 포항영일고 3년 전민영(산문, 사진 왼쪽)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 특별상에는 혜명보육원의 이애정 씨와 자양포교원의 금당스님, 창문여고의 태선경 학생, 변상학 씨, 장옥자 씨가 각각 수상했다.



길가에 서있는 나무와 주렁주렁 매달린 대롱에 바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불투명한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킨 시·시조부문 대상자 최우철 학생은 "만해 스님처럼 사회비판적 목소리를 지닌, 호소력이 강한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며 수상소감을 말했다.

산문부문 대상자 전민영 학생 또한 어릴적 백일해에 걸린 체험담에 무당 할머니라는 허구적 인물을 첨가시켜 할머니와 손녀간의 잔잔한 사랑을 담담하게 담아냈다.

이 두 학생들은 "글은 습작과 퇴고의 과정을 되풀이 하며 거칠어진 마음을 닦는 또 다른 수행"이라며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해 훌륭한 문학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만해백일장은 3월 1일 동국대 중강당 및 만해광장에서 시·시조부문과 산문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김은경 기자

LA서 대형 봉축행사 연다

5월9일 국제문화센터

미국 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회장 현일)는 5월 9일 LA 국제문화센터(ICC:Intenational Cultural Center)에서 20만 LA지역 불자가 함께 하는 대규모 봉축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불교 미주전파 4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봉축법요식과 함께 남가주연합불교합창단의 축하공연, 러시아 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된다.

또 LA지역 한국사찰을 비롯해 불교합창단, 조계종 포교사단 LA지단, 미주지역 불교대학 총동창회 등이 참석, 노래와 장기자랑 등을 통해 어울림의 장을 펼친다.

한편 남가주 4·8 봉축위원회는 미주사회 불교현황을 총정리한 자료집 <한국불교의 요람>을 발간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후원 문의 : 신용균 한국 019-350-7334, 미국 1-323-350-0067)

한상희 기자

동국대-농협 산학협력협정 체결

동국대(총장 홍기삼)와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가 최근 산학 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 농촌 의료지원과 문화·복지사업, 농업 생산과 유통, 생태·환경 농업을 위한 교육·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상반기중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맡게 될 농협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며 불교병원 개원을 위한 자금 지원도 함께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월까지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협력 프로젝트의 방향과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포교 현대화 선봉, 禪敎 겸비한 큰스승

관응 스님의 삶과 가르침

2월 28일 오후 7시. 달이 대해(大海)에 잠기듯 별이 하늘로 돌아가듯 조용히 원적에 든 관응당 지안(觀應堂 智眼) 스님은 현대 포교의 초석을 놓은 포교사이며, 선교(禪敎)를 겸비한 큰스승이었고, 유식학의 체계를 세운 유식학의 거봉이었다.

철저히 계를 지키는 수행자로서 대중과 함께 조석예불과 대중공양을 하며 평생동안 수행자의 전범(典範)을 보여 주었던 스님은 아픈 곳 하나 없이 재가 사그러지듯 그렇게 열반에 들었다.

관응 스님은 1910년 경북 상주군 외서면에서 차남으로 출생, 스무 살이 되던 1929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혜봉 스님을 계사로, 탄옹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36년 일봉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1938년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해인사에서 선발한 해외 유학생 자격으로 일본 교토의 용곡대학에 들어가 현대불교학과 유식학을 공부했다.

다년간 교학을 공부하면서 유식학에 남다른 조예를 이룩한 스님은 1943년부터는 오대산 월정사 안거를 필두로 가야산 백련암, 고성 옥천사 등지에서 참선 정진하여 혜등을 밝혔고, 1956년 황악산 직지사 조실로 추대됐다.

기억력 뛰어나고 금석문에 해박

1959년 정화 직후, 스님은 다시 조계사 초대 주지 겸 중앙포교사로 임명되면서 포교의 중심에 서게 됐다. 그러나 강백으로서 그 의무를 저버릴 수 없었던 스님은 직지사 80명의 학인스님을 모두 데리고 조계사로 향하게 됐으며 이는 지금까지 수많은 스님들 사이에 회자되는 일화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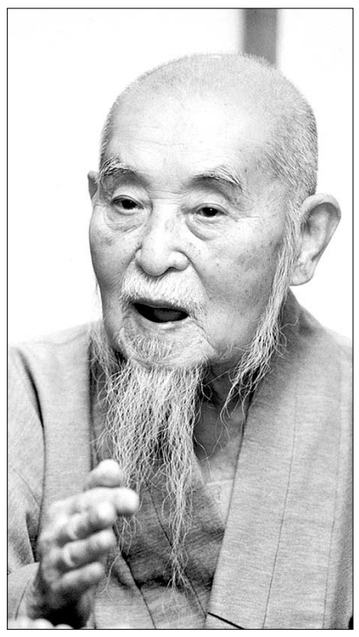
서울시내 한복판 조계사의 초대 주지가 되어 포교의 중심에 있었으나 조계사가 도심에 있는 관계로 학인들 공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스님은 제2교구본사 용주사 정화에 나섰고 1963년 세수 54세에 용주사 주지에 취임하게 됐다. 이때를 상좌스님들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평화적인 정화'였다고 회고한다.

이(理)와 사(事)를 둘로 보지 않는 자재함으로 포교와 교육의 중심축이 되었던 스님에 대해 전강제자 연관 스님(실상사 화엄학림)은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 모든 것을 다 외우셨다"며 "역사와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 불교와 역사, 불교와 문화의 연관을 짚어주며 수행자의 역할을 강조하셨다"고 정열적이었던 강의 모습을 회고했다. 또한 "금석문에도 해박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유식학에서도 관응 스님만한 분이 없다"며 대강백의 원적을 아쉬워했다.



관응 스님이 열반함에 따라 절친했던 도반 4분 중 석주 스님만 남았다. 원효종 종정 법홍 스님(맨 오른쪽)이 지난해 3월에, 파계사 조실 고송 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역시 지난해 9월 열반에 들었고 2월 28일 관응 스님이 열반함에 따라 한 회상에서 수행했던 도반 4분중 유일하게 석주 스님(왼쪽에서 세번째)만 남게됐다. 사진은 고송 스님의 96회 생신을 맞은 2001년 11월 24일 팔공산 파계사 내원에서 자리를 함께 한 모습. 절친했던 4분 도반들의 모습이 새삼 정겹다. (사진 제공: 허주 스님)

절친했던 도반들



선교를 겸비한 큰스님 관응당 지안 스님.

유식학 체계 세운 巨峯… 무문관 6년 결사 '귀감'

전강받은 제자 10여명, 現 종단교육 중추 역할

또 다른 전강제자 원산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은 관응 스님을 학문적 편견이 없었던 분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개신교의 하나님도 모든 것이 하나다" 라며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처"라고 설하셨다고 전했다. 스님과 친분이 돈독한 분 중에는 기독교 장로도 있고, 수녀도 있었을 정도로 포용력이 대단하셨다.

역사·문화 등 다방면에 지식 풍부

관응 스님이 북한산 천축사에서 6년간이나 무문관 결사를 한 것은 한국불교 역사에서 희유한 사건이다. 스님은 65년부터 시작한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육년결사를 71년 회향했다. 일체 문밖 출입 없이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독방에서 6년을 지낸 스님은 "나는 공부한 것이 없다"는 한마디로 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부처님의 6년 고행을 따른다고 시작한 6년결사는 스님을 포함 5명이 시작했지만 끝까지 6년을 회향한 스님은 관응 스님을 포함 2명 뿐이었다.

1976년 세수 66세 때 청암사 수도암에서 평생 도반인 고송, 석주 스님과 함께 한 노년 안거 또한 관응 스님의 수행외길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일화다.

노구를 이끌고 손수 빨래를 하며 지낸 이 시절은 수행자의 아름다운 모범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관응 스님을 '시계'라고 표현한 전강 제자 범하 스님(통도사 박물관장)의 말은 관응 스님이 얼마나 철저히 계를 지켰으며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살다 갔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범하 스님은 "연세가 들수록 등산을 많이 하고 스스로 몸을 보살펴 편찮으신 곳이 없었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선교를 겸한 대강백으로서 또 포교사로서 활동하던 스님은 1984년 원산, 범하, 자일 등 학림을 마친 10명의 제자에게 전강함으로써 이들 전강제자들이 오늘날 종단 교육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스님의 속가 딸이 비구니계의 대강백 명성스님(청도 운문사 회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을 맡아 비구니계를 이끌고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명성 스님은 불교계의 쟁쟁한 대강백 경봉·운허·만우·탄허 스님 문하에서 공부했다. 성능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았으며, 관응 스님처럼 유식을 전공, 동국대에서 박사를 취득한 유식학의 대가이다.

관응 스님은 1984년 이후에는 직지사 산내 암자 중암을 복원하고 줄곧 이곳에서 수행하고, 후학들을 제접했다.

엄격함보다는 시골할아버지 같이 자상했던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경어를 썼으며, 항상 겸손했다. 스님의 웃는 모습만으로도 하루의 고단함이 다 쉬어졌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한다. 12년째 스님을 모시고 다녔다는 운전기사 해웅 거사는 "인사를 하면 항상 웃으시며 손을 흔들어주셨습니다. 또 차를 타면 항상 가부좌를 하고 앉으셨지요. 아무리 멀리가더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웃고 누구에게나 자상

중암에서 7년째 공양주를 해온 송덕명화(58), 이무상심(66) 보살도 스님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짜지 않고 간간하게 드셨지요. 관응 스님은 오신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버섯음식을 즐겼습니다." 공양주 보살은 "잘해줘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고마워요."라는 스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싶다며 스님을 기렸다.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일화가 또 있다. 어느 날 잡초를 뽑고 있던 시자가 스님께 여쭸다.

"노스님, 잡초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지."

"그런데 왜 뽑으라 하십니까?"

"잡초를 뽑는다고 불성이 없어지느냐? 생명은 우주와 하나인 법이여…"

관응 스님은 그렇게 우주와 하나가 됐다. 스님은 그렇게 가셨지만 '생명은 우주와 하나'라는 가르침은 산하대지의 본성을 일깨우며 황악산 연초록 새순으로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7> 보각 스님

'조국사랑' 1백년 한길로



"항상 즐거워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팔당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하남시 검단산 통일정사 회주 보각(寶覺) 스님이 지난해 1월 백수(白壽)를 맞아 신도들에게 내린 법어다. 세월의 무게로 육체의 기력은 많이 쇠했지만 스님의 법문에는 아직도 수행자의 기품이 성성하다.

1904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1958년, 늦은 나이에 출가한 보각스님. 반평생을 수행자로 살았지만 스님은 아직도 독립운동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1904년 이화학당에 입학해 유관순 열사와 기숙사에서 동고동락하며 3·1 만세운동을 함께 펼쳤기 때문이다.

"나보다 나이가 한살 많지만 한 학년 아래였던 관순이와 함께 밤늦게까지 태극기를 만들었지

유관순 열사와 독립운동 통일정사 짓고 평화 염원

요. 그때는 태극모양을 정확히 몰라 밥공기로 동그라미를 그렸고 태극괘는 대충 흉내만 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피곤하지도 않았고 신이 났던 것 같아요."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생을 마친 것과 달리 자신은 어리다는 이유로 동네 순경에서 따귀 한대 맞는 것으로 화를 면한 보각 스님. 이후 스님은 1924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사학과에 입학했지만 일제하에서는 살수 없다며 중국으로 망명, 독립운동을 지속했다.

기독교 근대 교육을 받았던 스님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것은 결혼을 하면서 부터다. 독실한 불자인 남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그 심오함에 놀라 신심을 키우게 됐다. 그러나 스님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과 그토록 염원했던 조국이 통일되었지만 둘로 갈라진 현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세 아들 등 파란만장했던 한국 현대사를 온 몸으로 겪었다. 그때마다 스님을 지켜준 것은 불심이었다.

그래서 스님은 1955년부터 59년까지 전국적인 규모의 신도회를 조직해 불교정화운동에도 참가해 많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불교정화운동이 거의 끝날 무렵 방보문 스님의 권유로 법주사 수정암 문중의 하계륜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하동산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았다.

좀처럼 수행이력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나, 1970년 통일정사를 창건하고 30여년을 토굴생활을 했다는 스님의 말 속에서 오랜 수행의 이력이 느껴진다.

스님이 평소 강조하는 것은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 욕심내지 말고 회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철저하게 수행하세요. 또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절대로 남을 미워해서도 안됩니다. 그것이 불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100살이 넘은 스님에게 아직까지 변함없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찰 이름을 통일정사라고 지은 것과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 단군 성전 건립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 조석 예불 때마다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열사와 김구 선생을 비롯해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친 유공자, 6·25 등 한국근현대사에서 숨진 영가를 축원하는 일 모두에서 스님이 얼마나 조국통일을 염원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스님은 오늘도 죽기 전에 조국이 통일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채 통일정사를 지키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大韓佛敎曹溪宗 元老 觀應堂 智眼大宗師
元老會議葬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大韓佛敎曹溪宗 元老 觀應堂 智眼大宗師께서
지난 2월 28일(음 2월 9일) 오후 7시 직지사 중암에서 涅槃하시어,
3월 3일(음 2월 13일) 직지사 만덕전 및 연화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영결식 및 다비식이 여법하게 거행되었습니다.
觀應堂 智眼大宗師 永訣式 및 茶毘式에 관심을 가져준 사부대중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도들은 스님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앞으로 더욱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불기 2548년 3월 4일

觀應堂 智眼大宗師 49齋 안내

觀應堂 智眼大宗師 49齋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다 음—

	일 시	장소 및 문의처
초재	3월 5일	직지사 중암 (054-436-6612) (극락사 지욱 031-766-3549)
2재	3월 12일	안양 보장사 (031-471-3322)
3재	3월 19일	청도 운문사 (054-371-2824)
4재	3월 26일	직지사 중암 (054-436-6612) (홍제사 도형 02-736-0367)
5재	4월 2일	서울 충정사 (02-765-1543)
6재	4월 9일	통도사 백련암 (055-382-4859)
49재	4월 16일	직지사 (054-436-6174)

■문의 : 직지사 종무소 ☎(054)436-6174, 직지사 중암 ☎(054)436-6612

大韓佛敎曹溪宗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觀應堂 智眼大宗師 門徒 一同



본지 천미희 기자 감로사 삼천배 참회기도 동참기

절 한번의 간절함에 삼천배 의미 깃들어

감로사에서 3천배 절을 하고 있는 불자들.

"나무화광여래불~ 나무인중존여래불~ 나무사자보여래불~"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또 불렀다. 2월 29일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에 입재하고 삼천 부처님께 귀의하는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1천 여명이 넘는 불자들이 동참한다는 기도 열기를 전해 듣고는 '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 하나로 덜컥 입재를 한 것이다.

이른 아침, 서울 경기 강원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천 여 불자들이 삼천불전, 극락전, 노천 마애불 앞, 불교대학 가건물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다.

어떤 마음으로 입재를 했을까. 이날 최고령(94세)으로 동참한 무상행 보살에게 슬며시 질문을 던졌다.

"40년 전부터 감로사에서 매년 참회기도를 해 왔어. 참회는 내 생활의 일부야. 일년 내내 부처님법대로 잘 살려고 부처님하고 새롭게 약속하는 거지." 무상행 보살의 말이 참회 기도의 의미를 되짚어주었다.

1951년 자운 · 성철 스님 등 큰스님들이 참회기도를 시작한 뜻을 헤아리는 동안 절이 시작됐다.

절이 백 배를 넘어서면서 다리에 통증이 왔다. 6백 배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2백 배씩 나눠 진행되는 절을 다른 취재 일정 때문에 한꺼번에 한 것이 무리였나 보다. 그러나 시작의 각오 때문인지 첫날 기도는 생각보다 수월했다.

다리통증으로 앓는 소리를 내며 하룻밤을 보낸 뒤, 둘째 날의 다리 상태는 최악이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대중의 힘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진 까닭인지 절을 하는 동안 다리의 통증은 거짓말처럼 없어졌다.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 동안 동참한 연인원은 5천여명.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가족처럼 느껴졌고 정겨워졌다. 눈을 마주치면 절로 웃음이 나오고 서로 합장인사를 건네게 되었다. 같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한 도량에서 기도한다는 일체감이 너 나 라는 경계를 허물었다. '모두가 함께, 잘 회향했으면' 하는 마음만이 가득해졌다.

3월 4일, '나무수미상여래불'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삼천배를 회향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감사함'이었다.

절을 하고 있는 나에게, 절을 함께 한 전 대중들에게, 또 내가 엎드렸던 마루바닥에까지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다.

전각 문을 여니 햇살, 바람까지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래서 힘든 줄 모르고 3천배 기도를 하는구나.'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스님과 도반들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도우며 기도를 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5일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며 회향의 기쁨을 들려주는 정묘길상(57) 보살의 마음이 꼭 내 마음 같다.

잠시 숨을 고르고 삼배로 삼천배를 회향했다. 절을 마치고 나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3천 번의 절을 했는데 그 흔적이 어디에도 없구나. 삼천 번의 절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일 배를 올릴 때의 간절함 속에 삼천배 기도의 참된 의미가 깃들어 있었구나' 하는.

삼천배를 회향하고 경주로 방생을 떠나는 대중들의 얼굴은 봄 햇살 속에서 더욱 맑고 환했다.

부산 감로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전국서 온 1천여 불자 기도 열기
하루 6백배씩 5일간 진행
가족적 분위기에 일체감이 절로
회향하니 모든것에 감사한 마음

은해사, 화북댐 건설 반대 결의

본말사 40여 스님
교구종회서 뜻모아
백지화 촉구
성지보존 입장 밝혀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본말사 스님 40여명은 2월 28일 인각사에서 교구종회를 열고 화북댐 건설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5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댐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스님들은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 주변에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민족성지를 말살하고 민족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행위"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화북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민족성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화북댐 건설 반대운동을 벌여 나가기 위해 교구 본사 주지, 지역 대표스님, 교구 신도회장, 인각사 신도회장, 낙동강 환경 연구소, 생명운동본부를 위원으로 하는 '화북댐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은해사 총무 법일 스님, 간사에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을 임명했다.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본 말사 스님들이 2월 28일 화북댐 건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은 "87년 인각사 인근에 계획중이던 고로댐 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또다시 인각사에서 1.5Km 지점에 화북댐 건설계획이 발표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변 정비사업 및 인각사의 훼손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밝히며 "인각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화북댐 건설로 인각사 훼손이 우려되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인스님은 2월 11일 화북댐 건설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군위군민에게 배포하였으며, 2월 9일 수자원 공사측에 인각사의 보존가치를 설명하고 화북댐 건설에 있어 6개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히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수자원공사측은 2월 17일 보내온 답변서에서 "착공을 앞두고 인각사측이 뒤늦게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환경영양평가에서 댐 건설에 따른 주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해 공사 강행 의사를 밝혔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어린이 지도교사 35명 배출
복지보건대 심리사 수료식

새싹 포교의 일선에서 활동하게 될 어린이지도교사 35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2월 28일 부산불교회관 법당에서 열린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 제 5기 졸업식에서는 3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70명의 6기 신입생이 입학식을 가졌다. 불교어린이지도자 교시에서 합격한 66명이 받은 불교어린이 지도자 자격증은 조계종단 최초로 어린이 지도 교사에 대한 공식적인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로 어린이 법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 불교복지보건대학(이사장 박태헌)은 2월 28일 제4기 삼리상담사 과정 자격취득자 수료식을 가졌다. 졸업동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료식에서 1년 과정을 수료한 심리상담사들은 앞으로 상담봉사활동으로 배움을 널리 회향할 것을 다짐했다. **천미희 기자**

용호복지관 어린이봉사대 발족

어린이 자원봉사대가 발족된다.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초등학생을 모집한다. 지역 내 초등학생 15명으로 구성될 어린이(늘푸른) 자원봉사대는 학교와 연계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051)628-6737

천미희 기자

하재웅 연합회장 취임식

대구시 불교 신행단체 연합회는 2월 28일 영남 불교대학 관음사 법당에서 제4대 회장단 이 · 취임법회 및 박광서교수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하재웅(구도회)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행혁신을 통한 재가불자 정체성확립과 재가신행단체 위상확립, 그리고 불자의 결집된 힘을 사회에 회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우학 스님은 "불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역불교인들은 무명의 늪에 빠진 것을 모르고 있다. 낙관적이지 못한 지역불교현실이지만 신행단체 대표들이 더욱 분발하여 불법을 널리 펴자"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개인택시 법륜회 창립기념법회

대한불교 개인택시 법륜회(회장 박명철)는 4일 부산 불교회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 최익두 동래구 부구청장을 비롯 2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강철주(부산예술고) 학생, 조태구(용호중) 학생을 비롯한 21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4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천미희 기자**

천성산 나무베기 공사 시작
지율 스님 "현장 들어 가겠다"



2월 28~29일 교사들, 도롱뇽의 친구들의 '천성산 습지생태투어'. 지율 스님은 법수계곡에서 도롱뇽 알을 사진에 담아 왔다.

천성산 문제가 다시 긴박해지는 조짐이다. 천성산 구간에 대한 공사가 구간별로 일제히 시작되면서 천성산 구간에 대한 나무베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월 27일 '도롱뇽 소송'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 에 대한 마지막 심리를 마치고 희망적인 판결이 나길 기다리고 있던 지율 스님에겐 천성산의 나무가 잘려 나간다는 소식은 최악에 가까운 소식이다. 그러나 스님의 행보는 신중하다. 경부고속철도 관통 반대와 관련 '도롱뇽 소송'을 진행해오며 법정 논쟁을 불러온만큼 법의 잣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길 원하기 때문이다.

지율 스님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것과 전통사찰보존법상 해당 사찰 주지스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등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게 심리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법적인 해결이 우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도롱뇽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24만 명의 도롱뇽의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봄이 오면 도롱뇽을 계곡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도롱뇽이 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온 고속철공단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 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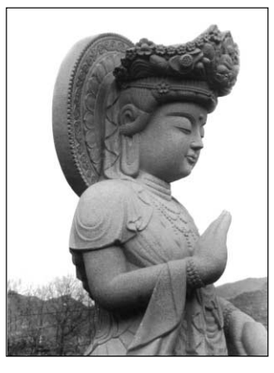
최악의 경우, 몸으로라도 공사 강행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지율 스님은 3월 10일경 나무베기 공사가 진행중인 계곡리에 망루를 설치, 현장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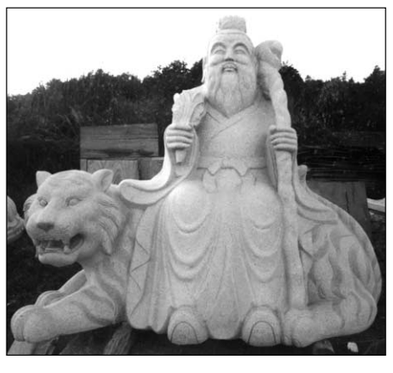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대한민국 불교 조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청원스님 개인전
(동국대학교 불교조각과 교수)

▣ 일 시 : 불기2548년(2004년) 4월 7일부터 19일
▣ 장 소 : 서울 공평아트센터 1층 전시실

※전시회 수익금의 일부는 동국대학교 불교조각과 발전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강서예술촌 051) 972-3912, 공평아트센터 02) 733-9512~4

"北에 못자리 비닐 보냅시다"

'겨레하나' 광주전남운동본부 펼쳐
北 정식요청 수용 4월경 성금 전달


현지 스님

"북에서는 못자리용 비닐만 넉넉해도 쌀 생산량을 3배 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못자리 냉해를 거적으로 넘기고 있는데 눈뜨고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녘 농민에게 못자리용 비닐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대표 현지 스님(광주사암연합회장. 이하 '겨레하나')은 "4월 못자리철에 앞서 비닐을 보낼 수 있도록 불자들이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지 스님은 "이번 일이 또 북한에 퍼주기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가 꼭 필요하다"며 불자들의 이해와 동참을 요청했다.

현재 북에서 필요로 하는 못자리용 비닐은 100m 비닐 30만통. 1만원이면 67m 비닐을 보낼 수 있고, 이 비닐은 3350평의 못자리를 할 수 있으며, 쌀 67가마를 생산해 42명이 1년 주식을 해결 할 수 있다고 한다.

북에 못자리 비닐보내기 운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0년,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이 북에 못자리 비닐보내기 운동을 펼쳤고, 불교계를 대표해 현지스님이 적극 동참했다. 이 인연으로 지난 1월 '겨레하나' 발족과 함께 스님이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

북에서는 그때 보낸 비닐을 3년간 씻어서 사용했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자 이번에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해 왔던 것이다.

"대승불교의 근간은 육바라밀로 그 중에 보시가 으뜸입니다. 못자리 비닐보내기는 생명을 나누는 보시행이므로 불자들의 동참을 기원합니다"

'겨레하나'는 3월말까지 성금을 모아 4월 중순경 북에 못자리 비닐을 전달할 예정이다.

(농협 176086-52-068084 예금주 이형한(겨레하나). 062-528-8116)

광주=이준엽 기자

"납골당 설치 주민동의 필요없다"

남원市, 관음사에 신고수리 거부
전주지법, "수리거부취소" 판결
"종교시설 활용차원에 불과하다"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볼수없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종교시설을 납골당으로 활용할시 굳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정창남)는 태고종 관음사(주지 법운)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납골당 설치 신고수리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피고(남원시)가 2003년 6월 2일 원고(관음사)에게 내린 납골당설치 신고수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00년 관음사가 경내에 장묘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서당마을과 진입로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어오다 급기야 마을에서 장묘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진정을 남원시에 내면서 시작됐다. 남원시는 관음사에서 장묘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납골당과 유족편의시설, 관리사무실이 남원시 보절면 서치리 695 구거(溝渠)를 무단 점용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납골당 설치 신고수리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관음사가 전주지법에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편의시설, 관리실이 구거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흠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원고의 납골당 설치 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관련해서도 "피고가 들고 있는 서당마을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나 농지를 무단 점용하였다는 사유는 피고가 적시한 이 사건 처분사유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종교시설을 납골당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불과한 점, 서당마을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봉영 기자

서산시, 불교문화 관광벨트 조성
보원사지-개심사-부석사 연계

서산시가 서해안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교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벨트 조성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최근 서산시에 제출한 '서산시관광종합계획 수립 보고서'에서 서산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이 가운데 동부권과 남부권을 불교문화 체험지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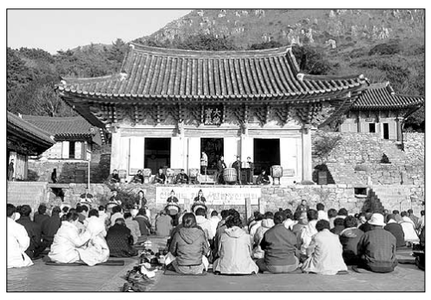
동부권의 경우는 보원사지 불교공원 조성 및 개심사 산사정원 조성 등의 사업계획안이, 남부권에서는 부석사 일원을 산사체험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서산마애삼존불상에서 약 1Km 거리에 위치한 보원사지는 사적 제316호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초기의 석탑양식을 고루 갖춘 5층 석탑과 통돌을 장방형으로 만든 석조, 고려 경종3년(978)에 법인국사의 제자들이 그의 사리를 안치하기 위하여 만든 보승탑, 법인국사의 생애가 기록된 보승비 및 큰 불교행사가 있을 때 불기나 행사기를 다는 당간을 세우기 위해 만든 화강석의 당간지주를 볼 수 있어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 불교공원이 조성되고 개심사에 산사정원이 조성될 경우 부석사와 연계한 불교 체험 관광벨트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미황사, 범종불사 천일기도 회향
6월 종각 건립 10월23일 타종식


해남 미황사는 3월1일 범종불사발원 1000일 기도를 회향했다.

달마산 미황사가 범종불사를 발원하고 입재에 들었던 1000일 기도를 마치고 3월 1일 회향했다.

2월 29일 오후 10시, 동산풍물예술단의 영남 농악으로 회향전야를 축하하는 공연한마당이 시작됐다. 동산아미타합창단의 다도 퍼포먼스와 아미타춤, 바라춤, 회심곡 공연 등으로 한마당이 마무리 됐다. 이어 염불정진법회로 밤을 지샌 대중들은 2000년 12월 26일부터 1000일 동안 지속돼온 기도를 회향했다.

주지 금강 스님은 회향의 인사를 통해 "1834년 쓰여진 <대종중성기>에 범종을 새로 조성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으나 현재 미황사에는 범종이 남아있지 않다"며 "그 종을 오늘에 다시 복원하겠다는 발원을 세우고 기도에 동참해 준 불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미황사의 범종불사는 6월 범종각 건립, 7월 범종 주조를 거쳐 10월 23일 타종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대전·충남불자회 '스님의 날' 행사

대전 · 충남 재가불자회(수석공동회장 김헌경)가 부처님 출가일을 '스님의 날'로 정하고 2월27일 보문산 그린타워호텔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스님의 날' 행사는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는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처음 마련된 것이다.

이날 법회에는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 현광 스님, 갑사 주지 장곡 스님, 심광사 주지 담오 스님 등을 포함해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명우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이웃과 함께하는 삶 행복"

서울 실상선원 연등회 이 만덕행 회장


실상선원 산신각에서 108배를 하고있는 만덕행 보살(사진 오른쪽).

"봉사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닌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입니다."

서울 실상선원이 이 만덕행(이병팔 · 62) 보살은 무의탁노인 무료배식활동, 노숙자 생활지원, 백혈병 어린이 후원 등 지난 십여 년간의 봉사활동 내용을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9년전 실상선원과 인연을 맺은 만덕행 보살의 신행활동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부처님 앞에서 나의 가족들만을 위해 하던 기도가 길거리 수많은 불우이웃들을 위한 발걸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지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 밥그릇만 챙겼구나 하는 마음에 말입니다." 그렇게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무료배식활동에 동참했다. 하루 한끼라도 배를 채우기 위해 인천, 수원 등 먼 곳에서 종로 탑골공원으로 찾아오는 노인들을 보았다. 봄이라지만 아직도 추운 날씨. 변변치 않은 웃옷에 손을 녹여가며 무료배식을 기다리는 노인들을 보며 만덕행 보살은 충격을 받아 적극적으로 봉사할 곳을 찾아다녔다.

영등포의 보현의 집, 논산 천축사에 위치한 무의탁노인상담실 등 지금 만덕행 보살이 실상선원 봉사단체 '연등회'를 이끌고 봉사활동을 나가는 곳은 한 두 곳이 아니다.

"어려움이요? 많지요. 일주일에 3~4일은 봉사활동을 나가니까 집도 잘 돌볼 수 없고, 육체적으로 무리가 오기도 하고…."

하지만 가족들의 만류도 잦은 무리로 인한 질병도 만덕행 보살의 보살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자신의 소임이라 믿기 때문이다.

매주 3일이상 무의탁노인돕기등 봉사

연등회의 활동내용이 신도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신도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있어 더욱 신이 난다는 만덕행 보살.

"어렵게 사는 분들을 보며, 삶에 자기만족이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자신의 허울 안에서 사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은경 기자



추천의 말

성환 스님 실상선원장

相내지않는 최고의 포교사

만덕행 보살은 선원의 모든 일을 내 일처럼 돌봐주는 보살입니다. 법당청소부터 탑골공원 등지에서 벌이는 무료배식활동까지 만덕행 보살의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어렵고 아픈 사람을 앞장서 돕고, 상내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주위의 분들을 부처님 품으로 이끄는, 실상선원 최고의 포교사입니다.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정 토 불 교 대 학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정토불교대학이 2004년 3월 전국8개 지역에서 동시 개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지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불자님들의 삶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정토불교대학에서 법륜스님의 살아있는 영상법문을 만나보십시요.

지 역	학 사 일 정				연 락 처
	학 기	개강 – 종강	요일	시 간	
서울 (주/야)	1년제 ■실천적불교사상 ■부처님의일생 ■근본불교 ■불교변천사	3.9 ~ 12.14 (8월 방학)	화	오전11:00/오후7:30	02)587-8993
부산해운대법당 (주/야)		3.8 ~ 12.13 (8월 방학)	월	오전11:00/오후7:30	051)747-9997
부산 동래법당 (주/야)		3.12 ~ 12.17 (8월 방학)	금	오전11:00/오후7:30	051)557-2746
▶서울. 부산은 2학기 1년 과정임.					
대구(주/야)	1년제 ■실천적불교사상 ■부처님의일생 ■근본불교 ■불교변천사	3. 9 ~ 7.20	화	오전11:00/오후7:30	053)744-3025
대전(주)		3.10 ~ 7.21	수	오전11:00	042)253-8990
청주(주)		3.12 ~ 7.23	금	오전11:00	043)284-5951
마산(주)		3.12 ~ 7.23	금	오전11:00	055)247-8991
울산(주)		3.10 ~ 7.21	수	오전11:00	052)245-8995
광주(주)		3.11 ~ 7.22	목	오전11:00	062)511-8990

정토불교대학 특전
◇ 초심자 입문교육 ◇ 야외법회실시-사찰순례
◇ 환경,복지,통일 특강
● 법륜스님과 함께 하는 수련
◇ 특강수련 -문경정토수련원
◇ 졸업수련 -문경정토수련원 ◇ 수계식

모 집 안 내
◇ 접수기간 : 2004. 3. 13까지
◇ 대 상 : 바른불교를 찾고자하는 사람
◇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2매
◇ 등 록 비 : 서울,부산 12만원(1년제) 기타지역 6만원(한학기)
◇ 문 의 : 각 지역법당

정토회 정토불교대학 JungTo Society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 전화 02)587-8994 팩스 02)587-8998
http://www.jungto.org young@jungto.org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깨달음의 강좌

법륜스님의 금강경대강좌

2004년 봄, 절대적 자유와 완전한 행복을 위해 이 땅에 나투셨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금강경대강좌'가 전국 정토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법회는 부산 해운대 정토법당 개원기념 법회로 진행되고 기타 지역법당에서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 전국 11개 정토법당 지역별 일정표

법 당	요 일	일 정	수계식	연 락 처
서울법당	매주 수 / 목	3. 3 ~ 6.10	5 / 19(수)	02)587-8993
부산법당	매주 화 / 목	2.24 ~ 5.27	5 / 27(목)	051)747-9997
대구법당	매주 월 / 목	3. 1 ~ 6. 7	5 / 10(월)	053)744-3025
대전법당	매주 목 / 금	3. 4 ~ 6.10	5 / 21(금)	042)253-8990
청주법당	매주 화 / 수	3. 2 ~ 6. 8	5 / 14(금)	043)284-5951
마산법당	매주 화 / 수	3. 2 ~ 6. 9	5 / 12(수)	055)247-8991
울산법당	매주 화 / 금	3. 2 ~ 6. 8	5 / 7(금)	052)245-8995
광주법당	매주 월 / 금	3. 1 ~ 6. 7	5 / 17(월)	062)511-8990
제천법회	매주 화 / 수	3. 9 ~ 6.15	청주에서	043)648-0083
정읍법회	매주 수 / 금	3.10 ~ 6.16	광주에서	019-308-2731
제주법회	매주 화 / 목	3. 9 ~ 6.15	부산에서	064)724-7885

정토회 JungTo Society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 전화 02)587-8994 팩스 02)587-8998
http://www.jungto.org young@jungto.org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발 닿는 곳마다 '평화의 등불' 밝히리



3월1일, 남원 실상사 도법(가운데) · 수경(오른쪽)스님, 이원규(왼쪽)시인이 '생명평화탁발순례'에 앞서 제를 올리고 있다. 사진=이준엽 기자

생명이 하나되는 '다르마 길' 떠납니다



도법 스님-수경 스님-이원규 시인 '생명평화탁발' 떠나던 첫 날

3년간 1만2천㎞, 하루평균 12㎞ 도보
남쪽에서 북으로 면(面) 단위 순례
'평화의 등불'에 10만명 동참 이끌터

85년 전, 이 땅의 생명들이 살아있음을 천명했던 3월 1일. 다시금 그날, 지리산 노고단에서 '생명평화' 씨앗이 싹틈을 하늘에 고하는 제(祭)가 열렸다.

오전 10시, 지리산을 중심으로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종교인과 환경단체 회원, 등반객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식이 시작됐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인종, 계급, 성, 나이 등 우리들은 스스로가 만든 차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중심 세계관으로 만들어낸 문명은 뭇 생명을 고통의 아수라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질서아래 지구위의 모든 생명이 함께 살게끔 하는 길을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생명평화탁발 순례의 시작을 하늘에 고하는 고천축문(告天祝文)에 이어 '생명평화의 경(經)'이 독송됐다. 이 경은 지리산의 모든 생명이 하나 되어 합송됐다. "생명평화의 벗들이여! 다르마(法 · 깨달음)의 길 위에서 자연은 뭇 생명의 뿌리이고, 뭇 생명은 자연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다르마의 길을 어기고 인간중심, 내 나라 중심, 내 가족 중심, 자기 중심의 이기심으로 살아온 왜곡된 자기 사랑의 삶을 뼈아프게 참회합니다. 다르마의 길 위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감사하고 찬탄하며 다르마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경을 세상에 펴고자 순례꾼 셋이 나섰다. 지리산 실상사 도법(55)스님과 수경(55)스님 그리고 지리산 지킴이 이원규(42) 시인.

삼장법사 일행이 경전을 좇아 서천국으로 향하듯, 선재동자가 법을 구하고자 선지식을 찾아 나서듯 이들은 '생명평화의 경'을 안고서 길을 떠났다.

경건한 의식이 끝나자 수경스님을 향해 문규현 신부(59 · 부안본당)가 다가간다. 서로를 알아보고 온몸을 감싸 부둥킨다. 길 잃은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듯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린다. 이들은 지난해 '새만금 살리기' 3보1배 정진을 목숨 걸고 했다. 문규현 신부는 또다시 끝없는 수행길을 떠나는 도반을 찾아 지리산 정상까지 한걸음에 달려온 것이다.

12시 30분, 주먹밥으로 간단히 허기를 때우고 본격적인 도보순례길이 시작됐다. 생명평화 탁발은 하루 12㎞ 가량 걸으며 면(面)단위로 순례한다. 먼저 지리산권 1500리를 49일간 걷는다. 그 후 4 · 3의 현장 제주로 건너가 순례한 후 남에서부터 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한은 3년 예정. 하루 평균 12㎞, 총1만2천㎞를 걸으며 전국을 순례한다. 북한 길이 열리면 더 길어질 것이다.

이들이 탁발순례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만나겠다'는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종교 등에 분별을 두지 않고 만날 것이다.

"부처님은 평생 길에서 탁발하며 사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라 설파하셨습니다. 돈, 땅, 권력, 명예 등 어느 것이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놓도록 할 것입니다."

도법 스님은 "이렇게 탁발하여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민과는 함께 일을 하고, 지역갈등으로 다투는 곳에서는 화해의 무대를 열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에서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순례단은 생명평화탁발을 통해 평화를 위해 공부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평화의 등불' 서약서를 받는다. 순례단은 이 서약에 10만 명이 동참하면 비로소 지리산에서 시작된 생명평화결사가 세계평화를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

구례를 향한 첫걸음은 지리산을 내려가는 산길이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차량만 지나칠 뿐이다. 산 아래에 다다르면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날 오후 내내 설레임과 기대를 안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지리산=이준엽 기자

탁발 순례 3인

생명평화 탁발순례단의 단장은 도법스님이다. 수경스님이 도감이고 이원규 시인은 총괄진행을 맡고 있다. 이들 셋이 만난 것은 2000년 지리산살리기 댐 백지화추진위가 구성되면서이다. 그때부터 셋은 지리산을 '청정국토 1번지'로 선언하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생명평화를 외쳤다.

도법스님과 수경스님은 30년을 이어온 도반이다. 오랫동안 함께 했지만 빛과 그림자마냥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수경스님은 한마디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묵묵히 지켜보다가 한마디 '툭' 던지고 일사천리로 밀고나간다. 선방에서 살다가 우연히 들른 환경단체에 감동하여 하루아침에 불교환경운동 선봉에 나섰다. 이번에도 그랬다. 탁발순례를 준비하는데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3보1배 하자'는 것이다. 참석자 모두가 경악했다. 지난해 부안에서 서울까지 3보1배로 무릎이 망가져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서 어쩌자는 것인가. 지난달 무릎수술 날짜가 잡혀졌건만 순례일정을 바꿀 수 없다며 수술을 포기했다.

'지리산 살리기' 인연, 불교환경 위해 한마음

반면에 도법스님은 합리적이다. 이번 생명평화탁발에 앞서 스님은 2000년부터 100일기도, 천일기도, 지리산 위령제, 국토도보순례 등을 주도했다. '생명평화'를 화두삼아 한시도 놓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번 탁발순례이다. 엄밀히 말하면 탁발정진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님은 금산사에서 화엄학림을 개설했으나 6년만에 중단했다. 그때의 절망감이 탁발정진을 생각케 했다. 3년가량 농민들을 찾아 일도 하고 이야기하며 공부하고자 했다. 그러나 96년 금산사 대적광전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본사인 금산사 복원이 먼저였던 것이다.

이런 두 스님 곁에 자타가 인정하는 지리산 지킴이 시인 이원규 씨가 동행한다. 이씨의 지리산 지키기는 남다르다. 7년 전 아예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지리산 자락에서 지리산을 노래하며 살고 있다. 그는 <지리산에 오시려거든>이란 시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등산은 말고 입산하러 오시길. / 등산은 정복욕과 교만의 길이지만 / 입산은 자연과 한 몸이 되는 / 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리산권 순례구간

● 구례군 : 3월1~9일 전남 지리산 노고단 ~토지면 외곡리 (105㎞)

노고단 기도회(오전 10시), 지역주민과의 사랑방좌담회, 평화의 등불과의 만남, 반달곰방사프로젝트팀, 택견전수회, 판소리동편제전수회, 포장마차 지역민간담회

● 하동군 : 3월10~20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옥종면 (120㎞)

섬진강 생명평화의 밤 행사(13일, 자연농업문화센터, 가수 김원중 등 나팔꽃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사랑방좌담회, 평화의 등불과의 만남, 지자체 공무원 면담, 군수와 섬진강벚꽃길 살리기모임 간담회(14일)

● 산청군 : 3월21~29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생초면 (107㎞)

지역주민과의 사랑방좌담회, 평화의 등불과의 만남, 지자체 공무원 면담, 외공리, 방곡리 민간인학살지역 천도재

● 함양군 : 3월30~4월7일 경남 함양군 수동면~ 마천면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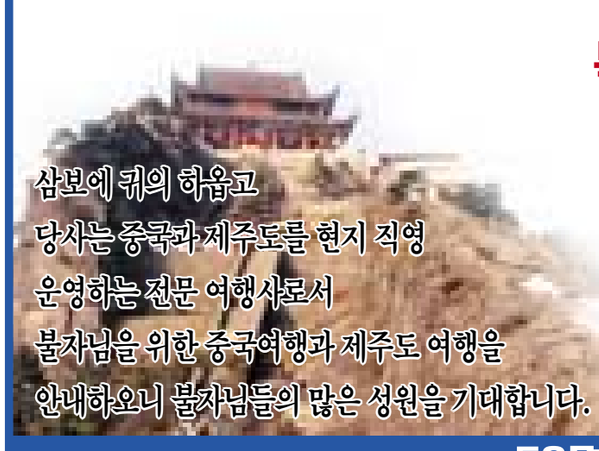
지역주민과의 사랑방좌담회, 평화의 등불과의 만남, 지자체 공무원 면담, 녹색대학, 함양시민연대, 원불교 등 간담회, 주요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민간인학살지 천도재, 생명평화의 나무심기

● 남원시 : 4월8~4월 18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남원읍 만인의총 (83.5㎞)

만인의총에서의 지리산권 탁발순례 회향(14일 오후 2시), 함양군 마천면 인산자연학교 불우이웃돕기 행사, 지역주민과의 사랑방좌담회, 평화의 등불과의 만남, 지자체 공무원 면담, 주요문화유적지 방문

● 4월 19일 이후 제주도행 예정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20-8489



특별기획안내 <중국 제1의 관음도량 법회 - 상해/보타산/낙가산 5일>
◎ 출발일 : 2004년 3월, 4월 ◎ 출발지 : 인천국제공항, 김해(부산) 국제공항, 대구 국제공항
◎ 판매가 : 인천출발 - 69만원 / 부산, 대구 - 67만원
- 11명당 1명 무료 적용, 10명이상 출발가능 / 각 단체별 단독 행사(10명이상) 가능

불교 성지순례 <중국 4대불산>
1. 관음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 오대산 /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달라이라마의 성지 - 티벳/ 낙산대불 8일 169만원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4성급, 2인1실), 천일정 관광 및 식사, 차량료, 선박료,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기금,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여권, 비자비, 현지 기사/가이드 팁, 개별비용 - 비고: 11명당 1명 무료, 10명이상 출발가능, 인솔자 동행

고품격 여행과 윤년 제주도 삼사순례! 소원성취 방생법회를 최남단 마라도에서...
▶일요일 출발 - 225,000원 ▶화, 목, 토 - 248,000원 ▶금요일 출발 - 289,000원

<요금 포함내역 및 특전>
왕복항공료, 관광 1급호텔 2박, 조식 2회, 중식 2회, 마라도 유람선, 마라도해상국립공원 입장료, 여미자, 퍼시픽랜드(돌고래, 바다사자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 제주 10경 관광안내. 차량료, 여행자보험

<관광일정 - 일요일 출발 기준입니다>

제 1일	제주공항 도착 → 마라도 "기원정사" 방문 및 방생법회 → 오! 설록(설록茶밭 및 뮤지엄)방문 → 호텔 투숙 및 저녁공양(자유식)
제 2일	호텔 아침공양 후 → 동양 최대의 식물원 "여미지" 관광 → 제주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주상절리"를 관광 → 점심공양 돌고래, 바다사자의 환상적인 쇼 "퍼시픽랜드"를 관람 → 동양 최대의 사찰 "약천사" → 밀감/버섯 농장 견학 "정방폭포"(혹은 천지연 폭포)를 관광 → 호텔 투숙 및 저녁 공양(자유식)
제 3일	해미안 녹차/ 해수 사우나(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 아침공양 → 시내에서 쇼핑 → 한라산 내 "신비의 도로" → "절물휴양림"에서 삼림욕을!!! → "조랑말 체험" 또는 "몽골리안 마상쇼" 관광 → 성읍민속마을 관람 → 점심공양 → "통일불사리대탑(고관사)"방문 → 제주공항으로 이동 → 김포공항 해산

50명 이상 단체는 별도의 일정(맞춤)과 가격을 드립니다 !!!

올 종무계획·주요사업

법륜종은 올해 개혁과 화합을 바탕으로 '함께 하는 종단'의 기치를 내걸었다. 반면 대각종은 지역교구 신설 등 종단의 하부조직체계를 갖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종단을 운영해 나간다. 양 종단의 올해 종무계획의 기조에는 모두 종단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법륜종 총무원장 창법 스님과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으로부터 종단운영 방침을 들었다.



법륜종 총무원장 **창법** 스님

안정·화합 기반으로 개혁

"법륜종은 올해를 안정 속의 개혁, 화합 속의 개혁을 이루는 해로 삼을 것입니다. 어떠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기조는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종도들이 '함께하는 종단'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법륜종 총무원장 창법(昌法) 스님은 지난 해 총무원장 재임 당시 밝힌 소신을 재차 강조하고, 올해 주요과제로 종풍 진작, 종단의 합리적 운영, 교육 및 포교 활성화, 사회복지 참여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스님의 자질 향상을 위해 스님 양성과정과 교육을 엄격히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행자교육원, 전문강원, 선원, 율원을 종단 산하에 갖추고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또 법계제도 시행, 의식·의제 통일 및 정비 등의 교육체계와 위계를 바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창법 스님은 행자로부터 사미계, 구족계를 수지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스님다운 스님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님들이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고서는 포교도, 종단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창법 스님은 종무행정 전산화와 교육원·포교원의 역할 강화, 총무원사 건립 등을 실현해 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지역별 포교거점 사찰 선정, 법륜종 포교사 배출 등을 통해 종단의 외연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불사가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속 사찰은 역량대로 미래의 설계를 자율적으로 그려 나가고, 총무원은 각 사찰의 불사와 포교를 적극적으로 돕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는 신념도 내비쳤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을 종단운영의 좌표로 삼고 정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선교육 후득도' 제 정착
종무행정 전산화 추진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열린 종무행정 시대 연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종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열린 종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萬淸) 스님은 종단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올해 종단운영의 주안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도들의 정신적·신앙적 귀의처가 될 총본산 건립과 지역사찰의 활동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교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6개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구를 보다 세분화해 지역의 종단 소속 사찰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만청 스님은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종도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스님은 불사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미암사 인근 부지 6만8천평을 매입해 놓은 상태다. 총본산에는 총무원 청사와 교육시설, 수행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금의 미암사는 총본산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규모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역화 불사가 진행된다면 미암사는 수행, 교육, 종무행정을 아우르는 대각종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고, 나아가 종도들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청 스님은 가장 시급한 종단현안으로 열악한 재정구조의 탈피와 총무원의 기능 강화를 들었다. 종단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종단의 활동이 부족하고, 종단 활성화도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총무원 부장급 스님들의 상근제와 수익사업 개발 등을 통해 현안을 풀어 나가고 종단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다면 대각종도 한국불교의 중심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총본산·지역교구 설립
수익사업 개발 역점

글=박봉영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금강대 신입생 73명 입학식

천태종립 논산 금강대는 3월 2일 교내 대강당에서 제2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불교문화학부 10명, 통역학부 52명, 사회과학부 11명 등 73명이 금강대에 새로 입학했다. 권탄준 총장 직무대행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경쟁하더라도 뒤지지 않는 힘을 기르겠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로 무한 경쟁시대를 헤쳐 나가라"고 말했다. 한편 진각종립 경주 위덕대도 같은날 2004학년도 입학식을 열었다.

종단소식

20~25년차 지도자 교육

조계종 교육원은 승랍 25년차 스님과 20년차 스님들을 대상으로 중진 지도자과정 및 고급지도자과정 교육연수를 실시한다. 고급 지도자과정 연수는 3월 24~26일 김천 직지사에서 열리며, 중진 지도자과정 연수는 3월 31일~4월 2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수자에게는 올해 본·말사 주지연수를 면제 받는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정광사 교양대학 개설

천태종은 3월4일 울산 정광사에 불교교양대학을 개설, 첫 수업을 진행했다. 정광사불교교양대학은 불교학과 1년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초기경전과 불교학개론 교과목으로 운영된다.

천태종은 대구 대성사, 춘천 삼문사에도 불교교양대학을 이달 개설했다.

대정사·대전수 품수 의결

진각종은 2월 26일 서울 월곡동 통리원 회의실에서 제224회 원의회를 갖고 덕정(법륜심인당 주교), 관천(경전심인당 주교) 정사를 대정사로, 정원장(경산심인당 교화), 대원심(실각심인당 주교), 전법일(지원심인당 교화), 선각제(범석심인당 교화), 선혜장(L.A 불광심인당 교화) 전수를 대전수에 품수하기로 의결했다.

품수식은 4월 20~21일 열리는 춘기스승강공 때 봉행될 예정이다.

재단법인 설립 추진

총화종 중앙종회(의장 화담)는 3월 2일 남양주 수진사에서 열린 제55차 정기중앙종회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현재 30여 사찰이 재단법인에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종회에서는 3월 중국 성지순례, 10월 영산수륙대재 등을 포함한 종단사업을 확정했으며, 총무원 규정부를 호법부로 개칭하고 31개 지역교구에 호법국장을 두도록 하는 조직개편안도 통과됐다.

종단사업 동참 결의

본원종 중앙종회(의장 대운)는 3월 3일 서울 평창동 총무원에서 제29차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올해 종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종단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또 총무원내에 건립한 사리탑 제막식을 3월 23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4월 방생 및 수륙대제 봉행 등 세부 일정도 확정했다.

진각대학 졸업·입학식

진각종 진각대학(학장 혜정)은 3월 16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각각 졸업식과 입학식을 개최한다. 학인 정사(보덕심인당 주교) 등 11명이 졸업하며, 현해 처무 등 5명이 새로 입학한다. 교화스승 양성을 위해 1989년 설립된 진각대학은 스승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4년 과정의 종립 고등교육기관이다.

미륵종 종정 연화 대종사 취임



미륵종 제3세 종정 연화 대종사가 2월29일 울산 언양교육원에서 취임했다.

미륵종 제3세 종정 연화 대종사 취임법회가 2월 29일 울산 언양교육원에서 열렸다.

새 종정 연화 스님은 "항상 교묘함을 즐기는 것은 부처님의 행이요 복과 지혜를 닦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지만 지관을 갖추지 못하면 보리의 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수행에 매진하여 종단발전을 이루라"고 법문했다.

앞서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종정 연화 대종사를 정점으로 21세기 선진종단으로 거듭나자"고 역설했다.

연화 대종사는 1937년 부산에서 태어나 54년 광양 백운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뒤 송광사 강원을 수료했다. 이후 해인사 용탑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용맹정진했으며, 70년 김해 대인사를 창건해 수행과 포교에 진력해 왔다. 이후 미륵종 원로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양산 대인사 조실로 있다.

박봉영 기자

여래종 복지재단 설립

이사장 명안스님 취임

여래종이 종단 산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 나간다.

한국대승불교여래종(총무원장 법정)은 2월 28일 원주 약사사에서 여래구도복지재단 설립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복지재단(인가명칭은 동광장애인복지재단)의 이사장에는 전 총무원장 명안 스님(옥천 대약사사 주지)이 취임했다.

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시설인 여래원도 이날 약사사내에 개원했다.

여래원은 총면적 300여평의 규모로 법당과 작업활동 공간, 숙소 등을 갖췄으며, 장애인 50명과 독거노인 2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향후 재활시설, 휴식시설 등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재단은 10년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성남 약사사의 공양원도 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운영해 나간다.

여래구조 복지재단 이사장 명안 스님은 "이번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여래종의 사회복지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3년 동안 부산, 옥천, 성남, 공주 등의 지역에 복지재단 산하 지부를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육 법 등 (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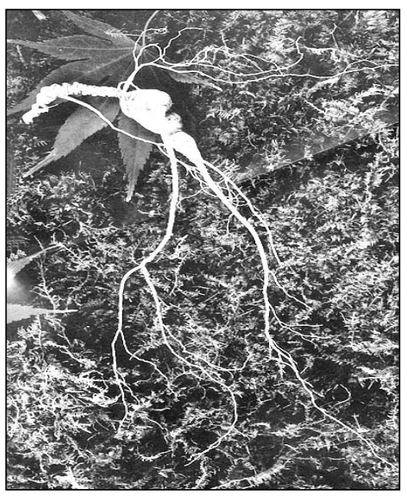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서울대에 불교바람 일으키는 두 주역

관악산 서울대 캠퍼스에 요즘 '불교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서울대 21개 단과대·대학원 소속 불자 교수들이 통합 불자회 결성을 추진하고, 불교학생회 지원책을 내놓았다. 잠깐 일다 그칠 바람이 아닌 것 같다. 순풍에 돛도 달았다. 서울대 교직원 불자모임인 '불이회'의 두 교수가 키를 잡았다. 소광섭 교수는 '(가칭)서울대 교수불자회'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불자회 외연 넓히기를 하고 있고, 총무 우희종 교수는 '성경 새로 읽기' 모임을 주도하며 '신행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들이 서울대에 일으키는 '法바람' 속으로 들어가 보자.



'교수 불자회' 창립 준비
소광섭 교수



'성경 새로읽기' 주도
우희종 교수

"모여서 좋고 공부해서 더 좋은 '관악 불심' 꽃 피웁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 그간 단과대와 대학원별로 흩어져 제각기 활동했던 불자 교수들이 한 데 모인다. 또 전공별로 불교와 만나는 자리도 마련된다.

3월 3일 자연대 25동 310호 연구실에서 만난 소광섭 교수(59·물리학부·가섭)는 향후 '서울대 교수불자회'의 밑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개별적으로 불자 교수 모두는 보배들입니다. 하지만 모이지 않는다면 그 하나하나의 구슬은 초라해 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주 모여 법에 대해 논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여야 합니다. 올해 부처님오신 날에는 관악산 서울대 캠퍼스에 연등 물결이 일겁니다."

불자 교수·학생·직원 합동법회로 한마음 신행·연구 힘 받을 것

소 교수는 늦어도 오는 5월 26일 부처님오신날 전후로 창립법회를 봉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월 20일에 교수불자회 창립준비위원장의 중책을 맡았고, 지금은 단과대와 대학원별 준비위원들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조율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 공과대(박영준), 국제대학원(박세일), 농생대(임승빈, 윤여창), 법과대(호문혁), 사회대(김재영), 수의대(황우석, 우희종), 인문대(윤원철, 이강재), 의과대(조보연), 자연대(소광섭, 오세정), 치대(배광식) 등 총 10곳의 단과대와 대학원에 준비위원을 위촉했다. 또 불자 교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 1,500여 교수를 대상으로 불자교수 현황 조사를 추진 중이다.

소 교수는 '신행'과 '연구 활동의 상호자극'등에 불자회 운영의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자로서의 정기적인 신행활동과 함께 회원들의 전공에 따른 불교연구를 적극 장려할 생각입니다. 불교와 전공을 접목한 연구 활동을 벌이는 불자 교수를 발굴해 교계는 물론 학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교연구의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우희종 교수(사진 왼쪽)와 회원들이 신약복음서를 읽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소 교수는 이를 위해 그동안 발표된 관련 논문들을 묶어 논문집을 발간하는 한편, 교수불자연합회와의 연계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 교수는 산발적으로 활동해온 단과대·대학원별 불교학생회, 직원 불자모임과 합동법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재학생 불교모임의 활성화 방안으로, 불자교수와 학생을 1:1로 결연하는 '후견인'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불교신행공동체를 일궈, 서울대에 '불교바람'을 조직적으로 일으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캠퍼스 불심을 이끌겠다는 소 교수. 소 교수는 "회원들 각자 배운 불법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지성인으로서 대사회적인 역할도 게을리 않을 때 대학과 사회가 건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 통해 불교 새롭게 인식'

○… 2월 28일 오후 7시 서울대 수의과대학 714호 강의실. 불이회 총무 우희종(46·수의대 면역학교실·여산) 교수가 이끄는 '성경 새로 읽기'가 한창이다. 우 교수가 한 구절을 읽자 5명 회원들이 제각기 해석을 내놓았다. 서로 다른 시각의 절대 존중, 논의 방식의 자유로움이 이 모임의 특징이다. 고정된 '인식의 틀'을 고집하지 않는다. 왜 기독교의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일까?

"언어가 갖는 한계성은 종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의 언어'로 너무 길들여지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길들여짐은 '깨어있음'에 독(毒)이 됩니다. 제가 5년간 해온 참선 모임을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한 차례 성경 공부 모임을 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 다시 '불교바람'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들의 성경 공부는 불교신행이 '절름발이'가 되서는 안된다는 우 교수의 지론에서 나왔다. 산속에 있을 때는 산이 높은 줄 모르지만 밖에서 보면 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불자인 우 교수의 입에서 '예수님 말씀'이 주저 없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답을 통해 첨예한 논쟁이 오가고 종교간 접점을 찾지 못해도, 이 공부를 하면서 불교에 대한 믿음이 더 명확해졌다고 토로한다.

매월 한번씩 마주 앉아 성경 읽고 자유토론 깨어있는 불자되기 도움

"오히려 불교에 대한 신심이 깊어졌습니다. 가르침이 다르다고 다른 종교를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간 종교는 역사, 시대적 상황에 따라 '표현'과 '관점 차이'만 달리해왔을 뿐입니다. 자기 것으로의 소화, 즉 '자기변화'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인호(사법연수원생·36) 씨의 말이다.

우 교수는 묻지도, 논의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않는다. 느끼고 깨닫는 것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라는 것이 우 교수의 설명이다.

우 교수는 현재 매월 1회 열고 있는 '성경 새로 읽기' 모임을 더 자주 가질 예정이다. 불교를 넓은 시각에서 공부할 때 대학 내 포교활동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MBC불교연구회

문화방송 불교연구회는 어느 때보다 TV영향력이 막강해진 만큼 불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바른 마음으로 시청자들의 귀와 눈을 밝히는데 혼신의 힘을 바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규칙적인 생활로 심신이 지친 불자와 동료 직원들에게 마음을 정화하고 정신을 순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5월 첫 모임을 갖고 7월 봉선사에서 창립했습니다. 그 해 12월부터는 서울 여의도포교원 현진 스님을 모시고 매월 셋째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출범 1주년 때는 봉선사에서 회원가족과 함께 수계법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기법회를 매월 개최하고 년 4~5회의 명산 대찰 순례법회를 다니며 전국의 문화방송직원들과 함께 법우회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찾아간 사찰만 해도 합천 해인사, 단양 구인사, 김천 직지사, 충남 갑사, 5대 적멸보궁 등 내로라 하는 명산대찰을 순례했습니다.

참, 우리 불자회의 이름이 왜 '연구회'인지 궁금하시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립 초기에 불교 신행단체로 결성은 했지만, 직업의 특성상 한곳에 모여 법회를 봉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불자회 이름을 신행회 같은 명칭보다 생활 속에서 항상 불교적인 소양을 갖추고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자는 뜻에서 '연구회'로 지었습니다.

물론 그간 걸어온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IMF로 회원들의 30%가 명예 퇴직하여 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자주 모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한 때는 명맥만 유지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퇴직 등으로 회원수가 줄고 있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법회의 환경이 열악한 것도 어려움이었지요. 점심시간을 이용하다보니 시간 제약을 받아 알찬 법회를 열 수 없는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연구회는 체념만 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SBS 불자회와 증권거래소 불자회, 금융감독원 불자회 등과 연합법회를 시작하면서 법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연구회는 지난 2002년 방송3사 회장이 모여 연합회 결성을 합의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현재 연합회원 30여명이 모여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교연구회는 그동안 소홀했던 지방 문화방송 불자들과 같이 순례법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여법한 법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불교연구회의 올 목표입니다.

■장영효 회장

명찰 순례법회 때 지방국 불자회와 교류 적극적인 신행 위해 '연구회' 명칭 사용



MBC 불교연구회원들과 언론인 불자들이 지난해 여의도포교원에서 언론인불자연합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모습.

우·리·절·은·불·자·여·러·분·을·사·랑·합·니·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생전예수재법회

칠재	날짜	요일	특별법회 / 행사내역	장 소
입재	2.29	일	입재법요식	우리절
초재	3.07	일	윤달삼사순례	보문사
이재	3.14	일	주장자법회	우리절
삼재	3.21	일	태하산산신제	우리절
사재	3.28	일	점안법요식	우리절
오재	4.04	일	서옹큰스님사리친견법회	백양사
육재	4.11	일	관정법회	우리절
막재	4.18	일	봉송법요식	우리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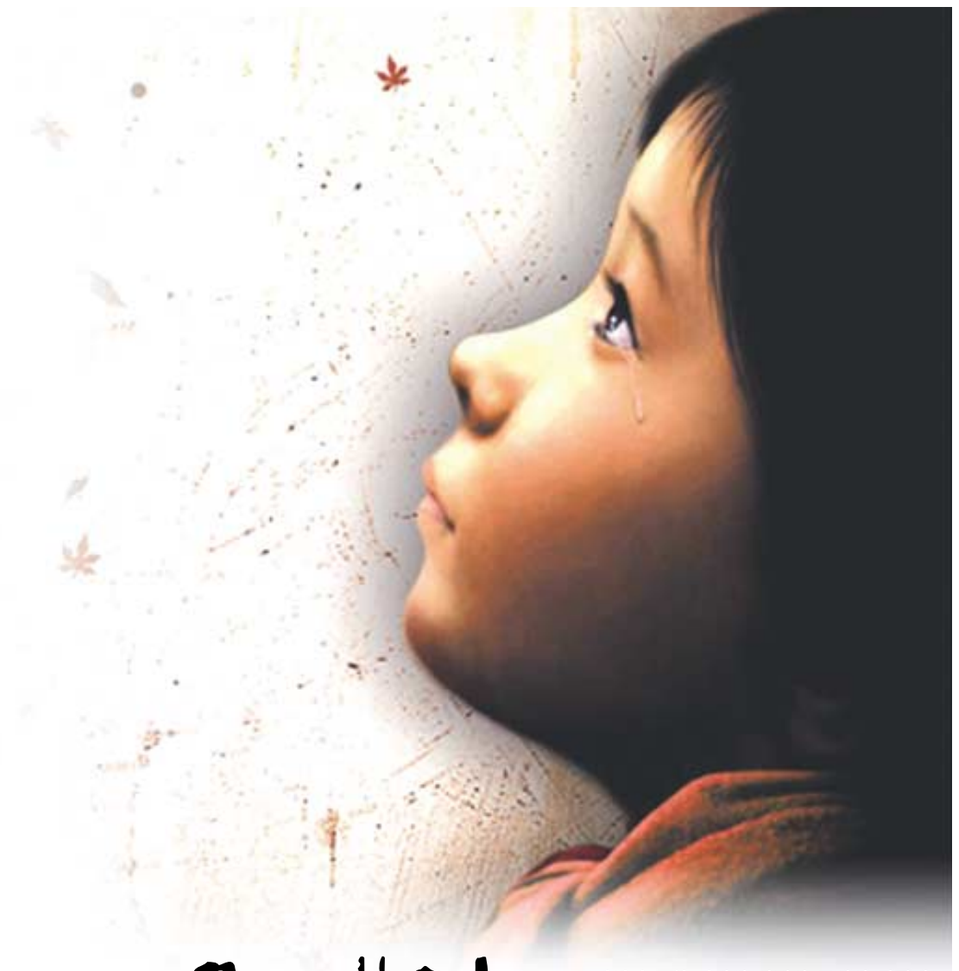
제3재 태화산산신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일원곡>>제8권을 나누어 드리고 제 6재 관정법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역시 동봉스님이 사언절로 옮긴 <<지장경>>을 나누어 드립니다.
또한 제4재 점안법요식에서는 예수재용품을 비롯하여 금강경탑다라니와 광명진언탑다라니를 점안합니다.
예수재용품은 회향 때 살라드리지만 이번 윤달에 우리절에서 점안한 탑다라니는 종이가 아닌 비단 위에 그려진 것으로써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다시없는 좋은 효도선물이 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반갑다! 불교 뮤지컬

3월 불교계 뮤지컬 두 편이 나란히 무대에 올려진다. 강화 전등사의 나부상 설화를 각색한 '나부상화'와 동화 〈오세암〉을 극으로 만든 '오세암'이다. 그동안 불교계에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장르여서 인지 시작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실 그동안 불교를 소재로 한 뮤지컬은 '팔만대장경' 이 고작이었다. 연극에 음악과 안무가 더해지는 뮤지컬은 스텝과 출연진, 부대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해 저예산으론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이란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희성 서울예술 뮤지컬 감독은 "이런 이유로 그동안 불교뮤지컬은 거의 전무했던게 사실이었다"며 "현재 '맘마미아' '캣츠'와 같이 뮤지컬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에 맞춰 불교계도 문화의 효자종목이 될 수 있는 뮤지컬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연을 2주 앞두고 뮤지컬 '나부상화'와 '오세암'을 미리 만나봤다.



나부상화



강화 전등사 裸婦像 극화
타령조 삽입 잔재미 더해
최정우씨 등 출연 배우 쟁쟁

3월 25~5월 29일 / 세우 아트센터 / 예우

강화 전등사 대웅전에 가면 네 추녀를 떠받치고 있는 기괴한 조각상을 만날 수 있다. 대웅전을 만든 도편수의 돈을 훔쳐 달아난 술집 작부의 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원숭이상이라고도 한다. 정확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숱한 작가와 묵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옛날 도편수께서 /딴 사내와 달아난 /온수리 술집 애인을 새겨 /냅다 대웅전 추녀끝에 새겨놓고 /네 이년 세세생생 /이렇게 벌받으라고 한 /그 저주가…' 와 같은 고은 시인의 시처럼, 묵객들은 추녀밑 괴상을 나부상(裸婦像)이라 이름붙여, 신화와 전설의 소재로 삼았다.

극단 예우(대표 박병모)는 전등사(주지 계성)



'나부상화'의 출연진들이 한데 모였다.

와 함께 오는 3월 25일에서 5월 9일까지 대학로 세우 아트센트에서 이 나부상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올린다. 우봉규씨가 시나리오를, 박근형씨가 연출을 맡은 이 뮤지컬은 '나부상화'다.

총 3막으로 구성된 이 뮤지컬의 역사적 배경은 여말선초. 자신에 의해 몰락한 왕족들의 후한이 두려운 이성계는 왕족들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당대제일의 문인 왕동량을 잡아 고문한다. 그는 자신의 죽음앞에서는 저항하지만, 처자식에게 가하는 고문앞에선 마침내 굴복하고 만다.

자신의 가족을 살리고자 왕족을 마포나루에 모이게 한 뒤 강화로 가는 배에서 왕족들을 수장(水葬)시킨다. 이에 죄책감을 느낀 동량은 절을 짓는 도편수가 돼 강화 전등사로 내려와 왕족들을 수장시키는데 도모한 '도치'와 술집 작부인 '들레'를 만난다는 게 대략의 줄거리다.

여기서 설화속 내용과 다른점이 있다. 설화속에서의 나부상은 도편수의 돈을 갖고 도망친 술집 작부이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처 · 자식을 새겨 넣었다. 수장된 왕족들에 대한 속죄의 차원이다.

흥미진진한 내용도 그렇지만 뮤지컬 감상의 재미는 뭐니뭐니 해도 생동감 넘치는 안무와 박진감이 더해진 음악이 관건이다.

이번 작품에서는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이 우봉규 작가의 노랫말에 맞춰 '내땅 강화' '도치의 노래' '전등사의 노래' 등 18곡을 만들었다. 특히 이 실장은 시대극의 잔 재미를 더하기 위해 '감축드리옵니다'와 같은 신명나는 타령조의 음악도 과감히 삽입했다. 화려한 스텝진 못지 않게 출연배우들도 쟁쟁하다. '불좀 꺼주세요'로 이미 연기력을 인정받은 왕동량역의 최정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화려한 율동을 보여 주었던 들레역의 임은혜 등이 뮬오른 연기력을 과시한다. (02)762-8846

오세암

현장답사 열정, 원작 충실
전문성악가 라이브 생생
난타 공연등 가족형 구성

3월 19~31일 / 교육문화회관 / 예일

故 정채봉씨의 동화 '오세암'이 이번엔 뮤지컬로 제작된다. 뮤지컬 전문극단 '예일'(대표 이광열)이 무대에 올리는 '오세암' 역시 원작에 충실한 설악산 작은 암자에 전해 내려오는 다섯 살배기 아이 길손이의 설화가 기본 줄거리다. 원작은 지난 83년 초판이 발간된 이래 20년이 넘게 재발행을 거듭하며 10만부 이상 팔렸고,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다.

제작진이 이번 뮤지컬에 바친 열정은 남다르다. 우선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뮤지컬의 무대가 된 '오세암'을 현장 답사했다. 상황설정에 몰입하기 위해서다. 또 그동안 여러 장르를 통해 제작된 바 있어 자칫 식상해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극중에 타악 라이브 24곡을 가미했다. 그래서 전문 성악가인 홍성숙씨를 비롯해 단국대 뮤지컬과 3학년 최윤정씨 등 가창력 있는 배우들을 대거 영입했다. 산사를 배경으로 한 무대에서 국악 난타와 아리아 공연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 웃음과 흥이 절로 날 것 같다.

그만큼 이번 뮤지컬은 배경은 불교적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 형식으로 기획됐다.

연출가 이광열씨는 "독자들을 동심의 세계로 초대했던 '오세암'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다시한번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며 "작품의 배경이 되는 설악산과 사찰 오세암 등 산사의 풍경은 3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들여 현실감 있게 꾸몄다"고 말했다.

귀 뿐만 아니라 눈이 즐거운 이유는 스케일이 큰 무대장치 덕분이다. 오세암의 전경과 대규모의 탱화를 무대에 등장시켰다. 특히 양식을 구하러간 오세암에 혼자 남겨진 길손이가 탱화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장면은 감동을 자아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에서 공연된다. (02)555-0822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뮤지컬 '오세암'의 하이라이트가 될 '타악 라이브'를 연습하고 있는 출연진.

한글에너지 전문점 및 사원모집

한글에너지를 만난 당신은 건강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 차원 높게 생각하면 살충제, 중금속 등 유해성분과 공해로 인한 유해공간에서 간단하게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등산 낚시 등 야외, 가정에서 영원히 휴대해야 할 현대인의 필수품, 가정에서 살충제 해방!! 간편하게 카드 한장으로 발 냄새 제거, 벌레퇴치

21C 새로운 에너지
color neutralize wave(중화파장)
color dry wave(건조파장)
수맥방어, 혈압, 혈당, 체중조절

특명1 : 발 냄새를 잡아라
특명2 : 수맥파장을 잡아라
특명3 : 음식 유해성분을 잡아라
특명4 : 피부(아토피성) 당뇨, 고혈압을 잡아라
특명5 : 바퀴, 개미를 몰아내라



(발 냄새 제거 카드)
(곤충퇴치, 수맥방어)
의장등록: 30-2003-15116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환영(매일11시, 14시 사업설명) 주부사원, 공사직 퇴직자 환영 기본급 + 수당
약국, 미용실, 피부관리실, 24시 매점, 화장품코너, 지물포, 문방구, 식당, 카페, 호텔매점, 등 특약점 모집
공해로 긴장된 공기입자를 부드럽게.....
음식영양성분(입자)중금속 - 유해파장 중화, 수맥파장방어 띠벽지, 인테리어용품

● 위치 :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학원옆 수성빌딩 4층
지방은 전화를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특약점 및 사원모집 상담 02)924-5380, 924-5382

한글음파 대체의학 전수자 모집

한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책자 - "한글은 하늘소리 불치는 없다"
이름만 들어도 병을 검검할 수 있는.... 한글음파 대체의학, 한글음파 성명의학
혈당, 혈압조절, 탈모, 피부 아토피성, 환경개선



저자 황성현 직강
Color wave 개발자

아~ 내 이름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다니...
공개강좌 매일 오전 11시
제 3기 전수자 및 전국 지회 수련원장 모집

전수내용
한글기초에너지, 한글음파 성명의학
한글음파 대체의학, 한글 성명학
한글 자음과 모음을 연구한 이름소리의 비밀!!
● 위치 :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학원옆 수성빌딩 3층

전국 시도 총판모집 한글에너지 본사 상담 02)927-3372

한글에너지 대한운공연구회 www.smile77.wo.to 상담 02)927-3372~3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성지순례 15일 (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3월 특가 245만원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영축산,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 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카투만두 ▶출발일 : 3월 23일

인도 성지순례 10일 (불교8대성지) ▶출발일 : 3월 23일 3월 특가 183만원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항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항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정,만년사 등-성도) 85만원
▶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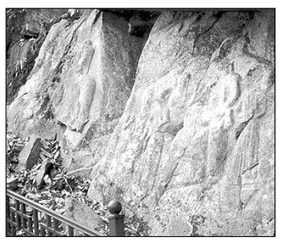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3월 9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일 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58만불의 딴보디사원,최대의 불탑유적과 종)-양곤(쉐다곤대탑, 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친견)-인천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3월 12일, 4월 10일
▶일 정 : 콜롬보-아누라다푸라-수령2500년보리수,고대불교유적-폴론나루와 불교유적-시기리아 고대왕궁-담불라동굴사원-캔디의 불치사 (부처님치사리) *밀림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숲의 나라 최고급 호텔,식사 등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3월 23일, 4월 20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험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벳일주11일(티벳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영국사 후불탱 등 보물로
10건은 지정 예고



'영국사 영산회후불탱'과 '중원 봉황리 마애불상군'이 각각 보물 제1397호와 제1401호로 지정되고, '수보살계법 · 범망경보살계본(受菩薩戒法 · 梵網經菩薩戒本) 합본',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48,64,83'이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영국사 영산회후불탱' 등 5건을 보물로 지정하고,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10건을 보물로 지정예고 한다고 3월 3일 밝혔다.

'영국사 영산회후불탱'은 17세기 이후 크게 유행한 군도형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불화다. 화기(畵記)에 조성연대와 제작자가 명확히 기록돼 있다.

'중원 봉황리 마애불상군'(사진)은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연결하는 특수한 역사적 · 지정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조성돼, 신라 불상조각의 흐름은 물론 고구려 불상의 경향까지 보여주는 마애불이다. **오유진 기자**

국제불교문화사상저널 3 · 4집
박노자 교수 등 논문 담아

국내 유일 국제불교학술지 <국제불교문화사상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3, 4집이 최근 나왔다.

전 세계에 4개뿐인 불교 전문학술지 가운데 하나인 <국제불교문화사상저널>은 3, 4집 모두 자유주제로 각각 9편, 8편의 논문을 담고 있다. 17편의 논문 가운데는 카렐 베르너(Karel Werner · 런던대), 댄 러써스(Dan Lusthaus · 미주리대), 임티야즈 유세프(Imtiyaz Yusuf · 태국 어섬션대), 프랭크 테데스코(Frank M. Tedesco · 플로리다대),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등 외국 대학의 교수 논문 5편도 포함돼 있다. **오유진 기자**

■ '죽음준비 교육 왜 실시해야 하나' 국제 세미나

행복한 죽음 위해 할 일은?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발표자들. 사진 왼쪽부터 오진탁, 고영철, 칼 베커, 김현수, 도쿠마루 사타코(得丸定子 · 일본 조에쓰교육대학), 고영섭 교수.

오진탁 교수 "죽을 각오 아닌 의미있는 삶 모색"
고영섭 교수 "죽음 맞이하는 순간 이해가 중요"

에로스(eros · 성性)와 타나토스(thanathos · 죽음)는 인류의 오랜 금기였다. 성은 근래 수십 년 사이 담론화 과정을 거쳐 금기의 틀을 벗어났으나, 죽음은 아직도 두려운 존재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국내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94명으로 세계 1위에 해당해, 우리 사회의 죽음이 결코 건강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건강한 죽음을 준비하며 건강한 삶을 계획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 이들은 죽음에 대비해 유서를 쓰고, 가치 있는 죽음을 위해 장기를 기증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생사학(生死學 · Thanatology) 연구와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월 28일 서울 YWCA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 죽음교육에 관한 국제 세미나 '죽음준비교육, 왜 실시해야 하는가?'도 이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오진탁(한림대 철학과) 교수와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도 생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세미나에서 '죽음, 성장의 마지막 단계'를 발표한 오 교수는 "죽음 앞의 인간은 4가지 평등과 7가지 차별을 겪는다"고 운을 뗐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어디서건 죽고 어떻게 죽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4가지가 평등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부인 · 분노 · 타협 · 우울 · 수용 · 두려움 · 희망이라는 7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 교수는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생사관이나 종교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크게 차이난다고 말한다. 오 교수는 "티베트에서는 죽음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죽음에 임박했다는 의사의 말에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라고 말하며 깊은 명상상태에서 죽음에 이른 한 티베트 수행자의 예를 들었다.

결국 죽음은 삶의 문제다. 오 교수는 "생사학이나 죽음 준비교육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준비를 통해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변모시키도록 도모하는 것"이라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교와 생사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고영섭 교수는 "죽음에 대해 역사, 철학적으로 불교만큼 관련이 깊은 종교나 학문은 없다"고 말한다. <티베트 사자의 서>, 윤회관 등을 통해 불교가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깊은 고찰을 해왔기 때문이다. 또 고 교수는 생사학을 불교가 현대적 학문과 접목했을 때 가장 연구 성과가 를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다.

고 교수는 "생사학은 철학적 고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락사 · 낙태 · 자살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과 마주치는 순간을 이해하는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며 그 의미를 밝혔다.

'밝은 죽음을 준비하는 포럼' 발족…대표 정진홍 교수

이날 세미나의 끝자락은 '밝은 죽음을 준비하는 포럼'의 발족식으로 장식됐다. 이 포럼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는 건강하고 밝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 정진홍(한림대 한림과학원) 교수를 대표로 선출했다.

'죽음 준비교육, 왜 실시해야 하는가?'라는 세미나도 밝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각 국의 죽음준비교육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칼 베커(Carl Becker · 일본 교토대학 종합인간학부), 고영철(러시아 국립사회대 한국학과) 교수가 각각 소개한 미국과 러시아는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미네소타, 애리조나 대학 등이 생사학에 관련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는 2001년 개원한 죽음요법학 연구원에서 죽음요법사를 길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삶과 죽음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아직 생소한 만큼 죽음교육도 몇몇 대학에서만 이뤄질 뿐이다. 이날 한국의 죽음교육 현황을 발표한 김현수(전주교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초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에서 생물이 죽는다는 내용이 기록된 곳은 단 하나에 불과했다.

한편 포럼을 준비한 이들은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종교적 단체가 되길 희망하다고 밝혔다. 밝은 죽음 준비는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 이후에 대해 답해주는 종교와 합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4>

근대성

우리에게 점점 더 친숙해지는 생명과학은 서양 중세의 신의 세계로부터 인간의 욕망을 해방시켰던 합리적 이성에 의거한 근대성(modemity)의 산물이다. 근대성은 '자립된 개인'이라는 개념과 '과학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지금의 물질문명을 이룩해 왔다.

하지만 신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이러한 이성적 근대성은 사물을 인간 위주로 바라보고 기계론에 바탕을 둔 유물론적 세계관에 따라 생명 현상을 일종의 기계작용으로 파악한다. 그렇기에 생명 현상은 단순히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회생물학자들의 관점이나 생명복제의 바닥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철저하게 근대적 사회의 산물이기도 하다.

효율화 · 생산성이 생태파괴 불러
유물론 극복하고 '연기질서' 알아야

하지만 근대 사회를 이루는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은 자연과 생태에 대한 억압으로 작용하여 환경 파괴를 불러왔고, 또 유물론적인 과학 문명은 오직 생산성과 효율로서 모든 것을 차별하고 지배하는 모습을 지니게 됐다. 따라서 생산성과 효율을 위해 표준화를 좋아하고 다양성 보다는 통일된 세계화(globalization)를 더 좋아한다. 이는 비록 근대화 과정으로 우리의 욕망은 채워졌지만 이제 우리는 근대성이 지닌 차별과 지배 구조를 지닌 문화 속에 살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근대를 이룬 한 축으로서의 과학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듯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기계론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대표적인 유물론적 사고체계이고 철저하게 근대성을 포함하고 있는 지배계급의 문화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성과 효율을 위해 근대화라는 이름 속에서 개발론자들로 인하여 희생되고 파괴되어 왔던 자연을 인간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인간을 단순한 기계로서 유물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해방시킬 새로운 이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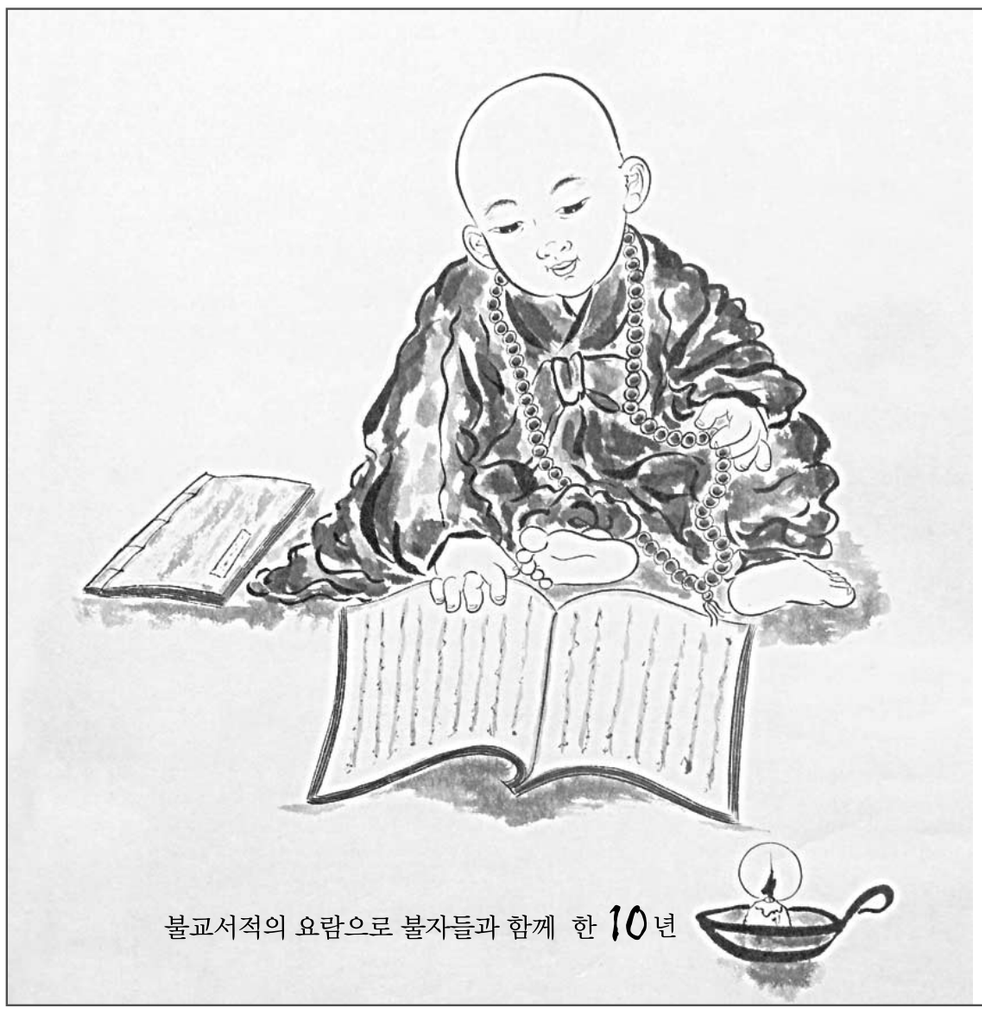
그러면 생산성과 효율을 바탕으로 한 물질적 풍요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채워줌으로서 전 세계를 정복한 서양의 근대가 지닌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대안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그동안 근대화에 앞장을 섰던 서양사회에서 동양사회 보다 더욱 뜨겁게 불교, 참선, 명상 등이 유행하는 것과 관련 있다. 진정한 불자라면 너도 나도 생산성과 효율을 외치면서 세계화 속에 뛰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신없이 휩쓸려 가기보다는 조용히 부처님 말씀을 통해 너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유정, 무정 모든 것이 연기적인 관계임을 말씀하셨다. 또 이 세상을 단순히 사대(四大)라는 물질만의 세계로 바라보는 유물론적 관점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도 말씀하셨다.

비록 지금은 인간 위주의 생각과 유물적 과학기술이 맹위를 떨치는 사회이기는 해도 이러한 근대가 지닌 한계에 대하여 불자들의 작은 깨어있음이 하나둘 모이게 되어 무르익으면 저절로 자연과 생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평이 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여시아문 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 3만여 불교서적의 검색 및 주문이 클릭 한번으로 뚝딱!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02-737-0695 Fax : 02-737-0696 <법공양 정성껏 상담합니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불교대학 가맹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주회(포교단) 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가맹점 캠퍼스 설치

▶봉직자 과정 – 원사, 원주, 교무, 종무 자격
▶포교사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묘포교관리사
▶법사과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지도법사

만대교학대학원 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예수재, 49재, 천도재, 회심곡, 화청, 바라, 나비무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65-5692

성불암 용산 합장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림

점안식,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다루는 법, 화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불 배우실 학인 모집 중

대광명사 탄우 합장

02)939-3327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입사 055-882-3455
016-428-6665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신비의 생명 소금 천기염

공해가 없는 소금은 神藥이다.

仁山 김일훈 선생 '神藥本草' 중
간수, 중금속, 다이옥신, 세균이 없으며 강한 양의 氣와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된

천연 생명소금

대표전화 02)858-6501

수행인, 수험생, 늘 피로하신 분에 권함

고급 보이차 전문점

1호선 2번출구
조계사 방향 100m
우정에쉐르 902호

Tel. 02)733-5204

茶道理

당신도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요일	오후반(14:00~)	저녁반(19:00~)
월	명리학	사암침술학
화	명리학	사암침술학
수	사암침술학	명리학
목	사암침술학	명리학
금	정통 풍수지리	매화역수
토	명리학	사암침술학
일	사암침술학	명리학

※ 저자 직강으로 책임지도. 중복 수강가능하며 교재무료.
※ 매화역수 개인지도가능.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호적수 안내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용왕재 등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진 올림
031)386-7133
019-394-7133(안양시 평촌)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명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착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삼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기타

▶ 주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 수강료 : 월 15만원(교재대금 포함)
▶ 수료후 청강은 무료. 개업, 부업 적극지원

한국명리교육원
02)336-8484

행자를 모십니다.

▶ 고졸이상
▶ 만 40세 이하

대학, 대학원 진학 책임 지원함

02)917-3363(정릉)

향토방 사찰

요양하실분환영

▷ 산수 수려함

경기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031)772-7296(종무소)
031)774-4750(주지스님)

탈모, 불치병

병원에서 효과없는분 상담
중풍, 신병, 당뇨, 비만, 신경, 관절, 디스크 정신병, 백혈병, 우울증

자연요법 상담 치유
053)322-6079

암·중풍 기적의치료

견성한 스님이 중국의 고대치료술인 포기회생술과 천도의식으로 말기암, 중풍 환자에게 새생명을 드립니다

무료상담환영
031)674-8880 청룡사
017-217-2219

불교전통의식, 천수바라무, 오공양작법 (승무, 살풀이춤, 요잡) 각종 행사해 드림

※ 소리 테이프 있음 ※

011-849-0961

천도재 구병시식 태아영가 49재 천도 영가천도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 태아영가 천도재 3月8日 봉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구성학(九星學)강의

「구성학의 기초, 구성학의 사주풀이」의 저자 직강

02)2655-1016
011-340-1472

사찰을 알립니다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아늑한 산속 기도도량입니다.

3년된 입체미륵 석불이 땅속에서 나투신 영험믿는 기도도량을 준비하는 관계로 이제서야 개방함을 알립니다.

조계종비구니스님으로 동국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법력10년이상된 엘리트스님 6분을 모십니다. 보시금은 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찰음식에 자신 있으신 공양주보살님 2분도 함께 모십니다. 보시금 100만원. 또한 삼사순례 주지스님께서는 미리연락주시면 점심공양을 무료로 드립니다. 공양인원은 2천명까지 가능합니다.

기도하실 처사님, 보살님께서는 통나무 하우스에서 무료숙식 가능하오니 누구라도 기도효험을 받아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주지 삼밀 합장

031-884-4383
010-3339-1995

찾아오시는길 : 영동고속도로 여주인터체인지에서 좌회전 → 장호원방면으로 8km가시어 전동면 소재지에서 미륵사를 찾으십시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전남 나주시

061)337-3440
061)337-9414

깊은산 천일기도 하실 비구스님 연락바랍니다

011-696-8500

기도스님(비구) 모십니다

▷ 경남 청원시내

011-879-2544

비구스님 모실분

▷ 인천, 서울, 일산지역의 암자또는 사찰

011-9783-6878

"불사에 도움주실 신심 돈독한 불자님 모심.
소승은 4대가 스님집안의 스님으로서 5살에 동진출가한 승입니다.
이제 진정한 불국토를 위해 전력을 쏟고져합니다.
평생 절집에 사시면서 불사에 도움을 주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소승의수행이력 : 선방15안거,미얀마의윗빠사나선원4년수행,선체조,선요가, 불가무술30년 수행.
※현직 중의 한의사이며 각종난치병치료경험이 17년입니다.
중풍,암,무릎관절염,오십견,디스크,각종신병등 어떤 병도 현장에서 환자가 바로 영험를 경험하게 합니다.
※35년의 기공수련으로 어떤 사람도 생년월일 없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히 예언함.
중풍, 암, 각종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불교수행자 분들께 무보시로 치료해드립니다.

도법합장 011-883-22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45~55세
▷ 포천시 송우리 지역

010-6284-9500

남자 행자모집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동해사

033)672-2900

비구니 기도스님 구합니다

▷ 연령 20~40세

051)804-1164
018-801-2586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도 광주

031)719-0408~9

속리산속에 자리한 공기좋고 조용한 황토로 만든 선문화명상센터입니다
명상에 관심 있고 건강한분을
공양주로 모십니다
보수와 혜택은 능력에 따라 정합니다.
연락처 054)535-0378
총무 보현경

유료노인전문요양원 '호암마을' 입소안내

치매 중풍 어르신을 가족처럼 모셔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천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Tel.02)385-8205
Fax.02)385-8207

탈종공고

●사찰명: 대성사 ●주지: 원무
●주소: 경남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함

2004년 3월 3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사찰명: 가피사 ●주지: 도광
●주소: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7-7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함

2004년 3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60대초반 나이로 술과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 독신남자로 사찰에서 차량운전과 사찰에서 처사로 할수있는 일을 저렴한 보시로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지방사찰도 좋습니다

031-826-1152
011-9753-4152

기도스님을 (비구스님) 모십니다

033)263-5904
011-370-5904

목당 易학연구원

작궁운통
(개인지도) 명합세변
☎ 969-3169 (청량리 우체국)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232 – 4755 , 019 – 446 – 4755

사주 개인 지도

특수비법 :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지도 : 대주 스님

☎ 02)962-0867 H·P 011-741-0867

운세(1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실력테스트 해보세요
www.speedunse@dreamwiz.com
핸드폰, 카드 결제됩니다

성 수 철 학 원 (학 인 모 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부동산 담보대출

편안하고 신속하게 대출하세요
- 부동산 감정가 60%이상 - 담보사채
- 일반대출 - 매매잔금 대출 - 건설 관련 자금

(주)한국금융상품개발 02)3437-8282

* 금액에 따라 연금리 3%~12%

자연치유 의학 연구센터
백초대체의학 수기연구소

"지장보살 원력입은"

※ 佛心의氣로
신비의 원력 함께 나누는 삶의 원력!!
※ 「당신도 건강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만성피로로 고생하시는 분
· 불면증, 우울증
· 생리통, 생리불순
· 늘 피곤하면서 의욕이 없는 분
· 허리, 목DISK로 고생하는 분 (초기디스크)
· 만성 변비, 요실금, 소화장애
· 좌골신경통, 중풍 예방관리
· 어린이 스트레스 특별관리

신비의氣

※ 수강상담
스님이나 불자님들 특별지도 함
법연거사 합장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예약 02-733-0550
상담 011-237-0550

계룡산 정통좌경 법사 수강생 모집

지도과목
■ 기초반 : 고장(장단), 중급반 : 경문, 청
■ 고급반 : 설경, 장구, 민요, 판소리 및 불가의식 등
■ 오전반 및 오후반 00명(3개월과정 월회비 30만원)

◎ 주최: 대한불교 법화종 선명사 055)287-5500
경남창원시 내동 456-16 공단상가 4층 FAX 055-286-6365
◎ 주관: 지산국악예술학당(창원수련장) 055)264-8269

육임(六壬)역학 강좌

풍부한 육임 고전과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한 성실하고 체계적인 강의!

특 징 1. 가장 오랜 역사 2. 풍부한 문헌자료와 검증된 정확성 3. 고도의 음양오행 예측 학문

육임명인 1. 강태공(주문왕) 2. 오자서(오왕) 3. 제갈공명(유비)

※지방에 계신 분은 「통신강의」 신청 받습니다.

고려육임학회 02)816-2115

생 활 불 자 정 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눈 관절

* 안구건조, 충혈, 피로, 눈꼽, 눈물
*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이상
* 당뇨 등 다른질병으로 시력저하
* 눈 수술전후, 눈의 모든 불편증세

10일 이내에 고통 끝! 행복 시작!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KIST KDAR03G-3K 식약청 2106909099



제조원 :
日本(주) MERCURY-MK

무릎, 허리, 어깨, 좌골 등 근육과 뼈마디 이상증세 골다공증, 각종 통증에 모방할수 없는 신속한 효과



눈밝은 세상 (02) 2237 – 8004 http://www.eye88.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당 : 40평(목)
- 요사 : 8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6억3천
- ※융자 및 아파트와 교환가능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350평
- 가액 : 1억8천

- 위치 : 충남천안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부지 : 267평
- 가액 : 8천5백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에서 2분거리 15m 도로접
- 빌라 2층 40평, 법당 25평, 방2, 주방
- 대작불사 관계로 인연있는 분을 모십니다
- 가액: 평당 300만원

051)512-0437
016-574-0437

사찰안내

- 위치: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법당 30평,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1억 3천만원

041)567-0392
011-723-664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 소백산 정화봉
- 종교용지 450평(풍수좋음)
- 법당 15평(불상 탱화 5점)
- 요사 40평(심야전기)
- 주차장 40평(주차 8대)
- 가액: 9천만원

011-9802-313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영
- 대지: 150평
- 법당: 12평
- 요사채: 25평
- 가액: 9천5백만원

016-652-7547

대사찰터 및 팬션 최적지

- 위치: 경기도(서울에서 40~50분거리)
- 평수 : 약 5만평
- 산세수려
- 가액 : 답사 후 절충

031)947-2055
017)362-0577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
- 부 지 : 1000평
- 법 당 : 35평(목조)
- 요 사 : 55평
- 가 액 : 8억 5천만원

- 위 치 : 도봉산
- 부 지 : 500평 임대
- 법 당 : 25평 목조
- 요 사 : 90평 급매
- 가 액 : 5억 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1-232-4082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남원
- 부지: 3천2백평
- 법당 요사 완비
- 특별조건: 납골탑(100기) 시설 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415-6831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청평 서울과 춘천 지하철 공사중 사찰과 700m 떨어진곳에서 4차선 준고속도로 공사중
- 산세수려하고 경치 좋음
- 대지 : 1860평(임야포함)
- 지장전 : 10평, 산신각 : 5평
- 평당 : 20만원

011-823-3562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 가액: 2억3천만원 (융자육천만포함)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소재
- 대지 : 120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용왕전, 미륵대불 요사채
- 특징 : 산새수려하고 기도도량으로 전시내가 한눈에 들어옴
- 가액 : 7천5백만원(절충가능)

011-9754-0482

사찰부지안내

- 성남시 분당 5km
- 대지 200평, 토목공사 완료
- 법당 45평 허가득
- 분당시범단지 전철역간, 마을버스 있음
- 가액 2억 5천만원

031)718-3114
011-9069-4455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내
- 부지 : 600평(국유지)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양도가 : 1억 2천만원
- 산세 및 주차시설 좋음

- 위치 : 서울시내 강북
- 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암 자 안 내

- 위치: 대구 달성군내
- 대지: 258㎡
- 건물 2동 청정하고 깊은 산속 초가상간 암자
- 전기 없음
- 가액: 상담 후 결정

053)611-9875~6
017-208-5555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용왕단
- 가액 : 3억 1천만원 (융자 4천포함)

011-785-5670

토굴 별장 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1평,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55평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에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직접 살고 관리해옴
- 가액: 5억3천만원(대출가능)

016-367-2112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죽장 하옥
- 경내에 300~400년 묵은 고목나무와 앞에는 깨끗한 냇물이 잘어울림
- 대지 205평, 통나무 요사 35평
- 절 10평, 전 500평 대지붙어 있음, 신축건물
- 가액 1억 5천만원

054)262-6673
011-9302-0343

도심속 최고 사찰 급 안내

- 위치 : 전주시 전주역 전북대병원 전북대부근
-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대지 8×6미터 코너절 116평 건평 120평 대웅전 21평
- 후불순금탱화조성입체 120평 신중순금탱화조성입체 50평 칠성순금탱화조성입체 50평
- 부처님순금 4자반 삼신불 부처님 법단 3단 홍송조각 연꽃 16자
- 자신있게 갖춘도량 매매금 총 4억8천중 준비금 2억 7천이며 개인사찰 등기 완료 좋은조건
- 매월 일백만원나옴 비구니스님 비구스님 최고도량
- 절앞 4월초파일행사등 90% 자세한 이야기는 답사후 의논 주인직거래

010-3166-8483 ※ 가능성 없는 전화사절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주양남
- 대 지 : 10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20평
- 가 액 : 8천5백
- ※바닷가 포구마을

- 위 치 : 밀양 입구
- 대 지 : 30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9천5백
- ※도심지 포교암자

- 위 치 : 지리산 절터
- 부 지 : 9천평
- 칠선계곡부근 폐사지
- 천왕봉 정남안대
- 가 액 : 3억5천
- ※홈페이지 사진참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부지안내

- 위치: 성남시 분당 5km
- 대지 200평, 토목공사 완료
- 법당 45평 허가득
- 분당시범단지 전철역간, 마을버스 있음
- 가액: 2억 5천만원

031)718-3114
011-9069-4455

모텔 "쉬어가는 누각" 해외 이주 관계로 매매 원합니다.

- 지리산 자락 화개장터 쌍계사 부근에 위치한 "쉬어가는 누각"은 4계절 영업하는 아름다운 계곡 화개천변에 있습니다.
- 쌍계사, 칠불사, 보리암, 화엄사, 송광사가 5분 ~ 1시간 거리에 있으며 녹차향이 가득한 맑고 향기로운 예쁜집 입니다.



- 사찰의 복지시설이나 신행단체의 수련회장소로도 적합합니다.
- 신행회 모임이나 가족여행 예약 받습니다.
- 화개 자연산 녹차(관아 수제차) 생산 판매 합니다.

주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822
전화 : 055)884-0151~2

사찰안내

- 위치 : 천안 논산 고속도로 탄천 IC 10분거리
- 부지 : 1800(대지478평)
- 법당 : 25평(관세음보살, 지장보살,아미타불)
- 황토방 : 32평 ● 산수수려함
- 가액 : 3억원

041)855-1802
011)9643-7897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20분거리
- 대지 임야 포함 611평 건물 법당 27평, 신신각 2.7평, 요사채 17.9평, 창고 3동
- 특징: 기도영험도량 특히 아기임신 2~3년생 과일나무, 오가피, 산초, 감 등 17종류 260두
- 절마당까지 차량진입
- 타지역 이사관계로 처분
- 가액: 7800만원

011-522-9391

사 찰 안 내

- 위치: 소사역에서 10분거리
- 대지: 65평
- 1층 유아원(40평 허가 취득)
- 2층 법당(약 30평) 대로변 위치
- 가액: 총 4억(은행융자 9천만원)

032)348-2445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상계동 당고개역 인접
- 가액: 2천3백만원(절충가능) 1천만원(50만원) 3천만원(30만원)
- 유동인구 많은 시장입구

011-323-5804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대청호 유원지 접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 130평, 건평 126평 (심야전기2기)
- 법당 : 20평, 방11개
- 가액 : 1억 4천오백만원 (주택은행 융자 6천 7백포함)

042-822-3686
018-232-3820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 10km
- 대지: 150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 산신각 5평, 요사채 28평
- 시설 완벽하게 갖췄음
- 가액: 1억3천만원(답사후절충)

043)733-8186
011-9405-818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 대지 : 250평 등기, 임야 100평
- 건물 : 법당 25평, 요사채 스라브 30평, 스라브 20평(등기필), 산신각, 용왕당(천연약수)
- 사찰까지 차량진입가능, 정남향으로 사찰뒤 고목으로 산세수려함 (마을 어귀에 있음)
- 몸만 오시면되며, 저렴한 가격으로 보시하고저 함
- 가액 : 1억3천3백만원(은행 2천 2백)

011-9017-5445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마산 근교
- 대지 : 1천5백평
- 법당: 2층 20평
- 요사: 3동(1층 50평 창고 20평 공양간 20평 화장실 7평)
- 특징: 임수 배산의 명당자리
- 가액: 1억5천5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1759-3368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 밭 250평, 대지 150평, 임법당 1동, 요사채 2동
- 가액 :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시설완비 즉시법회 가능 비구니스님에게 적합한곳

011-9554-5674

토굴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춘양면 백두대간
- 상태: 블럭조 14평, 방 3개 기름보일러(전기. 전화 유)
- 전1991평 (불사가능 터로 터 정리됨)
- 가액 5800만원

054)672-7619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438-7번지 (용인마트 옆) 대로변 옆 용인마트 옆 건물 최요적지
- 평수 42평(방3개, 거실, 법당)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200만원(시설완벽)
- 스님 건강상 급하게 양도

031)336-9149
011-482-9149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안동시 일월산
- 흙집 공기좋고 물맑음
- 쉬면서 정진할 수 있는 곳

063)352-288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대지 종교용지 400평
- 법당 30평
- 요사 30평
- 산신각, 용왕각
- 가액: 1억3천만원

017-845-9530

사찰인수하실분

- 위치: 창원역에서 5분거리 4층건물에 4층
- 평수 : 30평, 시설완비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 (상담 후 결정)

011-9527-6480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운장사 법당
- 보증금 1000만원 월10만원

033)766-0057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식물원 입구
- 평수 : 40평, 방2개,
- 주방, 화장실
- 전세 :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598-8673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 대지 58평 건평 60평 (현대식 주택 개조)
- 1층 요사채 2층 법당 내부깨끗하고 주위경관 아늑함 대단지 아파트 옆
- 사정상(공부하러감)매매
- 가액: 2억원

011-858-9450

사찰 터 최적지

- 위치 : 국도 7호선과 위덕대학교(진각종) 캠퍼스 사이에 위치
-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43번지)
- 자연 녹지 9,000평
- 가액 : 평당 10만원(절충 가능)

011)9366-0210

토굴임대

- 자격: 조계종 비구니스님
- 위치: 순천에서 15분
- 대지 180평, 건평 30평,
- 임법당, 방3개, 식당
- 모든시설완비
- 가액: 상의

018-502-7889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영중면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창고 10평, 요사 30평
- 가액: 5500만원 보증금 700만원에 월 35만원도 가능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019-335-0821

사찰 안내

- 위치: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시설완비 (상담 후 결정)

031)826-0376

포교당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평수 : 30평
- 큰방2, 주방1개, 독채
- 가액 : 보증금 1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없음
- 역학 할 줄 아시는분 유리

055)386-2376
017-563-460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가 최고요지
- 평수 : 50평
- 가액 : 7천만원(시설비포함) 월 50만원
- 특징 : 50평 전체 국내최초로 게르늄과 맥반석 온돌방으로 이루어져 원적외선의 기를 받을 수 있음

051)248-2477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동래 롯데백화점에서 500m
- 평수: 54평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25만원

051)552-7828

사찰안내

- 위치: 충남 공주 탄천면 국동리
- 부지: 1800평 대지: 478평 ● 황토방: 32평
- 법당: 25평(관세음보살, 지장불, 아미타불)
- 특징: 산수 수려함, 천안-논산고속도로 탄천 IC 10분거리
- 가액: 3억원

041)855-1802
011-9643-7897

시장통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강삼동
- 평수: 3층 건물중 2층 34평
- 삼존불(미타불, 관음, 지장보살)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인등 1,000개
- 가액: 보증금 천만원, 월 23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53)527-0357
011-327-5863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 시내
- 평수 : 60평
- 방2개, 주방, 종무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600만원
- 대중교통 원활. 주차장 완비
- 서울에서 30분, 성남에서 15분 거리

011)517-8415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9억원 (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사찰 안내

- 위치 : 나주에서 5~10분거리
- 대지 : 395평, 법당 : 25평
- 요사채 : 45평
- 방5개, 주방, 목욕탕, 화장실 밖에도 화장실 있음
- 가액 : 8천만원(절충가능)
- 주차장완비

061)337-3357
016-9578-335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일산신도시 주엽전철역 150m 대로변 앞뒤로 아파트 단지
- 평수: 23평, 법당, 방1, 시설A급
- 3층건물에 3층
- 철학관으로도 적합
-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천7백만원

031)919-0306
019-687-0306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납리
- 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억원

031)855-1802
011-9643-7897

사찰부지안내

- 위치: 서산시 해미 IC 5분거리
- 부지: 1천6백평중 6백평 허가득 토목공사 완료, 조경 완료
- 특징: 가야산 좌청룡 우백호 터에 산세수려
- 수도권 전체로 학교버스 운행되어 신도분들 언제나 차없이도 왕복가능
- 가까운 거리에 덕산 온천 소재
- 가액: 평당 14만원

017-341-9967
017-341-6969

일 주 문



도제 · 선학원장학금 수여식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은 3월 10일 오후 2시 종로구 중앙선원 대법당에서 총 19명을 대상으로 도제장학금 및 제6차 선학원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한다.



12일 상임위원회의 개최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성광 스님은 3월 12일 서울 종로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시 우수 복지관 선정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 선재 스님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2003년도 서울시 복지관 운영 평가결과, 프로그램 우수 복지관으로 선정됐다.



포교사단 창립 4주년 기념법회
조계종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3월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02)737-758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에
서울대 박세일 교수(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상임고문)는 2월 26일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도피안사서 3·1절 기념 특강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이각범 교수가 3월 1일 3·1절 85주년을 기념해 안성 도피안사에서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현실을 살아가기' 주제로 특강을 했다.



민예총 신임회장으로
소설가 황석영 씨가 2월 27일 열린 2004년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분당 야탑고 교감에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경인지부 임창홍 지부장이 3월 1일자로 경기도 소재 분당 야탑고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했다.



조계사 제17대 신도회장에 재선
서울 조계사 신도회 이연숙 회장은 2월 25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열린 제16대 신도회 결산총회에서 17대 신도회장으로 재선출됐다.



'불자를 위한 논어 강의'
도서출판 민족사 윤창화 대표는 3월 10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건국1호빌딩 407호에서 '불자를 위한 논어 강의'를 진행한다. (02)732-3039



"일산병원 내년 3월 1일 반드시 개원"

취임 1년 맞은 홍기삼 東國大 총장

동국대 홍기삼 총장(사진)은 3월 4일 "일산 불교병원은 내년 3월 1일 개원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취임 1주년(3월 2일)을 맞아 이날 불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 총장은 "산술적으로는 벅찬 감도 있지만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최대한 맞춰보도록 밀어붙여 보겠다"고 말했다.

—약속했던 일산 불교병원 개원이 이제 꼭 1년 남았다.

"정관 개정안이 이사회를 통과(2월 28일)된 뒤 3월 1일자로 배성한 의과대학장을 개원추진단장에 임명했다. 의료진 구성, 장비 구입, 인·허가 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개원은 예정대로 한다. 2008년께면 일산지역 인구가 35~40만으로 늘어나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고민은 '특성화'다.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의료진을 초빙하고 몇 개 진료과목을 특화시켜 '전국구 병원'으로 키우겠다."

—불교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재단이 가질 수도 있다고 해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사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이었다."

—취업 문제 등 불교학부 위기가 심각하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할 것 같다. 교수인력을 증강하고 조금씩이나마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법, 응용학문 몇 가지를 커리큘럼에 넣어 사회활동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불교문화연구원이 불교학 연구의 중심 센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불문연도 변화가 필요하다. 고려대의 민족문화연구소나 성균관대의 대동문화연구소는 출판 서적만 갖고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규모와 연구와 연구 인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계 지원이 꼭 필요하다. 두드러진 학자를 양성하려면 탁월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홍 총장은 '불교(계)'가 학교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건학이념인 불교를 세계관적 토대로 삼아 학문적 가공이 가능할 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글·사진=권형진 기자

東大 불교대학원 불교경영자 최고위 과정

VIP 대거 등록 "굉장하네"

김수환 추기경·강원룡·조용기 목사 강사로

"평소 불교계에는 왜 인물이 없는가 한탄을 많이 했는데 동창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월 3일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보광)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오리엔테이션에서 서울 동대문 의류쇼핑타운 '프레야타운' 배관성 사장이 밝힌 감탄사다. 올해 처음 개설된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에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저명인사들이 대거 등록(41명),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손현수 대현그룹 회장을 비롯해 류주형 동국대 총동창회장, 정인악 (주)남양사 대표이사, 윤천수 불교아카데미 이사장, 권영기 국방대 총장, 최평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윤청하 제6대 저작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진광 전 서울지검장, 정지천 동국대 강남한방병원장 등 이름만 대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동국대에 덕암세미나실을 만든 구자선 동국대 총동창회 부회장, 불이회를 만들고 불이상을 제정한 윤근향씨, 한국공무원불자회 창립의 산파 역할을 한 안홍부 감사원 과장, 김재일 동산반야회장도 신입생 명단에 보인다. 종상(불국사 주지) 법타(은해사 주지) 성광(화계사 주지) 성운(삼천사 주지) 원택(파라미타 이사장) 혜자(도선사 주지) 스님 등 10명의 스님도 다시 학생이 됐다.

교수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지관 스님,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해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 등이 강의를 맡는다. 또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과 오태순 신부, 개신교의 강원룡, 조용기 목사 등 범종교계 인사들과 서병문 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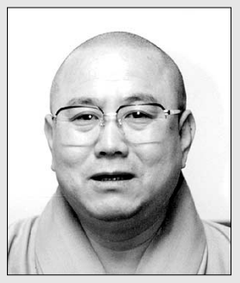
권형진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1기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오리엔테이션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통일법당 개원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



"지역 불교 활동 거점으로 운영"

"창립 12년 만에 자체 사무실과 법당을 가지게 돼 기쁩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통일교육과 신심제고 터전 마련에 도움을 준 사부대중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3월 3일 서울 성북동 179-74번지에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 창립 12돌 기념 및 통일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한 법타 스님(사진)은 개원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통일법당을 지역 불교활동의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 토론회나 강연회를 마련해 통일교육의 요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통일법당은 연건평 80평 2층 건물로 일반 가옥을 개조한 것이다. (02)741-9345~6 남동우 기자

천안에 사랑의 무료급식소 개원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의장 법혜)는 최근 천안시 사직동 린나이 빌딩2층에서 '사랑의 무료 급식소' 개원식을 가졌다. 천안 업성동 중앙교회 현광희 목사, 천안불교문화원 천경 스님, 원불교 고진여 교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개원식에서 법혜 스님은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극빈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급식소 개원을 계기로 앞으로 매일 15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11-457-0815

인사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동국학원 사무처장 남준
서울캠퍼스 △불교병원개원추진단장 배성한 △연구처장 박종훈 △총무처장 정창현 △정보관리실장 이종옥 △영상정보통신대학원 미디어아트센터장 김정환
경주 캠퍼스 △관광대학장 하헌국 △의과대학장 심재철 △기획처장 김용택 △연구교류실장 김홍회 △사회문화교육원장 임태평

쌀에 반야심경 새긴 기인

김대환 씨 별세



'세서미각(細書微刻)'의 달인 김대환 씨(사진)가 3월 1일 급성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故 김대환 씨는 0.2mm의 조각칼로 쌀 한 톨에 〈반야신경〉 283자를 새겨 1990년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한상희 기자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운명적 영혼적 현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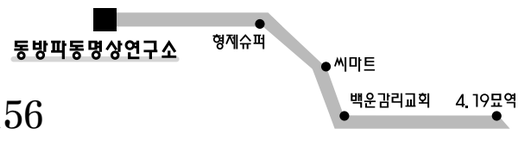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저자 법운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활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
(다수의 영통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 서울연구소 약도



강북구 수유동
☎ 02)996-6156

「파동명상 요법」을 수련하게 되면...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또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운명을 읽어낸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본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말을 듣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직접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시대***이다. 현생의 삶은 자신의 전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속에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볼 수만 있다면 미래의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해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파동명상요법을 통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운명적 사건과 영혼적 사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 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3월 둘째주, 넷째주 (화 ~ 금) ◈ **강의장소 :** 서울, 부산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4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불자 세상보기

황 평 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보물창고' 청계천

요즘 청계천 복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필자가 처음으로 청계천과 인연을 맺은 것은 사업에 실패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서울로 향했던 32년 전의 일이다. 어머니는 새벽에 청계천으로 일을 나가셨고 필자는 어머니로부터 '전태일' 소식 등 청계천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며 세상의 궁금증을 풀기도 했다. 우리 3남매는 청계천주변에서 거두어들인 어머니의 잉여생산물로 성장했으니 가히 청계천은 필자가 성장한 거름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서울시의 부탁으로 청계천 시민투어 안내를 20여회 진행했다. 두 시간정도 어둡고 암모니아냄새 가득한 지하에서 광통교와 수표교 터를 확인한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생태적, 구조적으로 청계천복원에 찬성을 보내지만 심도 깊은 장기계획 없는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에는 걱정이 많았다.

일제 초(1910년대)까지 개천(開川)으로 불렸던 청계천에는 조선 최초의 석교인 광통교 등 20여개의 다리가 세워졌다. 도성 86개의 다리 중 20여개가 개천에 있었으니 개천의 중요도를 알 수 있다. 조선 때는 도성문화의 중심지로 답교놀이, 편싸움, 연등행사, 연날리기 등이 행해졌고, 서민과 거지들의 생활터전이었던 청계천을 단지 더럽다는 이유로 박 정권은 44년 전 환경에 대한 고민 없이 청계천을 복개했다. 우리나라 행정이 5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복원을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랜 세월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을 시장 임기가 만료되는 2년 6개월만에 복원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새만금이나 시화호 같은 사례를 다시 낳을까 우려된다.

현재 청계천에서는 역사를 증명하는 조선시대 석재와 유구가 발굴되고 있다. 청계천 퇴적물은 600여년 인간의 희로애락을 간직한 문화인류학적 보고이기에 당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묻혀진 역사를 찾아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 복원을 2년 6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서울시의 의도에 대해 이를 차기 대선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 곳곳에 걸려있는 '역사와 문화복원-청계천 복원사업' 현수막과는 달리 역사문화복원이라는 허위의 논리로 가득 찬 정치경제적 세력들의 자기 살기식 청계천 복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청계천 복원이 개인의 이익, 선거에 이용되는 것은 곤란하다. 서울시는 철거와 가계의 의견 수렴, 역사 문화 복원 원칙 수립을 충실히 하고, 차기 시장에게 복원을 맡겨야 한다.

사실 필자는 청계천 복원과 함께 일제 강점기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서울 도성도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도성을 따라가면 문화예술의 거리 낙산(대학로)과 옛 난전이 세계적 시장으로 변모한 이현(동대문 시장), 생활문화 · 체육공간인 장충 체육관 · 장충단 공원 · 국립극장이 있다. 그 옆으로 돌아가면 남산과 칠패(남대문 시장), 근 · 현대 역사 현장인 정동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존재하는 도성의 흔적을 느낌으로나마 복원하고, 지역의 장점을 특화하면 거대도시 서울은 600년 고도의 명분을 되찾을 수 있다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청계천 복원, 긴 호흡으로 진행하자. 청계천 복원은 생태학적, 환경적, 구조 · 안전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서울의 역사와 문화유산 복원 · 활용을 염두에 두면서 600년 도시 형성의 맥락과 연계된 긴 호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문화재청이 차관급 기구로 격상되었다. 1945년 11월 이왕직으로부터 인수 받아 '구황실사무청'으로 발족한 문화재청은 벌써 60년의 역사에 접어들고 있다. 1961년에는 '문화재관리국'으로 이름이 바뀐 뒤 여러 차례 개편과 신설을 통해 1999년 5월에 1급 기구인 문화재청으로 승격되고, 드디어 2004년 3월 2일 차관급청이 된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는 장관급의 기구로 올라설 것이 분명하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문화재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의 역사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차관급청에 안착한 문화재청은 머지않아 그에 걸맞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의 연혁을 보면, 시대 요구에 부응하여 조직과 기능이 점차 세분되는 추세이다. 1983년 재산관리과 · 궁원관리과 · 문화재보수과로 시작된 조직은 현재 3국 12과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불교문화재과 신설 안 되나?

앞으로 조직개편 시 불교계에서 바라는 것은 '불교문화재과'의 신설이다. 불교문화재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60%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가치는 수량으로 측량할 길이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재를 사찰에 의존하여 관리한다면, 그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불교문화재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바로 문화재청이 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 지금도 궁궐을 관리하는 궁원문화재과가 있다. 문화재청이 애초에 이왕직에서 시작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과의 존재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교문화재의 비중과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궁궐 문화재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 불교문화재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만일 불교문화재과라는 명칭이 종교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면, '종교문화재과'라는 명칭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정병모(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가난 예찬

흰 구름 사느라 맑은 바람 다 팔았더니
온 집안이 텅 비어 뼈 속까지 가난일세.
머물던 곳 한 칸 띠풀집이여,
지금은 떠나가야 할 때
꺼지지 않는 불길 속 그대에게 맡기네.
(석옥 스님의 열반게)

중국 원나라의 석옥 선사가 원적을 앞두고 고려의 제자 백운 화상에게 편지글로 남긴 열반게다. 맑은 바람을 팔아 흰 구름을 사고 흰 구름을 팔아 맑은 바람을 사는 '거래'는 어떤 것일까? 인간 세상의 번잡스러운 인연을 초탈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거래일 것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 입으로 어려운 경제를 걱정하고 몸으로 위축된 시장경제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 공황까지 느껴지는 그런 불황이다. 이런 시절에도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이전투구는 그치지 않고 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한 돈'을 둘러싼 잡음도 그 양상과 강도를 확대해 갈 것이다.

서민들 살림살이의 가난은 대책이 없고, 위정자들은 '말로만' 가난한 현실. 이 땅에서 오직 국가번영과 민생만 생각하는 정치인, 건강한 기업정신을 가진 경영인, 양심적인 상도를 지닌 상인,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 공무원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어리석은 짓인가?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그들은 이웃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맑은 바람을 팔아 흰 구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참 모습을 바르게 깨우쳐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여, 이 세상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길 속'이다.

■임연태 (편집부장)

이렇게 생각한다

조계종 제162회 중앙종회에 드리는 글

신도회 통합관련 법개정 꼭 돼야
각종 재가단체 활동에도 관심을…

스님, 꽃샘추위가 제법입니다. 한국불교와 종단의 앞날을 숙의하는 중앙종회가 이 봄에 열린다니 남다른 기대와 희망을 품어봅니다. 특히 전국신도회와의 통합을 눈앞에 둔 중앙신도회가 비로소 온전한 모습으로 불자와 세상을 향하여 포부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실무일선에서 일하는 저로서도 기대감과 사명감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두 신도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통합할 신도회의 명칭 문제입니다. 지난해 3월 20일 두 단체 회장단은 총무원장 스님의 증명 하에 통합을 합의하면서 "통합 신도회의 명칭을 전국신도회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신도회는 종헌기구로서 종헌 제112조 2항에는 "중앙에는 총무원장 관할하에 중앙신도회를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에 따라 전국신도회로 개정하든가 아니면 현 종헌에 따라 중앙신도회로 결정하든가 하는 가부의 판단을 이번 중앙종회에서 내려주셔야 신도회 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단체 임원들이 참가하는 신도회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중앙종회의 판단에 따르되, 신도관련 법등 개정할 사항들은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논의된 바 있습니다.

사실 신도회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불교 신도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신도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신도대중에게 통합신도회는 희망과 발전을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종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4월 통합대회를 거쳐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신도회도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스님,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700년 한국불교를 기념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의 1차 불사가 마무리되어 성역화불사모연위원회에 참가한 저로서도 기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 구석은 쓸쓸하기만 합니다. 기념관과 성역화 불사의 그 어느 언저리에도 재가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턱없는 박봉에도 불구하고 포교일선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불교활동가들에게 사무실 임대료 걱정을 덜어주실 수는 없나요?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며칠 있으면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또 짐을 싸야 합니다. 새 학기 포교에 전념해야 할 때, 그들은 또다시 여기저기로 사무실을 구하러 다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등 단체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개신교는 도시산업선교회다, 기독교농민회다 하며 민주화 · 민중운동의 울타리가 되어 오늘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절대신을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조계종 어디에서도 그런 포용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승가가 사부대중으로 이뤄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조계종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참여의 리더십, 쌍방향 의사소통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단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계종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근(조계종 중앙신도회 총무부장)

'현대' 만평 심 민 섭



덤으로 있는 윤달 '自利利他'로

한글에너지 전문점 및 사원모집

한글에너지를 만난 당신은 건강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 차원 높게 생각하면 살충제, 중금속 등 유해성분과 공해로 인한 유해공간에서 간단하게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등산 낚시 등 야외, 가정에서 영원히 휴대해야 할 현대인의 필수품, 가정에서 살충제 해방!! 간편하게 카드 한장으로 발 냄새 제거, 벌레퇴치

21C 새로운 에너지
color neutralize wave(중화파장)
color dry wave(건조파장)
수맥방어, 혈압, 혈당, 체중조절

특명1 : 발 냄새를 잡아라
특명2 : 수맥파장을 잡아라
특명3 : 음식 유해성분을 잡아라
특명4 : 피부(아토피성) 당뇨, 고혈압을 잡아라
특명5 : 바퀴, 개미를 몰아내라



(발 냄새 제거 카드)
(곤충퇴치, 수맥방어)
의장등록: 30-2003-15116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환영(매일11시, 14시 사업설명) 주부사원, 공사직 퇴직자 환영 기본급 + 수당

약국, 미용실, 피부관리실, 24시 매점, 화장품코너, 지물포, 문방구, 식당, 카페, 호텔매점, 등 특약점 모집
공해로 긴장된 공기입자를 부드럽게.....
음식영양성분(입자)중금속 - 유해파장 중화, 수맥파장방어 띠벽지, 인테리어용품

● 위치 :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학원옆 수성빌딩 4층
지방은 전화를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특약점 및 사원모집 상담 02)924-5380, 924-5382

한글음파 대체의학 전수자 모집

한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책자 - "한글은 하늘소리 불치는 없다"
이름만 들어도 병을 검검할 수 있는.... 한글음파 대체의학, 한글음파 성명의학
혈당, 혈압조절, 탈모, 피부 아토피성, 환경개선



저자 황성현 직강
Color wave 개발자

아~ 내 이름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다니...

공개강좌 매일 오전 11시
제 3기 전수자 및 전국 지회 수련원장 모집

전수내용
한글기초에너지, 한글음파 성명의학
한글음파 대체의학, 한글 성명학
한를 자음과 모음을 연구한 이름소리의 비밀!!

● 위치 :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학원옆 수성빌딩 3층

전국 시도 총판모집 한글에너지 본사 상담 02)927-3372

한글에너지 대한운공연구회 www.smile77.wo.to 상담 02)927-3372~3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십시요.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2201-2333

화제의 신발

윤달이 낀 갑신년

윤달이 낀 갑신년은 지금으로 부터 120년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든 해로 정변의 기운이 넘치는 해다. 120년만에 찾아온 윤달이 낀 갑신년은 역학적으로 金의해라 하고 정치적으로는 격동기를 맞을것이며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혼란스러우나 경제는 서방의 氣와 金이 동방으로 몰려오므로 대단히 좋아질 것이다.
또한 윤달이 낀 갑신년은 없는자의 지갑은 채워진다하여 지갑과 신발을 바꾸면 부자가 되고 건강장수하며 부처님 공양구를 집안에 들이면 삼재를 물리치고 만사형통한다 했다.



남여공용 성불화





성불화 룸비니 신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120년 만에 찾아온 윤달이 낀 갑신년 金의 해!
윤달이 낀 갑신년에 신발을 선물하면 건강장수합니다.

룸비니는 석가모니 부처님 고향이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 룸비니를 신는순간 누구나 이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최첨단 신발과학의 명품으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 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두원 K씨는 광고를 믿지 않지만 어머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활동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신발이라도 가볍고 편안한 신발을 사드리려고 하던중 성불화룸비니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는 셈치고 구입해 드린것이 지금은 1Km이상 가볍게 걸을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서초구에 사는 P여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쩌할까 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가볍고 편안한 최고급 신발로 평가 받고 있으며 여의도에 사는 개신도 권사도 절에 다니는 친구가 신은 것을 보고 너무 좋다 종교를 떠나 사신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과학적인 설계 개발기간 2년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전문성 신발메카인 (주)스타필드 신발공학센타에서 2년의 연구기간과 수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 만든 성불화룸비니가 출시 1년만에 국내시장을 석권하며 젊은층은 물론 골퍼들까지도 필드에서 감탄과 찬사를 하고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기죽 뉴벅 사용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대단히 가볍고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룸비니 신발은 최첨단 신소재와 20만원대 신발에만 사용하는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했으며 밑창은 골프화 같이 초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하여 접지력과 마도력을 강화했고 눈, 비올때에 디끄럼 방지기능이 탁월하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산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발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성을 갖추었다. 디자인면에서는 평상복 또는 케주얼복에도 잘어울리게 제작했으며 불자님들의 사찰불공시, 또는 성지순례와 해외여행, 등산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신발이다.

소원성취 연꽃과 화를 쫓는 금강저 넣어
성불화룸비니는 신는순간 부터 소원이 성취되게 부처님 꽃이며 소원성취 꽃인 연꽃과 길 떠날때에 화를 쫓고 악귀를 물리 친다는 금강저 까지 넣어 자신감을 갖게한 것이 돋보인다. 120년만에 맞는 윤달이 낀 갑신년은 건강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해다. 역학적으로 서방의 기가 동방으로 쏠리면서 전염병과 풍토병 또는 괴질이 만연하여 특히 노약자들은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윤달이 낀 갑신년으로 생신 또는 회갑을 맞을때 건강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신발을 선물하는 풍습이 지금도 있다. 성불화룸비니는 남여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 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준다. 가격88,000원
문의전화 080-755-0003
농협944-12-417900 고덕림

갑신년 스님께 선물은 만행화

신발보시로 무명업장을 녹이고 좋은 과보 받는 갑신년!



스님을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다. 눈을 돌려 절 주변에 관심을 갖고 보면 너무나 어려운 스님, 노후에 거처가 편치 않는 스님, 병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스님 등, 가슴 아픈 분들이 절 주변에는 많이 있다. 영하의 추운 산속에서 정정고무신 하나로 겨울을 보내는 스님께서 동상이 걸려 고통 받는 스님도 계시고 그것이 고행이라 생각하고 수행하는 스님도 있다. 불자라면 꼭 자기가 모시는 스님이 아니라도 깨끗한 보시 한다면 전생에 지은 무명업장을 녹이고 오는 생에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다. "복중에 지입기는 복이 인연복"이라 했다. "작은 불씨라도 마음을 열면 무량대복"된다고 했다. 120년만이 찾아온 윤달이 낀 갑신년에 스님전용 신발인 만행화를 보시 한다면 무명업장을 녹이고 무량대복을 받을 것이며 스님께는 건강장수하여 원대한 포교 원력을 가지고 중생구제에 힘쓸 것이다. 스님전용 신발 만행화 룸비니는 (주)룸비니에서 스님의 승복 색상에 맞춰 품위있게 제작된 최고급 신발로 다단히 가볍고 편하며 장시간 만행여도 피곤함을 극소화 시킨 신발과학의 결정체라고 회사 관계자는 자부한다.
만행화신발은 스님의 건강을 위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이 강력하게 발산되며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 93%의 원적외선을 발산시키고 추운겨울에는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땀을 배출하는 기능과 눈비올때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탁월하게 제작된 최고급 기능성 신발이다.
가격88,000원
보시 또는 문의전화 : 080-755-0003
농협944-12-417900 고덕림

부처님 福지갑

東西南北의 福을 모으는 靈驗!


남여공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 케이스에 담겨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신분은 꼭 사용하세요.

영험의 룸비니 福지갑

120년 만에 맞는 갑신년 金의 해. 룸비니 福지갑으로 부자되세요

갑신년 선물로 최고!
생일선물! 개업선물! 이사선물! 결혼선물!
합격선물! 승진선물! 취업선물! 사랑의 선물!

왜! 윤달이 낀 갑신년에 지갑을 바꿔야 하는가?

120년만에 온 윤달이 낀 갑신년은 격동의해로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역학적으로 윤달이 낀 해는 언제든지 누구나 삼재를 맞는 것과 같은 해로 환란을 소멸 하고자 윤달이 낀 해에 따라, 부모님의 수의를 장만하면 좋은 해가 있고, 가구를 바꾸면 좋은 해와, 적색내의를 입으면 좋은 해, 등 해에 따라 다르며 2004년 갑신년은 120년전 갑신년과 같이 서방의 氣와 金이 동방으로 몰리면서 지갑과 신발을 바꾸면 좋은해 입니다. 특히 윤달이 낀 갑신년에는 돈이 집을 떠나 방황하는 해라 하여 金의 해라하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지갑으로 바꾸면 방황하는 돈이 새지갑으로 들어오는 해로 120년만에 온 윤달이 낀 갑신년입니다.
부처님지갑인 룸비니 복지갑에는 불교에서 유일하게 동서남북의 복을 부르는 부처님성구 卐자를 지갑정면에 넣고 윤달이 낀 갑신년 의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건강을 지키는 금강저를 지갑 내부에 순금도금하여 넣었으며 부처님 꽃이며 소원성취꽃인 백연화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순간부터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복지갑은 명산인 소백산에서 부처님께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드린 영험의 지갑입니다. 브랜드를 룸비니라 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 이름 입니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지갑은 안과 밖이 똑같은 최고급 천연가죽으로 내부도 기존지갑과는 비교가 곱수 없게 대단히 잘 꾸며져 있으며 국내 최고급 지갑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룸비니지갑은 부처님지갑으로 지갑을 받으시면 사용할 분의 신분증등을 넣고 깨끗한 상위에 놓은 다음 서쪽을 보면서 3배하시고 사용하시면 윤달이 낀 갑신년에 삼재도 물리치고 소원성취 하십니다.

이런분은 꼭 사용해 보세요.

- 사업을 하면서 어려우신 분
- 장사를 하고 있으나 안돼는 분
- 항상 하는 일이 안돼시는 분
- 취업을 준비중인 분
-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
- 개업을 준비중인 분
-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
- 결혼을 앞둔 분
- 특별한 선물을 찾고 계신 분
- 점포를 팔려고 내놓은신 분

신청 및 문의전화:080-755-0003

전화로 룸비니복지갑을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택배로 전국어디나 정성껏 보내드립니다.
남여공용반지갑5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은 신용카드 분할 또는 하기구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농협944-12-417900 고덕림

성불화 umbini 성불화 룸비니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귀농한 대기업 CEO
김종헌 이형숙 부부

따뜻한 빵, 지혜의 책으로
마음의 평화 이루세요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사방이 책과 그림으로 빼곡한, 흡사 서재에 변기와 세면대를 들여놓은 듯한 화장실을 꾸며 놓고 살고 있었다. 그가 이런 화장실을 꾸밀 수 있기까지의 사연을 들어보자.

홍천에 '베이커리 북카페' 내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지난해 7월, 강원도 홍천에 서울에서 출발한 트럭 14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국내 대표 속옷 제조업체 비비안(현 남영L&F) 사장을 지낸 김종헌(58) 씨와 대학에서 제과제빵을 가르치고 있는 이형숙(53) 씨 부부 인생의 '2막'이 시작되는 소리였다.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 27년간 장기근속하며 대기업 CEO로 발돋움한 김 씨. 억대 연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그가 2000년 9월 '북카페를 열기 위해서'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곤 카페 인테리어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고 홈페이지 제작 · 관리법을 배우기 위해 6개월간 전산학원에 다녔다.

'사모님'이란 호칭을 들으며 편안하게 생을 즐길 수 있었던 부인 이씨 역시 안락한 생활에 대한 미련보다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30년 전 대학 불교 동아리 룸비니의 수행대회에서 만나 서로 첫눈에 반했던 것처럼, 귀농의 꿈도 그렇게 함께였다.

이들 부부가 선보인 것은 베이커리(Bakery) 북(Book) 카페 '피스 오브 마인드(마음의평화 · www.peaceofmind.co.kr)'.

김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수집해 온 고서 1만여 권과 부인 이 씨가 5개 대학에서 배운 제빵기술이 만나, 고서를 읽으며 고소한 빵 굽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카페가 탄생한 것이다.

"서울 인사동이나 강남에 차릴까도 생각했지만, 홍천에 자리한 아로마동산을 보고 '바로 이곳'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 공작산 산등성이로 노을이 지고 밤이면 별이 총총히 뜨는 장관을 보고 결정을 내렸지요."

참선과 예불로 하루 일과 시작
책 읽고 빵 굽고 서빙하며…

그 후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 8월 중순 경 입주하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서울로 올라와 짐을 쌌다. 살림살이 외에도 1만여 권에 달하는 고서와 5천여 장의 LP음반, 수십 구의 불상까지 옮겨야 하는 이삿짐은 그렇게 트럭 14대를 빼곡히 채웠다.

"카페는 내 집 안방처럼 푸근하고 편안하게 꾸미자는 생각이었어요. 소파와 책상뿐 아니라 타자기, 진공관 전축 등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집에서 쓰던 것들입니다. 이곳은 우리 부부에게 일터라기보다 휴식처인 셈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해야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자녀의 입학 · 졸업식은 물론이고 부인의 출산 때도 곁에 없었고 가족과 휴가 한 번 못가는 등 집에서는 늘 '부재중'일만큼 일에 파묻혀 살았던 김 씨. 그런 그가 북카페에선 테이블을 닦고 음식을 서빙하고 마당을 쓰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종로 토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시골에서의 그의 삶은 자연스럽고 익숙해보였다.

부인 이씨도 요즘 주방에서 하얀 조리복을 입고 빵을 굽는 일이 너무 행복하다. '내가 만든 빵을 먹고 힘을 얻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뿌듯하고 보람차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된다. 집에 모신 불상 앞에서 예불을 올리고 참선을 마치면 남편은 곧장 소장 도서목록 정리에 들어간다. 최근엔 불교철학 에세이와 그동안 수집한 고서를 영인본으로 묶은 '피스오브마인드' 시리즈물 출판도 준비하고 있다. 아내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닷새는 하루 종일 빵을 굽고 이틀은 서울을 오가며 강단에 섰다.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예불은 빠뜨릴 수 없지요.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부처님 말씀인 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신 부처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인연입니다."

"돈많이 번다고 행복하진 않아"
'피스오브마인드' 출판 준비

도시에서의 풍족한 삶을 내던지고 시작한 이들의 도전은 단순한 '귀농'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그것은 아마도 북카페를 연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회향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회향은 그동안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따뜻한 빵 한 조각과 지혜가 가득한 책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부 나름의 회향인 셈이지요."

올해로 결혼 30주년을 맞는 이들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북카페 근처에 '서예기념관'을 짓는 것. 김 씨가 소장하고 있는 서예작품들과 책을 전시하기 위한 곳이다. 또 하나는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는 것이다. 책 제목은 신혼방에 표어처럼 써 놓았던 '결혼했다 방심말고 오는 연적(戀敵) 막아내자'로 정했다. 서로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자는 뜻이라고.

바쁜 것으로 치자면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덜하지 않지만, 부부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다.

"사람들은 '왜 억대 연봉을 마다하고 시골로 갔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수 억 원을 번다고 그만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이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일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면 피스오브마인드로 오세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김종헌 · 이형숙 부부가 직접 꾸민 베이커리 북카페 '피스 오브 마인드' 내부모습(사진 위)과 서재를 옮겨놓은 듯한 화장실(사진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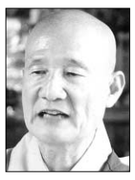


부처를 찾는 야단법석
禪師 7인 초청 대법회

기 간 : 3월 21일부터 ~ 27일까지 오전11시
장 소 : 서울 상도동 보문사 법당
문 의 : 02)823-7443, 814-8793

일정
3월 21일 (음, 윤 2.1) 고우스님 / 각화사 태백선원장
3월 22일 (음, 윤 2.2) 일오스님 / 월명암 사성선원장
3월 23일 (음, 윤 2.3) 현산스님 / 화엄사 선등선원장
3월 24일 (음, 윤 2.4) 혜국스님 / 제주 남국선원장
3월 25일 (음, 윤 2.5) 무여스님 / 축서사 선원장
3월 26일 (음, 윤 2.6) 대원스님 /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3월 27일 (음, 윤 2.7) 혜정스님 / 법주사 총지선원 회주

國師峯 보문사 www.bomunsa.org



자재만현 스님의 염불선 이야기 <5>

삼계의 법왕 석가모니불

나는 10여년전까지 유가, 도가의 걸출한 인물들, 제2의 예수라는 어느 종교인, '부처의 화신'이라는 기인들과도 깊이 사귀면서 그들의 내면세계를 검증한 바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존재의 근본인 빛(性光)을 보고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소식을 알아 공, 무아의 겁외가를 부를 줄 아는 수준(성중, 아라한)까지 이른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임을 잘못해(사음계를 파함) 공부인 영가가 빙의되어 외도로 빠진 아까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상당한 신통이 벌어진데다 고금의 철학, 종교사상에 깊은 조예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통은 해탈을 얻는데 아무 도움을 못 줍니다. 오히려 큰 업을 짓습니다.

완전해탈 하려면 三身 갖춘 붓다 돼야

대열반, 완전해탈을 이루려면 삼신(三身)을 갖춘 붓다가 되어야 합니다. 무량광으로 이뤄진 자기 불신을 얻어야 합니다. 이 거짓 몸 속의 주인공 영체는 빛덩어리로 정화돼야 합니다.

무수, 무량겁을 마음 공부, 보살행을 하지 않고선 이리 될 이가 없습니다. 아뢰야식도 녹고 9식(10식) 모두가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 속에 있는 4영체가 자기 불신 빛덩이와 격을 같이해서 이승을 마칠 땐, 자기 불신과 하나로 계합합니다.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불과를 증하려면 우선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무량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붓다의 경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상품상 보살이 사람으로 와서 붓다가 되는 경계입니다. <능엄경>에서 5음이 녹으면 눈은 800공덕을 얻어 윤회안 세계를 본다 했으나, 그런 대아라한도 무량광은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기 불신을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붓다 중의 붓다이시고 법왕중의 법왕이십니다. 진정겁전에 불과를 이루신 삼계의 왕이십니다. 그후에도 여러번 불과를 증하시고 보살로도 살아가신 지존이십니다. 남섬부주의 교주이십니다. 무아 속 절대세계에 청정법신(眞佛)을 두고 당신의 원만보신(佛身)은 적정불계에 계십니다. 3차원 세계에 익숙한 중생들의 알음알이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지니십니다. 석가모니불의 법신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모든 붓다의 법신이 흡수된 대지(大智)의 광명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기 법신의 당처를 촌보도 떠남 없이 인도 영축산 영산궁에 계시면서 <법화경> '종지용출품'에서 볼 수 있듯, 수많은 상주보살들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남섬부주에 붓다이룰 선근 종자가 오면 여기서도 가끔 주(住)하십니다. 당신 계신 곳 '사바가 곧 적광토'라는 말이 그래서 맞습니다. 당신을 모시고 간절히 찾는 이가 있으면 백천만억 화신을 나툴 수 있기에 화신을 내어가십니다.

남섬부주에 변화신으로 현신하실 때는 항상 깔끔히 머리 깎으시고 108가사를 수하십니다(다른 붓다들은 32조 가사임). 일거수 일투족은 자비의 극치이십니다. 법(연기, 진리) 자체이십니다.

<화엄경>에서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송들은 오히려 미흡할 정도로 희유하시고 거룩하신 대법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곡이 심한 우리 불가에서조차 왜 '석가모니불'을 염하지 않는지 슬픈 일입니다.

<춘천 현지사 회주>

"행동 하나하나에 발원하세요"

이종린 거사의 보현행원 수행법

수행 잘잘못 내 주위사람 통해 확인
"'깨달음 병' 벗어나 부처님 행 실천을"



보현행원 수행을 보급하고 있는 이종린 원장은 한국불교는 '깨달음의 병'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행'을 삶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깨닫게 하려 오신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이미 깨달아 있음을 알리려 오신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깨달음 병'에서 벗어나 이제는 부처님 행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3월 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조계사 극락전.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가 주최한 수행법 대강좌에서 '보현행원 수행법'에 대해 강의한 이종린(50) 홍익소아과 원장은 우리 불교가 '깨달음(見性)의 불교에서 공양(供養)의 불교'로 대중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혹의 나이에 <화엄경>의 '널리 바치고 섬겨라'는 '광수공양(廣修供養)'이란 언구에 이르러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는 이 원장. 보현행자로 거듭난 그는 "보현행원이 대다수의 수행법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나와 남이 동시에 밝아지고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성숙되는 화엄 수행의 정수"라고 강조했다. 모든 이들이 부처님이므로 남을 공경하고 칭찬하고 자신의 번뇌와 욕심을 모두 부처님께 공양하다 보면 나와 남이 보현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된다는 것.

지난 10여년간 보현행원을 펼쳐온 이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에 다니던 1974년 불교에 처음 관심을 가진 이후 운허, 탄허, 월산, 고암, 구산, 청화, 혜암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을 찾아다녔던 청년 구도자였다. 한 때는 너무나도 다양한 수행법에 혼란과 좌절을 느껴 불교를 멀리 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난 94년 이후 <님은 나를 사랑하시어><세간 속에서 해탈 이루리> <실천 보현행원>(불광출판부) 등의 저서를 펴내며 보현행원 수행법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종린 거사의 보현행원 수행법 강의에 앞서 입정중인 청년 불자들.

"선지식을 만나기 힘든 바쁜 생활인에게 맞는 수행법으로 보현행원만큼 원융무애하고 뛰어난 수행법이 없다"는 이 원장. 보현행원의 가르침이 수승한 법공양이 될 것이라는 그의 강의내용을 요약했다.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

가령 화두를 들어도, 깨달아 부처 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나의 깨달음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들면 화두 드는 것이 그대로 보현행원이다. 가정 주부가 아침밥을 지을 때도 "우리 '남편 부처님' '아이 부처님'들이 이 공양을 받고 건강하고 부처님 시봉 공양 잘하기 발원"하면 밥 짓는 것이 그대로 보현행원이다. 지금까지 무의미하게 살던 일상생활, 삶의 현장 그대로가 생계의 수단이나 욕망의 달성 현장이 아니라 수행도량이 된다.

▣보현행원의 열가지 수행

열 가지 보현행원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만나는 이마다 지성껏 공양 드리고, 잘못된 일은 즉각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남이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만나는 이마다 부처님 법문 듣기를 청하며, 이 세상 모든 부처님들이 더 오래 우리 주변에 머무시어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하시기를 바라고, 부처님을 본받아 공부 열심히 하기를 맹세하며, 곳곳의 중생들을 부처님 대하듯 섬기고, 행여나 생긴 이익이 있으면 모든 이들에게 나눠 드리는 것이다. 이 열 가지 행위는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각적인 수행효과

행원을 시작하며 온갖 장애가 극복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다. 행원은 하는 것만큼 즉각적인 공덕을 가져 온다. 우선 부정적이던 나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며, 내 자신이 기쁨과 환희 속에 잠긴다. 또한 내 주위의 분들이 나로 인해 기쁨을 얻고 나로 인해 부처님 품에 들게 되어, 내가 바뀌고 다른 이도 바뀌며 더불어 이 사회가 바뀐다.

▣경전이 스승 되는 쉬운 수행

다른 대부분의 수행법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나 이 행원만큼은 그렇지 않다. 스승 없이도 행원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으며 나의 수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즉 내 주위에 나로 인해 이익을 받는 이가 많아지고 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록 내 행원은 바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나로 인해 괴로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록 행원을 잘못하고 있는 징표가 된다.

▣우리 모두 성불로 이끄는 수행

행원은 우리 모두를 성불로 이끄는 수행법이다. 일반적인 수행법은 우선 본인의 발전에는 기여하지만 타인에게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지만 행원은 그 하나 하나가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행원을 하지 않는 사람 조차도 같은 수행의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와 같이 행원은 비록 나 혼자 할지라도 그 행원은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성숙을 가져와 사회가 밝아지고 온 국토가 밝아지게 한다.

▣모든 수행법의 귀결

보현행원은 상호 배타적일 수 있는 모든 수행법을 하나로 통합시킨다. 바로 법공양의 의미를 지닌 '여설수행공양(如說修行供養)'이 그것이다. 여설수행공양은 참선, 염불, 관법 등 다양한 수행법들을 하나로 묶어 오로지 부처님으로 돌아가게 한다. 부처님이 원하시는 수행, 내 자성 부처가 권하는 대로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나아가 불리보리심공양(不離菩提心供養)에 이르면 더 할 말이 없게 되니, 화두를 들고 묵조를 관하고 염불을 하는 것이 바로 보리심 떠나지 않기 위함이 아니든가.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뉴질랜드 남국정사에 한국 간화선 바람

교포 60명 7일간 용맹정진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에서도 한국의 간화선 수행 붐이 조용히 일고 있다.

뉴질랜드의 한국 최초 사찰인 오클랜드남국정사(주지 동진)는 2월 25부터 3월 3일 까지 서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을 초청, 간화선(看話禪) 참선수행 대법회를 가졌다(사진). 이번 법회에는 60여명의 교포 불자들이 입제법문 뒤에 화두를 받고 7일간 남국정사에서 화두일념으로 용맹정진했다.

입제법문에서 수불 스님은 "만고에 꺼지지 않는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 이 밝은 빛을 찾아, 다시는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매일 화두 점검과 질의 응답으로 불자들을 지도했다.



이번 법회를 성공리에 마친 동진 스님은 "최근 한국의 간화선 열기를 해외에 옮겨 불자들의 삶에 해탈의 빛과 향기를 전하고자 이번 법회를 마련했다"며 "자신을 찾는 구원의 메시지가 된 이러한 참선수행법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기독교 문화권에 불교의 대 사회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동진 스님은 오클랜드에만도 한국 교회가 100여 개에 달하는 현실(한국 사찰은 2개)을 극복하기 위해 수행 프로그램과 문화 강좌를 체계적으로 도입, 해외 포교에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발원으로 지난해 11월 남국정사 주지로 부임했다.

김재경 기자

2004년도
신입생모집안내
제5기 심리상담사 2급자격 과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스스로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밝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본 대학의 상담 아카데미 과정에 입학하시면 자기문제를 살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며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상담교육.훈련 전문 기관인「한국상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1.모집내용

과 정	기간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참가비	교육특전
제5기 심리 상담사 과정	1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10시	• 일반인(자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분) • 상담직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분 • 종교인 사회복지사, 의료계종사자 • 자영업인 등 대인관계 활동이 많으신 분	• 입학금:8만원 (교재대포함) • 수강료: 월6만원 (자격검정료, 집단수련 비제외)	• 수료자는 전형을 거쳐 "심리상담사 2급" 민간자격증 수여 (자격기본법 제15조 관련)

2.교육과목
- 상담학,심리학,성격검사 및 적성검사,상담의 적용기법,불교와 상담,가족 및 부부상담,정신역동적 부모교육,요가와 심리치유,음악과 심리치유,신경언어 설계화 치유,집단 상담 경험 등
- 상담심리 분야의 전문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본원양식), 주민등본 1통, 사진1매(반명함판)
4.접수기간 2004년 3월 19일 금요일까지(전화 접수 후 온라인 입근 가능)
부산은행 : 247-02-002554-1 박태헌
금액 140,000원(입학금80.000원, 3월분수강료 60.000원)
5.개 강 일 2004년 3월19일(금) 오후7시
6.신청문의 전화(051)633-5633 / FAX(051)633-2322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 4번출구 → 불교방송 뒤편 문화빌딩 5층)
종교법인 불교복지보건대학 (한국상담연구원,불교상담아카데미)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처님 가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사랑하는 사람 이자임 詩人
그리움으로 울고 말았다
그래 그리움
사랑으로 울고
내영혼 잠못드는 밤
우두커니 홀로앉아
온 밤을
지새워 울고
못내 그리운 마음
그래 찾아 가고 싶어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해 동 승 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겹누비면(먹물)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막 250,000
면(먹물), 광목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무 명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막 180,000 ~ 250,000
모 직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마(먹물)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하복지-구김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몸빼 60,000 ~ 셔츠 3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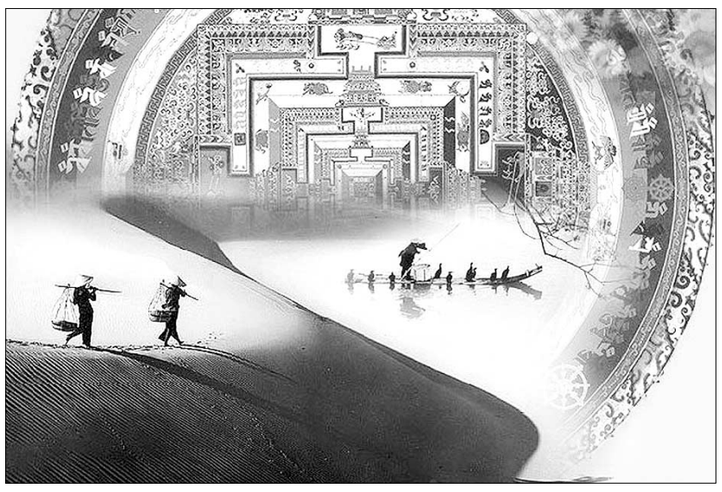

대구 고속터미널 ↔ 중간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봉인사 3월 수련 안내
자비수관(慈悲手觀) 수련
◆ 지, 수, 화, 풍, 공 의 오대 관법을 통한 위빠사나와 대승 밀교계통의 자비관법수행
◆ 안 내 : 지운스님(전 송광사 강주)
◆ 일 시 : 3월 13일(토) 오후 3시부터 18일(목)까지 (5박 6일)
◆ 준 비 물 : 간편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
◆ 수련비용 : 18만원(교재비 포함) (중, 고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도(茶道) 수련
◆ 안 내 : 지운스님(전 송광사 강주)
◆ 일 시 : 3월 14일(일) 오후 1시 반부터 18일까지 매일 출퇴근 가능
◆ 동 참 금 : 4만원(교재비 별도/ 교재는 "찻 잔속에 달이 뜨네"(봉인사에 비취되어있음)
※문 의 : 031) 574-5585
Homepage: www.bonginsa.net
E-mail : bonginsa@hanmail.net
봉인사 한길정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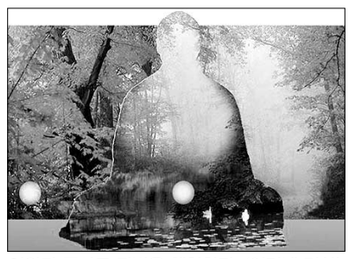
인터넷 명상과 만났다

탐/방 명상가 유중욱이 운영하는 '타오스페이스'

인터넷이 제 2의 생활공간이 된 지는 이미 오래.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각 공간의 문화가 서로의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실세계의 명상열풍이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 이 같은 '인터넷 명상'은 오프라인 명상을 돕는다는 방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온라인 특유의 이점을 살린 명상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어 특별히 주목된다. 명상가 '현지문(본명 유중욱)'이 운영하는 '타오스페이스(www.taosspace.net)'를 탐방하며 색다른 명상에 눈을 떠보자.


"시끄러운 시장에서 조용한 망치를 두드린다." '인터넷 명상' 화면.


매일밤 열리는 명상대화방.


이완과 주시로 관법을 체험한다. '인터넷 명상' 화면.

대화방서 매일 1시간씩 호흡·쿤달리니 명상
초보자 이해돕기위해 관법 플래시로 만들어


명상가 유중욱씨.

◇원리와 방법=명상으로 들어가는 방편의 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모든 것이 문이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문을 동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중욱씨는 "하나의 문이 결국에는 모든 문과 통하므로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인터넷 명상은 이 가운데 시각과 청각, 그리고 이해를 통해 입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문과정에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 그저 보기 좋고 듣기 편한 사진 및 사운드 파일 등이 늘어져 있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타오스페이스가 제공하는 인터넷 명상 과정(IMC=internet meditation course)은 명상안내자의 체계적인 지도와 점검이 전제된다. 명상 안내를 맡은 유 씨는 대화방과 게시판을 통해 직접적으로 명상법을 지도함은 물론, 개개인의 수행상황을 별도로 지켜보며 각자의 근기에 맞는 명상코스를 제시해 준다.

◇명상 체험하기=인터넷 명상과정은 명상 초보자에게도 무리 없이 열려있다. 오히려 "특정 명상을 체험했던 사람이라면 이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이 시작할 것"을 권한다. 이 같은 사고의 전환을 위해 사이트는 '장자 재밌게 읽기', '감동 엉화산책' 등의 여러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유 씨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는데 있어 전통성에 기댄 평가보다는 지금의 재해석을 통해 그 안에 숨은 마음자리 근본을 찾아내려고 한다"며 코너 운영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입문자들이 명상을 체험하면서 겪게 되는 심신상의 변화를 기록한 '천일야화'라는 게시판을 마련, 명상의 진행을 돕고 있다.

게시판 통해 지도·점검

본격적인 인터넷 명상은 매일 밤 10시에 열리는 대화방에서 시작된다. 대화방에서는 매일 1시간씩 호흡법 수련과 쿤달리니 명상시간을 갖는다. 유 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명상법을 자세히 일러주고 명상이 시작되면 명상음악을 틀어주며 이들과 함께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정화단계에 불과하다. 쿤달리니 명상은 몸에 진동을 일으켜서 막혔던 기의 통로를 뚫고 명상을 위한 심신의 기본을 마련한다. 그 후에는 명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완과 주시'를 통해 관법을 체험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유 씨는 "관법을 플래시 영상으로 시각화시켜서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수련자들의 관(觀)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적인 선(禪)에 접근할 수 있는 명상법을 수련한다. 선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풀어내는 것이 인터넷 명상의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근기에 맞게 코스 제시

◇현실과 가상사이="과정을 제대로 밟아간다면 명상센터에서의 깊은 수련 못지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 씨는 인터넷 명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단칼에 자른다. 그리고 고수를 만나면 기초를 가지고도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지도자와 올바른 명상법일 뿐이라는 얘기. 실제로 유 씨는 해인사로 출가해 구도자의 길을 걷다 토굴에서 적지 않은 세월을 수행으로 보냈다. 또한 인도로 건너가 영혼의 스승들을 여러 차례 만나는 가운데 나름의 가르침도 얻었다고 한다. 그 같은 체험에서 얻은 진리를 '지금-여기'에서 제대로 구현키 위해 인터넷을 방편으로 삼았다. 그런 까닭에 타오스페이스는 4~5년 전 개설된 이래 많은 명상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회원에 따라 "선어록이 한 눈에 들어올 만큼 깊은 삼매의 체험"을 한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수년 동안 인터넷 명상에 매진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기계화되기 쉬운 프로그램에 폭넓은 길을 열어주고 체험 이후를 의미있게 이어갈 수 있는 과정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같은 요구가 객관화된 형태를 기대하려면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유 씨의 원력은 끝이 없다. 국내에서 아직은 전무하다시피한 인터넷 명상이 새로운 명상 코드로 떠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일 듯하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모바일 업계도 명상 서비스

모바일 업계에도 명상 바람이 불고있다.

최근 명상 효과와 유사한 심리안정을 목표로 하는 휴대전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끈다. LG텔레콤은 지난 12월부터 아이티플러스와 제휴해 모바일 스퀘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바일스퀘어는 명상 시 증가하는 뇌파(알파파, 세타파 등)를 응용해 정신집중 및 심리안정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주)팬택은 이에 앞서 세계 최초로 명상과 행복, 즐거움, 집중, 환상 등 5가지 모드의 심리치료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출시했다. 또, KTF는 집중력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되는 휴대폰 최면 서비스 '최면천국'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심리연구소 등의 감수를 거친 이들 서비스는 잠재의식을 자극, 신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서브리미널 효과(Subliminal Effect)에 기반하고 있다.

강신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의공 스님 (下)

동경대 나온 불광산 비구니 1호

1976년 의공(依空) 스님은 여름에 누에가 허물을 벗듯 삭발하고 정식으로 성운 대사의 제자가 되었다. 검게 빛나던 머리카락이 소리 없이 땅에 떨어지던 순간을 스님은 이렇게 회상한다.

"사실 출가는 진정한 나를 찾은 것이며 하나의 해탈이었다. 승복으로 갈아입었을 때의 그 가뿐한 느낌은 내가 몇 생을 추구해 오던 것이었으며, 나는 원래 불문에 들어올 사람인 것으로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새장에 갇혀 있다가 자연으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의공 스님은 스스로 불광산의 스님들 중에는 행운아라고 생각했다. 다른 스님들이 불광산 초창기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할 생기왕성한 시절에 스님이 입산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운 대사를 비롯한 선배 스님들이 아직 밖으로 포교에 나서지 않고 불광산을 가꾸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가르침도 받을 수 있었다. 의공 스님은 마치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성운 대사와 사형들에게서 친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무림 고수들로부터 한꺼번에 무공을 전수받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잡지 발간·대학 강의 등 문화·교육 사업에 힘써

이 때 불교가 장차 다원화되고 교육수준도 더욱 향상될 것에 대비해 우수한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성운 대사가 첫 번째로 선택한 인물이 의공 스님이었다. 성운 대사는 의공 스님을 일본 동경대에 유학시키기로 하고 일어에 능숙한 자장 스님을 딸려 보냈는데, 이로써 의공 스님은 불광산에서 일본 국립대에 유학한 최초의 비구니스님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의공 스님은 일본어도 몰랐는데 겨우 일주일 동안 일본어 기초를 한번 훑어보고는 혼자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일어를 공부했다. 누군가 일어를 공부하는 데는 만화나 신문, 잡지를 보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는 지하철이나 쓰레기통에서 이런 것들을 뒤져 꼼꼼히 읽으면서 일상용어를 익혔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의공 스님은 먼저 유학한 선배인 자혜, 자용, 의계 스님이 쓰던 일용품을 물려받아 쓸 정도로 검소했다. 이불은 다 헤지고 전기 밥솥은 두드려야 작동이 되고 흑백 텔레비전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쓰면서도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의공 스님은 이러한 노력으로 3년 뒤 동경대 인도철학과 문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 불광산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문화와 교육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인 의공 스님은 귀국하자마자 <보문> 잡지의 사장과 보문중학교의 교장을 맡았다. 동시에 <성운대사 강연집>을 편찬하고 불광산문교기금회의 집행비서직을 맡았다. 교육방면에서는 불광산불학원 뿐만 아니라 문화대학, 성공대학, 동해대학, 까오슝사범대학 등에 출강하여 인생철학과 화엄철학 등을 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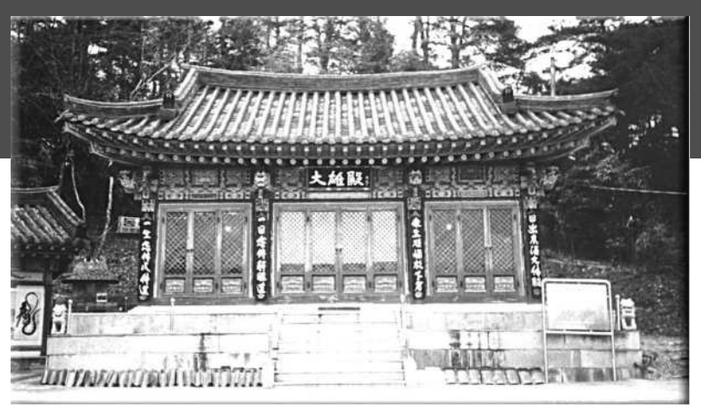
그러나 의공 스님은 50을 넘긴 나이에 까오슝사범대학대학원 중문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앉아서 책만 읽는 서생은 아니었다.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人能弘道, 非道弘人)'면서 절에서 필요로 하면 어떠한 임무든지 훌륭하게 수행했다.

쌍림사(雙林寺) 주지, 타이쫑 동해도량 주지, 미국 서래사 주지, 전등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불광산문화원 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20년 동안 의공 스님은 문화, 교육, 사찰운영, 행정, 인사, 국제관계 등 모든 업무를 막힘없이 수행해 왔던 것이다.

의공 스님의 남은 발원은 스승인 성운 대사의 사상과 저작, 설법 등을 정리하고 다듬어 '인간불교(人間佛教)'의 종풍을 시방삼세에 드리우는 것이다.

김재경 기자

기도영험도량에 법비가 오는
동해사 삼사순례



◎ 동해사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 바닷가 8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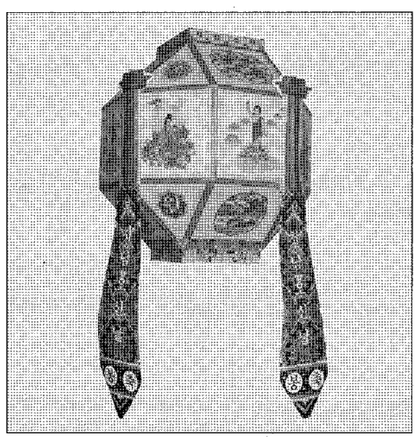
매년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밤,낮 없이 법비가 내리고 92년 10월 29일 찬란한 무지개 발현. 11월 8일 오색불꽃이 발현. 새벽기도중인 신도들을 감탄케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는 동해사!

법비와 광명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시고 계신곳 동해사에 오시어 삼사순례도 하시고 소원이루어 보세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033-672-2900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집전스님이 필요한 불교단체는 주지스님 직접 가능함.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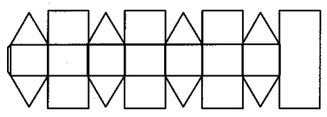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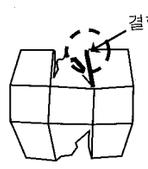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주장자따라…

⑩ 효봉 스님의 '길'

조태호



효봉 스님(1888~1966): 평남 양덕군 출신. 평양 고보, 와세다대 졸업후 법관 생활하다가 신계사서 득도 후 교학 · 선수행에 매진. 1962년 통합 종단 초대종정.

네티즌 교리문답

부처님 입적 해가 佛紀의 기준인 이유?

문 올해는 불기 2548년이다. 서기는 예수 출생년도부터인데, 왜 불기는 부처님 입멸로부터 연대를 계산 했을까? (ID '거북이')

답: '불기(佛紀)'란 석가모니불이 입멸(入滅 혹은 入寂)하신 해를 기준으로 삼는 연대 표시다. 즉 '불기'란 '불멸기원(佛滅紀元)'을 줄인 말이다. 불교를 국교로 삼은 국가에서 연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부처님 열반한 해가 기준이 된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 연도는 정확하지 않다. 옛 인도인들은 역사 기록 자체에는 큰 가치를 두지 않아 부처님 탄생 연도는 물론 열반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단지 부처님 사후 100년째 되는 해에 마우리아왕조에서 아쇼카 왕이 즉위했다고 전해져 이를 토대로 역으로 셈하여 입멸 연도를 잡기도 한다. 하지만 남방불교에서는 아쇼카 왕이 부처님 사후 218년에 즉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도를 침입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연대로 따진 것인데, 이 기록에 따라 1956년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입멸 2500년을 기념하며 제1차 세계불교대회가 개최되었고, 이 연대를 대부분의 불교국가들이 받아들여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ID '붓다뉴스 팬')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㉞

불립문자(不立文字)-7

차별 · 개체성만이 아닌 이면의 일체성도 보라

그러니까 글쓰기, 문자문화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을 보면, 우선 글쓰기는 인간 정신 내면의 일을 외부에다가 사물화(事物化), 객체화(客體化)시킨다는 점을 못마땅해 한다. 그리고 말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유의 소통이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 글은 그러한 대면의 현장을 떠나 저 홀로 고착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비현실적이며 자연스럽지 못하고 조작적이라는 점을 비판한다. 즉, 보자는 인간 정신활동의 내면성과 현실성, 자연스러움을 파괴한다고 본 셈이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중시한 인간 정신활동의 본령은 무엇일까?

플라톤이 소개하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보면, 글쓰기에 대한 그의 비판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 글은 말의 복사물이다. 말은 사유 속 개념의 복사물이고, 개념은 사물의 복사물이다. 모든 사물은 각자의 본질(idea)이 지각 또는 감각되는 형태로 복사된 것이고, 그 각 사물의 본질은 우주 전체의 궁극적인 원리(Idea)가 복사된 것이다. 그러니 글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의 궁극적인 원리로부터 몇 단계나 멀리,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것이어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우주 전체의 궁극적인 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인간 정신활동의 궁극적인 본령이라고 여겼다. 그 이데아란 평이한 말로 달리 말하자면 세상 모든 것을 일이관지하며 모든 것을 수렴하는 원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원리이다. 삼라만상의 개체성이 다 그 하나로 수렴되므로, 오직 하나이면서도 보편적인 원리이다.

개체성 너머 그런 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하나의 원리를 찾는 것이 고전사상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인도 우파니샤드 사상의 일자(一者), 중국의 천(天)과 도(道), 유대 · 기독교 전통의 야훼, 그리고 불교의 정법(正法)이 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그것을 종교학에서는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의 개념이라고 일컫는다.

그런 포괄적이며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어떤 하나의 실재를 바라보는 사상에서는 삼라만상의 개체성에 얽매인 사고방식이 큰 문제 거리로 여겨진다. 서로 다르고 구별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에 다 들어가는 그 궁극적인 실재를 체득하려면,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류해야지만 비로소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틀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다 서로 다르게 보이고 구별되지만, 그런 차별성, 개체성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그 뒤의 일체성도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사상을 편의상 불교의 용어를 빌어 불이(不二)의 입장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고전종교들을 보면, 하나 같이 불이의 원리를 실생활의 현장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윤리규범을 강조한다. 크리스트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관련해서 유명한 예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이다. 상대가 누구든 무조건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남과 자신의 구별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도 있다. 똑 같은 얘기로, 불교에서도 동체자비(同體慈悲)를 말한다. 그런 불이적 입장에 대해, 왜 문자나 글쓰기는 장애가 된다는 것일까? 이미 짐작은 되겠지만 다음 글에서 더 이야기를 끌어가기로 한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60>

마야부인의 법문

선안, 선지식 구해야 佛母 볼 수 있어

보현의 행과 원은 부처 낳는 근본

석녀 구파의 권유에 따라 선재동자는 마야부인을 찾아간다. 마야부인은 석가세존을 낳으신 부처님의 어머니이다. 선재동자가 마야부인이 계신 곳에 나아가니, '보안이라고 하는 성을 맡은 신(寶眼主城神)'이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마땅히 마음의 성(心城)을 수호해서 모든 생사의 경계를 탐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의 성을 장엄해서 일심으로 여래의 열 가지 힘(十力)을 구해야 한다. 마음의 성을 깨끗이 다스려서 탐욕을 부리거나 인색하고 질투하고 아첨하며 속이는 일을 끝까지 끊어야 한다."

다음에 몸이 많은 신(身衆神)이 묘한 음성으로 마야부인을 갖가지로 칭찬하는 것을 듣고, 또한 귀고리에서 나오게 하는 가지각색의 광명그물을 보고 선재동자는 깨끗하고 광명한 눈을 얻었다. 그리고 보살의 법당을 수호하는 선안(善眼)이라고 하는 나찰귀왕은 선재동자에게 선지식을 친근하는 열 가지 법과 선지식을 보게 되는 열 가지 삼매를 가르쳐 주면서 "용맹하고 자재하게 시방에 두루 노닐면서 선지식을 구하되, 몸과 마음이 꿈같고 그림자 같은 줄을 관찰하여 선지식을 구하라"고 당부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선재동자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혜의 눈을 열어 용맹스럽게 선지식을 구함으로써 비로소 마야부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모(佛母)인 마야부인을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래의 출생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여래를 출생시키는 것이 심성을 잘 수호하고, 혜안을 열며, 선지식을 구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재동자가 마야부인을 보니 여러 중생의 앞에서 청정한 육신을 나타내고 있었다. 모든 존재의 길에서 뛰어나 삼계를 초월한 육신, 모든 세간에 집착이 없이 중생들이 좋아하는 데로 따라주는 육신 등 한량없는 육신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이익케 하고, 온갖 지혜를 구하고, 도 닦는 데에 도움이 되는 법(助道法)을 갖추고자 하였다. 또한 평등하게 보시바라밀다를 행하여 대비심으로 모든 세간을 두루 덮어주며, …… 모든 보살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마야부인이 무량한 여러 가지 방편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보살의 행을 배워서 성취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자. 마야부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불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큰 원과 지혜가 환술과 같은 해탈문(大願智幻解脫門)'을 성취하였으므로 항상 여러 보살의 어머니가 된다. 불자여, 내가 이 염부제 가비라성의 정반왕궁에서 오른 옆구리로 싯다르타태자를 낳아 부사의하고 자재한 신통변화를 나타내듯이 내지 이 세계해에 있는 모든 비로자나 여래가 다 나의 몸에 들어왔다가 탄생하면서 자재한 신통변화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부처님이 입태(入胎)할 때의 부사의한 일들을 자세히 설하였다.

"정반왕궁에서 보살이 탄생하려 할 때에 보살의 몸을 보니, 낱낱 털구멍에서 모두 광명을 놓았는데, 그 이름이 '모든 여래가 태어나는 공덕바퀴'였다. 낱낱 털구멍에서 불가설 세계의 티끌수 보살이 태어나는 장엄을 나타내었고, 그 광명들이 모두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정수리와 모든 털구멍에까지 들어갔다. 그 광명 속에서 모든 보살의 이름과 태어나는 신통변화를 나타내었으며, 보살도를 행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대중을 위해서 바른 법륜을 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에 열 세계 티끌 수 보살이 있었는데, 모두 이 보살과 더불어 원 · 행 · 선근 · 장엄 · 해탈 · 지혜가 같았다. 보살은 이들과 함께 중생을 구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통변화를 부리면서 내 몸에 들어왔던 것이다. …나의 뱃속에 이렇게 많은 대중들을 용납하지마는 몸이 더 커지지도 않고 비좁지도 않았다.

선남자여, 이 사천하의 염부제에서 보살이 태어나실 적에 내가 어머니가 되듯이 삼천대천세계 백억 사천하의 염부제에서도 모두 그러하지마는 나의 이 몸은 본래부터 둘이 아니며,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여러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니 왜냐하면 보살의 큰 원과 지혜가 환술같이 장엄한 해탈문을 닦은 때문이다.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와 모든 겁에서 보현의 행과 원을 닦아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려는 이에게도 나의 몸이 그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내가 본다."

마야부인이 설하고 있는 '대원지환해탈문'의 법문은 본원(本願)의 자비심에서 지혜를 일으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다양한 모습의 몸을 허깨비(幻)과 같이 무수하게 나타내어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부처가 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야부인이 이러한 법문을 하는 것이다. 특히 "보현의 행과 원을 수행해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려는 자에게도 나의 몸이 그들의 어머니가 된다"고 설하고 있는 것에서, 보현의 행과 원이 부처를 낳는 근본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축복 또는 승리를 기뻐하는 뜻으로 외치는 소리 5. 왕이나 국가 원수 등이 아랫사람에게 금품을 줌 7. 고려 후기에 왕의 원(元)나라 행차에 수종한 공로로 책봉된 공신 8. 찬물에 적신 수건을 꼭 짜 전신의 피부를 마찰하는 한랭욕 9. 장타령꾼의 속된 말 11. 사천왕(四天王)을 모신 문. 13. 네 개의 삼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 14. 수가 아래임, 또는 그 사람 15. 종교상의 원리나 이치 16. 학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 19. '불교에 귀의한 사람' 21. 교사들이 사무를 보는 방 23. 대학에서 고고학을 가르치는 학과 24. 모든 생각을 떠나 마음이 비어 있음 26. 서로 번갈아 듦 27. 조사 '리'에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오'가 붙어서 된 말.

세로

1. 오래오래 삶 2. 한글을 창제한 조선시대 임금님 3. 절에서 산신을 모신 집 4. 옥수수 5. '자칫 잘못하였더라면'을 뜻하는 부사 6. 절, 사원의 동의어 10. 수크로오스(庶糖)를 주성분으로 하는 감미료로 아주 달다 12.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 13. 부처님의 10대 제자로 지혜제일 존자 17. 학처럼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뜻 18. 직업으로서 맡아서 하는 일 20. 남의 능력이나 됨됨이 따위를 얕잡아 보는 뜻의 부사 21. 학교의 각 교육 과정에 맞도록 편찬된 도서 22. 어떤 사무를 직접 맡아 하는 사람 23. 고등학교의 줄임말 25. 밤 열두 시로부터 낮 열두 시까지의 사이

못난 자식 만든 잘난 아버지들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

모리시타 겐지 지음/양억관 옮김
황소자리/1만1천원



케네디 · 헤밍웨이 · 간디 등 세계사를 장식한 남자 10명과 부모의 왜곡된 욕망으로 불행했던 자녀들의 삶 조명



조지프 케네디와 에드워드,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그레고리, 윈스턴 처칠과 랜돌프, 토마스 에디슨과 토마스 주니어, 마하트마 간디와 할리랄, 폴 고갱과 에밀, 조지 5세와 에드워드 8세…등. 이들의 공통분모는 부자(父子)지간이다. 공통점을 하나 더 들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자식들은 모두 부모들을 울렸다는 것이다. 왜 이들은 위대했던 부모를 닮기는커녕 비뚤어진 길로 나갔을까. 거대한 떡갈나무 옆에서 자라는 어린 잎은 정작 햇볕을 보기 힘든 것일까. 세계사를 풍미한 10명의 남자들과 그들의 못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에서 저자는 '잘난 부모들이 바로 자식을 그렇게 만든 주인공이다'라고 쏘아 붙인다. 그만큼 아버지의 부와 명성을 딛고 편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것 같지만 실제 자식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은 것 같다.

1898년 발명왕 에디슨의 장남 토머스 주니어가 사기죄로 고발 당했다. '전기 활력 회복기'라고 이름붙인 가짜 건강 기계를 만들어 '감기나 운동 장애' 뿐만 아니라 만병통치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시중에 판매하다 적발된 것이다. 보다못한 에디슨은 아들의 회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아들의 회사는 문을 닫았다. 둘째 윌리엄도 똑같았다. 여러 사업에 손을 댔으나 하는 일마다 실패한 윌리엄은 결국 매주 40달러씩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으로 연명해야 했다. 아들들이 이 지경이 된 건 에디슨의 책임도 있었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에디슨은 늘 공교육을 부정했고 아들에게도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에디슨은 늘 바빴고 자식들은 무식하고 병든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다.

처칠도 마찬가지였다. 1963년 미국의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 '6만4천달러의 질문'에 영국 런던에서 건너온 52세의 중년 남자가 출연했다. 우승 축하파티를 위해 정원에 목련나무까지 사서 미리 심었다며 기고 만장했던 이 남자는 두 번째 문제에 걸려 망신만 당한 채 퇴장해야 했다. 이 남자가 바로 어린시절부터 경박하고 싹수 노랗기로 유명했던 처칠의 외아들 랜돌프다. 대학을 중퇴하고 사교계에 심취했던 랜돌프는 정치를 하겠다며 24살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그러나 무려 6번이나 떨어졌고 타고난 낭비벽 때문에 고생을 하다 결국 술 때문에 57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러면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인 간디의 아들은 어땠을까. 아버지의 삶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던 간디의 큰 아들 할리랄은 친구에게 사기를 치고 술과 여자에 빠져 사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다. 원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 했던 아버지 때문이었다. 간디는 아들을 늘 무시했다고 한다. 할리랄의 기행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의 비애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밖에도 이 책에는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자식들에게 강요한 케네디와 록펠러, 자신의 이기적 성취욕을 달성하기 위해 자식을 내팽개쳐 버린 헤밍웨이와 고갱, 아이를 부모의 분신으로 여기며 자식의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은 조지 5세와 막시밀리안 2세 등의 일화가 소개돼 있다.

'자식은 부모의 지나간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는 말이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부모의 왜곡된 욕망과 행동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전수되며, 또 그들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일그러뜨리는지를 반성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새학기 출발을 앞둔 학부모들에게 효과적인 자녀교육 지침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김주일 기자 jjkim@buddhapia.com



(사진 위) 오른쪽부터 윈스턴 처칠과 랜돌프.
(사진 아래) 케네디가의 3형제들. 왼쪽부터 존, 로버트, 에드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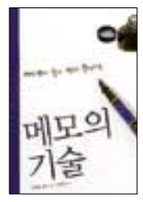
책속의 밑줄긋기

▲서민이든 위대한 부모이든 그리고 불초자식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참으로 말로 설명하기 힘든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엄청난 고뇌를 대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평범한 인생에 만족감을 얻기도 하고 아쉬운 한숨을 내쉬기도 할 것이다.

▲타고난 광기와 예지력을 극대화시키며 한 시대를 대표하는 걸출한 작가로 이름을 남긴 헤밍웨이. 그가 소설로 아들의 불안한 미래를 예견하기 전에 따뜻한 부성으로 아이를 안아주었으면 어땠을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레고리의 삶과 죽음이 남기는 안타까움이 너무도 크고 무겁기 때문이다.

▲아무런 실무 경험도 없고, 부정한 대리 시험으로 퇴학을 맞고, 습관처럼 만취운전을 하는 등 테드는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성격적으로도 공황에 빠지기 쉬웠으며 급할 때는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지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인물이었다. 그 테드를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원의원으로 만든 사람은 아버지 조였다.
테드는 케네디 가의 형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로봇 같은 성격이 가장 강하다. 테드라는 인격은 아버지가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이었다.

전문가 서평



메모의 기술

사카토겐지 지음/고은진 옮김
해바라기 펴냄/7천8백원

얼마전 TV에서 하버드 대학의 수재 한국인을 취재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그 학생의 공부비결은 끊임 없는 메모와 스케줄 관리에 있었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CEO들의 경영 비결을 인터뷰 한 기사를 본 적이 읽는데 대부분의 생활습관에서 '메모'를 빼놓지 않았다.

비단 '메모'는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정보들 중 우리가 한번에 기억할 수 있는 두뇌의 용량은 한정돼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메모'를 한다.

이 책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메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메모하는 이유에서부터 메모에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 상황별 메모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수첩을 활용한 가로 줄무늬 패턴의 편집과 소제목 아래 내용을 정리해 주는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편집은 메모의 기본 법칙을 살려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지금까지 '메모'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메모의 습관화나 활용 방법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더욱 폭넓은 시각을 형성시켜 준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크다.

메모에도 정리가 필요하다

효과 두배로 높이는 메모활용사전

법무사란 직업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건의 메모를 하고, 다시 그 메모를 버리고 지우는 일상을 반복하는 나로서는 '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메모를 활용하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마음속에 불꽃처럼 남아 있던 메모의 기본 체계에 대한 갈증이 일순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그만큼 이 책에는 메모의 기술과 활용에 대한 모든 것이 사려 깊게 담겨 있다. 일종의 '메모 활용사전'인 셈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메모가 꼭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남에게 무슨 내용을 전달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메모는 자신의 직분과 상황에 따라서도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직장 상사가 되었을 때와 부하직원으로서 상사를 대할 때, 회의를 주재할 때와 회의에 참석할 때 등에 따라서 메모의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마구잡이식 메모를 즐겼는데 이 책을 통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메모하는 법을 배워 실천하고 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일상업무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책 말미에는 △언제 어디서든 메모하라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라 △기호와 암호를 활용하라 △중요 사항은 한 눈에 띄게 하라 △메모 시간을 따로 마련하라 △메모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라 △메모를 재활용하라 등 메모의 7가지 기술도 소개돼 있어 실용적이다.

부디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대로 메모하고 활용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해 내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인생의 목표를 이뤄가기를 바란다.

■ 김영광(법무사)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直) (02)737-8881(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만해 스님이 머물며 경전공부에 매진했던 오세암 전경. 스님은 1917년 12월 3일 밤 이곳에서 좌선중에 깨침을 얻고 오도송을 남겼다.

다시 보자 '인간 만해'

첫키스로 만해를 만난다

김광식 지음
장승 / 9천원



근대 해방기에 우리 민족의 사표로서 큰 자취를 남긴 만해 스님(1879~1944)의 입적 60주기를 맞아 평전 <첫키스로 만해를 만난다>가 나왔다. 백담사 만해마을 연구실장 김광식 교수(부천대)가 쓴 이 책은 무조건적인 찬양과 흠모 대신 '인간 만해'의 모습을 그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시인'으로서만 집중 부각되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스님으로서의 면모와 민족운동가로서의 행적을 고루 조명했다.

특히 책에는 만해 스님의 글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계록(同戒錄)' 서문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1910년 4월 작성한 이 글은 당시 금강산 표훈사 강사였던 만해 스님이 대구 동화사에서 박유운 스님에게 계를 받은 36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를 위해 지어준 것으로, '설악산인 한용운 지(識 · 적음)'라고 적혀 있다.

김 교수는 "오늘날 또 다시 만해 스님의 행적과 정신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는 '만해 정신'으로 시대를 읽기 위해서다"며 "참다운 지식인과 어른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의 문제점을 만해 스님의 관점으로 규명하고 그에 기초해 새로운 민족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김 교수는 "이번 평전에서는 영웅시되고 신비화된 만해 한용운에서 벗어나 평범 속의 위대함, 보편 속에서의 이채로운 만해상을 그리려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인 고은 선생이 <만해 한용운>에서 만해 스님의 삶을 소설 형식으로 엮었다면 김 교수는 스님이 남긴 글과 자료를 통해 그 면면을 살핌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자칫 건조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당시의 사진과 신문 기사, 일제의 판결문, 수형 기록부 등 100여 장에 달하는 자료를 함께 실어 현장감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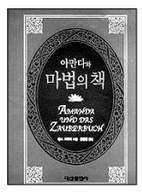
책에서는 1879년 8월 29일의 출생을 시작으로 1897년 첫 출가, 백담사와 건봉사에서의 생활을 비롯해 왕성한 문학 활동과 독립 운동기를 거쳐 1944년 6월 29일, 신경통과 영양실조로 앓다 세수 66세, 법랍 40세의 나이로 원적에 든 만해 스님의 삶이 차분한 어조로 정리되어 있다.

여수령 기자

내 안에 숨겨진 마법 찾기

아만다와 마법의 책

한스 크루파 지음 / 김현정 옮김
대산 출판사 / 8천원



누구나 살면서 한 번 쯤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기를 바란 적이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질문에든 해답을 알려주는 '마법의 책'을 갖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질문을 던질까?

<아만다와 마법의 책>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마법의 책'에 관한 이야기다. 이야기는 독일인 고고학자 아만다가 인도의 옛 불교사원의 발굴 도중 아무것도 씌어져 있지 않은 한 권의 책을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수백 년 간 땅 속에 묻혀있다 세상에 나온 이 책은, 책장을 펼쳐든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백지 위에 검은 글씨를 보여줌으로써 갖가지 의문을 풀어주는 '마법의 책'이었다. 하지만 글귀는 읽고나면 사라져버려 옮겨 쓸 수도, 내용을 읽어 녹음할 수도 없다.

"단 한 번뿐인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참된 생명으로 통하는 문이니 열어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열지 못하리라."

스무 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아만다는 마법의 책을 손에 넣은 후 떨리는 마음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법과 삶의 의미, 사랑의 가치 등을 질문하기 시작한다. 마법의 책이 들려주는 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간결하고 아름다운 시(詩)로 나타난다. 이 시들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여유마저 없는 현대인들의 메마르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는 일종의 처방전이다.

온갖 의문 풀어주는 마법의 책 얻은 고고학자
간결한 시어로 메마르고 상처받은 마음 치료

'깨달음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

"자아가 한낱 이슬이 아닌 거대한 바다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 환희에 열광할 때 자아는 녹아 영혼과 하나가 되리라."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허상을 탈피해 본질로 가라. 공허한 언어에서 침묵으로, 일상에서 본연으로, 암흑에서 광명으로, 육중함에서 초연함으로, 환상에서 실체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지상의 무수한 모순을 넘어선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저마다 깨달음에 이를 수 있으니, 그 삶은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마법과 자유로 충만하다."

책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법의 책은 아만다의 의문을 풀어주는 동시에 아내를 잃고 실의에 빠져있던 아만다의 아버지에게 삶의 희망을 선물한다. 또한 마법의 책이든 아만다의 가방을 소매치기한 플로리안도 책을 통해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를 찾아가게 된다. 마법의 책이 제시하는 답과 스스로에 대한 깊은 통찰이 결국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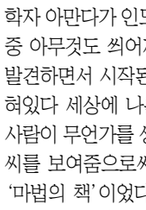
"세상이 좋고 나쁜 건 사람의 변덕스러운 생각에 달린 것. 절망한 사람에게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 행복한 사람에게 세상은 천국. 그러나 이 모두는 착각에 불과하다. 깨달은 사람에게 세상은 이미 해결한 수수께끼일 뿐."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한스 크루파가 <아만다와 마법의 책>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마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에 있으며, 이 생에서 참된 자아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마법'이라는 깨달음인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인도의 동의보감 아유르베다

바그완 다쉬 지음 / 윤희기 옮김
꿈꾸는 돌 / 1만1천원



요가 · 향기요법의 원조 만나볼까?

印 전통의학 의미와 질병 진단 · 치료법 소개

최근 미용센터나 목욕용품 전문점에서는 요가를 비롯해 향기 마사지, 허브를 이용한 아로마테라피(향기요법) 용품 등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Ayurveda)의 한 부분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생명 과학'이라는 뜻의 아유르베다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과 장수의 한 방법으로 요가와 오일마사지, 자연식이요법과 약물요법 등이 처방되는 총체적인 의학 체계를 일컫는다.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는 "아유르베다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주치의가 되어 자신의 한계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인도의 동의보감 아유르베다>는 아유르베다의 의미와 체질에 따른 특성, 질병의 원인과 진단 · 치료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지은이 바그완 다쉬는 "아유르베다 의학은 인도 철학의 한 부분으로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기초한 치유과학"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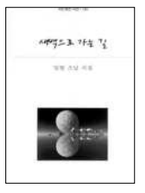
요가에서의 전통적인 자세인 차크라 자세.

책에 따르면 인간의 체질은 세 가지 도샤 즉 바유, 피타, 카파에 따라 나뉜다. 바유 체질의 사람은 눈, 귀, 코, 목과 관련된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뜨거운 음식이 좋고, 피타 체질의 사람은 차가운 음식이 적당하며 소화불량, 빈혈증, 황달에 걸리기 쉽다. 또한 카파 체질은 몸을 덥게 하는 약을 복용해야 하며 감각 기관의 기능 손상을 비롯해 관절의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아유르베다 치료법이 같은 병에 걸린 환자라 할지라도 체질과 정신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기침과 천식, 편두통, 고혈압 등 흔히 발병할 수 있는 40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법과 함께 식이요법, 오일마사지, 숙면을 취하는 법, 노인을 위한 건강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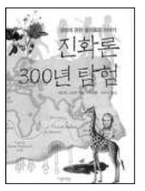
■ **<새벽으로 가는 길>**(밀행 스님 시집, 오감도, 6천5백원)="사람은 바다를 닮아 있어서/ 늘 자기 안에 샘을 가지고도 밖을 통해 그리움을 적시려 한다/ 늘 밖으로만 열려있는 삶은/ 자기의 샘물을 마르게 할 뿐이다"('바다는 목마르다' 中) 문예사조 신인상 수상과 2002년 한국인터넷문학상 시 부분 당선으로 등단한 밀행 스님의 첫 시집. 스님은 "이번 시집은 내 대한 마음의 점검이며 성찰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한다. '봄비'와 '흐르는 섬', '잊혀진 얼굴' 등 60여 편의 시가 담겨 있다.



■ **<칠일 밤>**(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지음, 송병선 옮김, 현대문학, 1만2천원)=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이자 비평가 보르헤스가 1977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콜리세오 극장에서 했던 강연 내용을 묶은 책. 지은이가 문학의 정점으로 꼽았던 단테의 <신곡>을 비롯해 '불교', '천 하룻밤의 이야기', '실명' 등 자신의 문학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곱 가지 주제의 강의 내용을 담았다.



■ **<진화론 300년 탐험>**(세드릭 그리무 지음, 이병훈 · 이수지 옮김, 다른세상, 1만2천원)=복제양 돌리, 시험관 아기, 배아 줄기세포…. 최근 신문 지상을 장식한 과학적 성과를 비롯해 18세기부터 현재까지 세계과학계에 이슈가 되었던 진화와 관련된 발견과 논쟁, 사건들을 '스무고개' 식의 문답으로 만나본다. 과학자들의 주장에 찬성 혹은 반대를 하는 과정을 통해 진화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본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수행의 단계	달라이 라마	들 녘
2	운명을 뛰어 넘는 길	김 지 수	불 광
3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4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담	우룡 스님	효 림
5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 경 각
6	초의	한 승 원	김 영 사
7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달라이 라마	김 영 사
8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 공 사
9	밥상에 도가 있다	정 세 채	모 색
10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생명의 빛 신등의 비밀공개
- 중국의 과학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



신등이란? 특정전자기파, 생체에너지파, 슈퍼원적외선파, 마이크로파 등 11개 파장이 동시에 발생되어 그 열파장은 피부깊숙히 80mm까지 흡수되어 세포의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공진작용과 에너지 농축으로 무질서한 세포(파괴된 염증세포)를 바르게 정리 재생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면역체계 상승과 모세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병변부위를 신속히 정상회복 시켜준다. (그 비밀은 바로T.D.P에 내장된 Black Disk의 미량원소 조절의 신비에 있다.)
※ TDP에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분은 우송해드립니다.

세계발명품 박람회 금상수상 金賞

미국 FDA검증(No.K875052)
한국 의약품안전청 허가(제수허 01-506호)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필수품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과 악성 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뼈관절 증상(허리, 무릎, 목, 골반) 각종 통증으로 땡기고 절인 증상 등
◆혈액순환 장애로 머리무거움, 숨참, 가슴이 뛰고 답답함, 현기증, 손 발 배가 냉한 증상
◆장기간 외병 생활로 등창 욕창이 심하신분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에 심한 피로와 충혈로 침침하고, 소화가 잘안되고 깊은 잠을 못자는 분
◆고질적인 치질 · 치루 · 탈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부인과 분야(냉증, 세균성 염증, 월경이상과 통증, 불임, 불감 재증상)
◆피부증상(악성 세균성 피부질환, 화장이 잘 안받는 거친 피부)
◆전립선 기능장애로 마음이 쓰이는 분은 꼭 필요함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이 많으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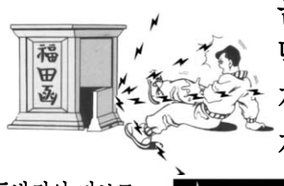
유고 국제 박람회 금상 수상, 벨기에 부뤼셀 만국방람회 은상 수상
◆중국 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의 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 가정용)
◆한국 95년도 보건복지부 인정 독점수입
◆한국 각 종합병원, 보건소 등 200여 의료기관에서 설치 사용중

건강백세 (특정 TDP치료기) 상담전화 02)457-2831~2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빙의령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업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따뜻한 사람 · 아름다운 세상

함께 사는 세상 열어가요

‘나눔의 집’ 1호점 문 열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AIG 생명보험 선정, 3일 현판 직원들 헌혈증 1000장 기증



AIG생명 이원주 부장(왼쪽 두번째)이 헌혈증서 1천장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현장스님(오른쪽 두번째)에게 전달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스님.이하 생명나눔)는 3월 3일 AIG생명보험 광주지점을 ‘아름다운 나눔의 집’ 1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장 스님은 인사말에서 “가장 거룩한 나눔은 생명나눔으로 보험회사가 ‘나눔의 집’운동에 동참해준 것은 뜻깊은 일이다”며 “생명보험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AIG생명 이원주 부장은 현판식에 이어 직원들이 모은 헌혈증서 1000장을 현장 스님에게 전달했다. ‘아름다운 나눔의 집’은 소아암 백혈병어린이들의 투병을 돕기 위한 홍보와 지원공간으로 단체나 기관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성금모금 △헌혈증서 모으기 △희망의 편지보내기 등을 펼친다.

나눔의 집 1호점으로 선정된 AIG생명 광주지점은 지난해부터 생명나눔에서 펼치는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날 이원주 부장은 “나눔의 집 운영을 계기로 전 직원이 생명나눔에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나눔은 올해안에 나눔의 집 30개점 개설을 목표로 단체,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생전예수재 무료로 올려드려요”

청주 흥덕사 달동네 봉사, 3월 21일 입재 5월 8일 회향, 이·미용 봉사, 무료급식 계획

“달동네 가족들에게 생전예수재를 무료로 올려드려요”

청주시 수동 디지털 법당 흥덕사(주지 정은)가 120년만에 돌아오는 갑신력 음력 2월 윤달을 맞아 3월 21일 오전 10시 수동 달동네 가족을 위한 제1회 생전예수재 입재식을 갖는다. 흥덕사 생전예수재에는 청주시 수동지역 300여세대를 비롯 전국의 달동네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접수 할 수 있다.

특히 회향날인 5월 8일(음력 3월 20일)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달동네 가족을 초청하여, 무료 이발, 미용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을 통해 보현행원 실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생전 예수재는 살아생전에 업장 및 부귀복덕을 미리 닦는 의식이다. 즉 살아생전에 49재를 미리 올리는 기도이다. 불가에서는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죄업이 소멸되고, 심신건강, 가정평화, 무병장수, 소원성취를 이루고 극락세계에서 태어나며 무상정각과 무상복덕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디지털법당 흥덕사 주지 정은 스님은 “생전 예수재를 통해 중생들의 모든 죄업 쇠멸과 선근공덕을 심어가는 발심의 계기가 되게 하고 사후에는 서방정토세계에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약접수 기간은 3월20일까지 이며, 청주시 수동 및 전국의 달농네 가족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43) 257-0807 김원우 기자


불교방송 교통 통신원.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 붙이고 ‘쌩쌩’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손보명(경기 광명시 농장 운영)씨가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있다. 손씨는 3월 통신원법회에 참가한 회원들에게 스티커를 나눠주고, 차량에 저금통도 비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도와줄께요

자원봉사 할 곳 찾아요

분당 향명성 보살이 봉사할 곳을 찾는다. 희망하는 봉사처는 용인과 분당지역 병원과 복지관이다. (031)287-8305

결연신청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독거노인 결연신청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김성곤 거사가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 후원결연을 신청했다. 김 거사는 “신문을 보고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다”며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불자 어린이 청소년을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후원신청은 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나눔의 손잡기 동참

안양 한마음선원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한마음선원 본원(주지 혜원스님)이 1차로 저금통 150개와 스티커 700개를 신청했다.

부산 반여2동 어린이집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3동 어린이집(원장 일오스님)이 저금통 330개와 스티커 300개를 요청했다. 일오스님은 “유아 때부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의 씨앗을 심어 주기 위해 동참했다”며 “학부모들에게도 나눠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 백호사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백호사(석호스님)는 저금통 5개, 스티커 10개를 보내달라고 연락했다. 석호스님은 “사찰과 신도회 간부들에게 나눠주겠다”며 “주위의 아는 사찰에도 동참을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가평 은해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은해사(주지 종남스님)는 저금통 5개와 스티커 10개를 신청했다.

● 나눔의 가게

서울 인사동 각종 보험문의
(주)케이비엘피(02-2003-5793)

논현동 신장치료전문
제일침 한의원(02-549-1275)

견지동 식료품 판매
길광슈퍼(02-735-7130)

상일동 DM발송
지산기획(02-481-2255)

청진동 중화요리
대성각(02-737-1827)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빈부격차와 실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 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23만여명의 저소득 장애인, 137만여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천여명의 미아,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캠페인과 상호 협조키로 하고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려운 이웃과 가족이 됩시다

서울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어려운 이웃과 가족이 됩시다’ 캠페인을 벌인다. 후원 물품은 미니 냉장고(50ℓ 이하) 1개, 기초 화장품(로션) 100개. (02)577-8440

‘사랑을 나누면 행복이 2배’

서울 성북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 독거노인 가정 결연’ 사업을 전개한다. 후원 방식은 결연 및 기금 후원. 결연은 매월 5천원 기탁, 기금은 경로잔치·약품 구입, 김장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물품은 생활용품, 전자제품, 의류, 식료품. 후원계좌 : 048-162860-13-204(예금주 성북노인복지관) (02)929-7950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박봉영 기자, 김철우 기자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등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을 받아갈 개인이나 가게는 연락주세요. 스티커도 함께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골수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골수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상중계 ③

주제 : 선과 깨달음

다 비우고 놓아라


대원 스님의 법문은 조계사 대웅전 뿐 아니라 앞마당을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기운이 넘쳤다.

지상 백고좌
대원 스님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주장자 세 번 내려치신 후 들어보이시고)

사부대중은 회마(會麽)? 아시겠습니까. 이 산승은 학림사 오등선원에서 한걸음 나오기 전에 이미 모든 법문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께서도 집에서 한걸음 내딛기 이전에 이미 법문을 다 들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자체도 크게 기특한 말이 못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자리에서 대중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격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 허물을 면치 못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조계사 주지 스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사부대중의 요청 때문입니다. 앉기는 앉았지만 한 글귀도 여러분에게 드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 글귀도 들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아신다면 오늘 참석하신 대중은 정말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드려야 할 말이 있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흙 바닥에서 뒹구는 꼴이 되고 오줌을 뒤집어쓰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바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부대중 가운데 바로 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위해서 이 산승이 부득불 동설수설(東說西說)이라, 동을 말하게 되고 서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거짓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과 깨달음'을 주제로 법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선'이냐. 그것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찬풍음로(餐風飮露)'라. 바람을 먹고 이슬을 마신다,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깨달음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석인정오타삼경 산고수심백화향(石人正午打三更 山高水深百花香)'이라. 돌사람이 정각 열두시에 밤 삼경의 종을 치니 산은 높고 물은 깊은데 백가지 꽃의 향기로다, 이렇게 저는 대답을 드립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좀 더 깊은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의심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원각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글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각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체중생 종종환화(一切衆生 種種幻化)가 개생여래원각묘심(皆生如來圓覺妙心)'이라 했습니다. 일체 모든 중생이 다 환화다. 모두 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생은 꿈속에 살면서 꿈인 줄 알지 못합니다. 꿈을 진실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꿈을 꿈으로 바로 본다면 그 사람은 꿈을 여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작방편(不作方便)이라. 거기에는 방편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환즉각(離幻卽覺)이라. 꿈을 여읜즉 바로 깨달은 것이라. 역무점차(亦無漸次)라. 점차가 뭡니까, 깨달음의 오십오 점차를 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삼세제불(三世諸佛)과 역대 조사와 팔만사천법문이 두두물물(頭頭物物) 모두 다 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묘심(妙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회당 선사가 답하기를 그랬습니다.

꿈속에 살면서 꿈인 줄 몰라

(주장자 한번 내려치시고)

비단 이불에다가 원앙수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놓은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수놓은 바늘은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일구(一句)에서 터득하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라 했습니다. 제 이구(二句)에서 터득하면 인천(人天)의 스승이라, 하늘세계와 인간세계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제 삼구(三句)에서 터득하면 자기도 구하기 어렵다 이랬습니다.

일구라고 해도, 이구라고 해도, 삼구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있다 없다 해도 맞지 않습니다. 중도실상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중도실상이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 표적을, 규정을 둔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세상이 이뤄지기 이전에 나는 일렀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일렀다. 또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일렀다. 또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기 전에 일렀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옳을까요. 벌써 그것은 제 이구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넉넉히 너에게 10가지를 만족하게 다 일러줬다. 그렇다 해도 좌지우지를 면치 못함이라 도리어 알겠는가? 태평세상은 본래 장군이 이루었지만 그 장군은 태평세상을 보고만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일구인고?

(스님이 조금 있다가 으~악 할하고)

게송을 이르시대

붉은 해가 하늘에 솟아오르니/ 만국의 세계가 밝고/ 구름은 스스로 높이 날고/ 물은 스스로 흐름이라.

바로 여기에서 깨달아 계합하면 참나에 여래의 지위에 들어감이라, 혹 그렇지 못할진댄 귀신굴에 떨어짐을 면치 못함이라. 팔만사천 깊은 법문이 문마다 길이 있어서 하늘 땅을 뛰어 났는데, 저 어떻게 낱낱이 밟아서 착하지 못하는고.

올바른 선지식 만나야 경계에 속지 않고 정진

어떤 것이 제 일구냐. 이 산승이 학림사 방에서 한 걸음 내딛기 이전이 일구이고, 자리에서 일보 이보를 걸어서 이 법상에 말없이 앉아있는 이것이 제 이구입니다. 어떤 것이 제 삼구냐. 이 산승이 법당에서 말을 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이 제 삼구입니다.

(주장자 한번 들어 보이고 내려치시고 이르시대)

이것은 어느 글귀에 해당합니까. 이것은 마음입니까 부처입니까. 아니면 물건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도실상(中道實相)이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요컨대 알라. 불조도 이르지 못한 곳에 문을 닫으니 꽃은 떨어지고 봄에 새는 운다.

오늘 법문은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법회라고 하니 조금 더 차원을 낮게 해서 몇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부처님 밑으로 가섭존자, 아난존자, 우바국다 존자가 있습니다. 부처님과 우바국다 존자까지 100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바국다 존자는 항상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백년 뒤에 태어나 부처님을 왜 만나 뵙지 못했나, 억울하다 이겁니다.

하루는 오늘처럼 우바국다 존자가 법회 도량에서 법문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광명 한줄기를

'묻고 답하기' 현장

구멍없는 쇠뭉치요 활활 타는 불구덩이니라

▲스님께서 법문 도중에 계송을 읊으시면서 마지막에는 꼭 아미타불을 찾으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년요괴가 몸을 벗어버리니 붉은 다리에 맨발에 머리에는 쓴 모자도 없고 한쪽 눈만 갖춘 사람이라.

▲깨치기 전과 후의 세계는 어떻게 다릅니까.

-나귀 다리는 짧고 노새 다리는 길다.

▲"수레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소를 때려야 한다"고 하지만 스님께서는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멍 없는 쇠뭉치요 활활 타는 불구덩이니라.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성종사와 (주)비엔비기업이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전자종들 가릉빈가』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및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 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문화재 원광식

● 문의처 032-772-5451
02-733-6141

●제 품 명 : 가릉빈가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맑고 웅장하게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앰프(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회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품기능 : 출력 (정격출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 변경, 알람시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INCH 3개, MP3장착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장착), 오토리버스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매시간 타종 기능(타종 횟수 조절 가능) – 알람기능 (3번 작동가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앰프 기능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저있습니다.
●소비자가 : 5,9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기타+잉체포함)
●종제작업체 : 성종사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기업

전국지사 및 판매점, 판매사원 모집 1. 초도자금 300만원 개설 가능 2. 무점포 창업가능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분 우대 www.bellkorean.com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편지
신제품 식물성 양초
실용신안특허 0293571호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저희 삼환양초에서 식물성 양초를 개발(실용신안특허)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 냄새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심하든차, 동남아 모처에서 생산하는 팜(식물성 야자열매)왁스로 양초를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내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있도록 삼환양초 가족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스님, 불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여 양초도 선별하며 사용할 때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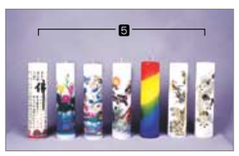
◆ 선진국 소비자들의 양초선별 방법
1. 심지가 면사로 되어있는지<국내제품 면사로 제조>
2. 원료가 식물성 인가
※ 미국, 구라파 등지에서는 콩, 옥수수 등 식물성으로 만든 양초 선별사용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 (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1 전사지양초(호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2 쌍용(용이마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3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4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5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상기제품외 모든 양초를 만드는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제품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제품설명서를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2월29일-조계사 대웅전)


연휴 기간이었지만, 감로법문을 들으려는 2천여 불자들의 신심은 발길을 조계사로 향하게 했다.

나 자신 바로 알면 영원한 행복 얻어

타고 어떤 거룩한 사람이 큰 코끼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가막힌 일이라서 사람들이 존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존자가 선정에 들어서 살펴보니 그것은 마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왕의 신통술을 제압했습니다.

그후 존자가 "그대가 마왕이라면 신통술이 있으니 부처님 모양 그대로 내 앞에 나타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마왕은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자께서 저에게 절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부처님 모양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존자가 자기도 모르게 절을 했습니다. 마왕이 "존자여 절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존자는 "제가 절을 한 것은 마왕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를 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왕은 "존자께서 이러하건데 이천년 삼천년 후 말세에 제가 부처님 몸으로 나타난다면 그 누가 속지 않겠습니까"라고 되묻습니다.

우바국다 존자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속지 않으려면 회광반조(回光反照) 하라. 전면에 나타난 것을 보는 이놈이 무엇인지 돌이켜 살펴라. 무엇인고? 하고 깊이 의심 관(觀)을 하면 모든 마구니는 머리가 깨지고 흔적조차 없어진다" 했습니다. 이~ 뭣고! 하는 곳에 속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공부는 정말 위험천만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야 합니다.

남악회양 선사 회상에 마조 선사가 있었습니다. 마조 스님이 8년동안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는 중에 남악회양 선사가 앞에 다가가서 "뭘 하느냐"하고 물었습니다. 마조 선사가 답하기를 "깨달아 부처가 되기 위해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남악회양 선사가 기왓장을 갈고 있는데 마조스님이 다시 묻기를 "기왓장을 왜 갈고 있습니까?" 남악회향 스님이 답하기를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려고 한다네." 마조 스님이 말하기를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 만든다는 말은 스님께 처음 듣습니다." "이 사람아 앉아서 부처가 된다는 말은 자네에게 처음 듣네. 앉아서 부처가 될 모양이면 산이고 바위고 다 부처가 됐겠다. 앉아서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밖에 못봤다"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조 선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남악회양 선사가 "소가 가지 않을 때는 소를 때려야 되겠느냐 수레를 때려야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옛날 어느 절에 공부 많이 한 훌륭한 조실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야 소를 때려야지"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왜 웃느냐"고 조실스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스님, 소를 때리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마조 스님이 회양 선사에게 소나 수레를 때려야 된다고 했으면 "너는 아직 안됐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조 선사는 그 한마디에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선이어서 선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빔밥처럼 모두 선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선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에는 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등이 있습니다. 범부, 외도선 등은 선이 아닙니다. 최상승선이 바로 여래선이고 조사선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편안하느냐. 이게 바로 '안심입명처(安心立命處)'라. 안심입명처는 마음이 편안함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요약하면 바로 '안심입명처'입니다.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알면, 영원한 안심입명처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극치에 달하면 한글귀 깨닫습니다. 옛날에는 법문을 한다면 백리 길도 걸어서 갔습니다. 오늘은 무슨 법문을 할까 하고 걸어서 가면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나 법문을 들으러 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가서 죽치고 앉아있으면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법문은 철저한 믿음으로 다 비워버리고 산승의 말을 듣는 동시에 몰록 여러분의 사는 자리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뒤집어져서 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새가 하늘을 높이 날으니 그 자취가 없고/ 영양이 높은 나뭇가지에 뿔을 걸고 잠을 자니/ 자취를 찾아 볼 길이 없네/ 뿔과 손을 놓으니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 전체가 드러나고/ 조각배를 탄 어부는 갈대 밭에서 잠을 잔다.

(주장자 세 번 내려치고)

어~억!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여래·조사선이 최상승선

욕망·욕심 버려야 마음에 평화



■ 대원 스님

1942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 1957년 16세에 상주 남장사로 출가했다. 윤고암 스님을 은사로, 하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수계 했으며, 20세에 하동산 스님에게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그 뒤 오대산 상원사, 도봉산 망월사, 문경 봉암사, 김룡사, 범어사,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극락암등 제방선원에서 안거하면서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을 모시고 공부를 경책 받으며 오로지 선 수행으로만 일관했다.

"법문, CD와 테이프로 보고 들으세요"

고우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동영상 CD와 테이프 등으로 다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0>



창조주 신앙 어떻게 볼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유일한 창조신을 신봉한다. 인간과 세계의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창조신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우주의 발생 기원과 신비로운 질서를 생각할 때 전지전능한 창조신에 대한 믿음을 쉽게 가지게 되기 때문에 창조주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붓다 당시에도 브라흐마라는 창조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브라흐마 신이 인간을 위시한 세계를 창조하였으므로 그에게 기도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고 각종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붓다는 이런 창조주 신앙에 대해 비판하였다.

붓다 당시 브라흐마 신은 창조신으로 스스로 존재하며 중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신으로 신앙되고 있었다. 이러한 브라흐민의 신앙에 대해 붓다는 어떻게 브라흐민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한다. 브라흐마잘라 경전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가 수축할 때 중생들은 거의 모두 극광천이라는 천상에 태어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즐거움을 음식으로 삼아 지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주가 팽창하게 되었다. 팽창하는 우주에 텅빈 브라흐마 궁전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 중생이 극광천에서 죽어 이 텅빈 브라흐마 천계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오랫동안 홀로 지내다가 다른 중생들이 이곳에 태어나 함께 지내기를 소원했다. 그때 마침 다른 중생들이 브라흐마 천계에 태어나서 처음 태어난 중생과 함께 지냈다.

처음 브라흐마 천계에 태어난 중생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나는 위대한 브라흐마이며,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과 미래에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의 아버지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나에 의해 창조된 것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만약 다른 중생들이 이곳에 태어나라고 하는 나의 소원에 따라 이들 중생들은 태어나게 된 것이다." 뒤에 태어난 중생들도 이미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중생을 그의 주장처럼 생각했다. 어떤 중생이 브라흐마 천계에서 인간계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는 성장하여 출가 수행하였다. 선정 수행의 결과로 그는 자신의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브라흐마 천계에서의 생애만 볼 수 있었고 그 이전의 생애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저 브리흐마가 우리를 만들었고, 그는 불변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에 의해 창조된 우리는 무상하며, 수명이 짧아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브라흐민들이 어떻게 브라흐마를 창조신으로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브라흐마 천계에 존재하는 중생들은 브라흐마 천계에 제일 먼저 온 자를 창조자로 그릇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오해의 발생은 제일 먼저 태어난 자가 홀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다른 중생들의 출생을 바라고 있을 때 마침 극광천에서 수명과 복을 다한 중생이 태어나게 됨으로서 자신이 다른 중생들을 창조했다고 믿게 된 것이다. 만약 브라흐마 천계에 태어난 중생이나 인간계에 태어난 중생이 극광천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브라흐마를 창조자로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계발되었다면 브라흐마를 우주의 창조자로 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붓다는 인격신의 전능(全能)이라는 속성을 부정한다. 전능이란 일어난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을 제어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브라흐마의 전능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이 전면 부정되는 것이다. "살인자들은 살인을 하도록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 마찬가지로 도둑놈도, 음탕한 자도, 사기꾼도, 험담자도, 꾸짖는 자도, 어리석게 말하는 자도, 악의를 품고 있는 자도, 미워하는 자도, 사견을 가진 자도, 누구든지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창조되어진 것이다."

붓다, 인격신의 전지전능한 힘 부정
인간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 중시

만약 모든 것이 신에 의해 계획되고 창조되었다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상벌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악인은 항상 자신의 악행을 신의 의지로 돌리고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며 처벌을 외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악한 일을 하도록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만약 묻는다면 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신의 창조 능력에 그 책임을 돌리면 종교적 노력이나 수행은 무의미하게 된다. 붓다는 지금 감수하는 행복과 불행이 모두 과거의 업에 기인한다는 숙명론이나 모든 것은 원인 없이 우연히 발생한다는 무인론(無因論)과 마찬가지로 창조론도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을 부정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과(경주)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누구나 길을 찾아 원하는 삶을 열어준다.**

◈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요의 평원 속으로 이끌어 준다.**

◈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프라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가진 것은 잃게 되고** 베푼 것은 남듯이 내가 클 수록 장애가 심하고 내가 작을 수록 세상이 가벼운 것. 간. 쓸개 빼고 살면 부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속을 텅 비우면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선밀공.프라나호흡.프라나 동작.36장 관조 ·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 문 열 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3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 고추전구, 인지전구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윌라멘트가 6배(특 윌라멘트)로 밝이 윌등이 밝고 멀면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공부+즐거움' 문화탐험 떠나볼까


목아 박물관.

찬바람이 누그러지고 따스한 햇살이 창틀에 내려앉는 요즘,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가까운 이색박물관과 유적지로 문화탐방을 떠나보면 어떨까. 이국의 토우와 토기, 미술작품과 민속공예품 등 신기한 볼거리로 가득한 고양시의 중남미문화원 병설박물관부터 우리 조상들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경기도 양주군의 청암민속박물관, 불교예술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여주의 목아불교박물관, 전북 고창의 구시포 해수욕장과 고인돌 군락지 등.

이색 박물관·유적지 등 볼거리 풍성한 곳 많아 아이들과 봄나들이 '딱'


토암도자기공원 입구 모습.

● **중남미문화원 병설박물관**


중남미문화원 병설박물관 앞에 놓인 '히스패닉계 여인' 조상.

수년간 중남미권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이복현 원장의 수집품 토기, 석기, 목기, 가면, 민속공예품 등이 가득한 곳. 이외의 인디오 악기와 마구 등을 전시한 민속공예관과 중남미 예술가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야외조각공원 등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031)962-9291

● **청암민속박물관**

장독과 물레방아, 맷돌 등 기성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물건들이 가득한 곳. 아이들에게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농기구들과 호롱불, 삼태기 등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031)855-5220

● **목아불교박물관**

우리나라 불교전통 목공예와 불교미술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 매년 기획전시와 아울러 문화함양을 위한 박물관 문화학교인 전통불교 문화강좌 등이 불교예술의 이해를 돕는다. 떠나기 전 인간문화재 박찬수 씨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홈페이지(www.moka.or.kr)를 들려보는 것은 필수. (031)885-9952

● **구시포 해수월드와 고인돌 군락지**

먼저 해수찜으로 가족의 건강관리도 하고 사랑도 확인. 그 다음엔 선운사, 미당 시문학관, 판소리박물관 등 고창의 명소를 둘러본다. 마지막 코스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양 최대의 고인돌군(447개).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손색이 없다. (063)560-2227

● **토암도자기공원**

토암 서타원 선생의 예술혼이 형상화된 공원. 귀도 없고 머리도 바닥도 열려있는 2002개의 토우들을 보고 있자면, 모든 욕심과 고민을 저절로 내려놓게 된다. 여기에다 산속이 아닌 동해 바닷가에 위치한 용궁사를 찾으면, 산속 밖 사찰의 또 다른 정취를 맛볼 수 있어 금상첨화. (051)721-2231

● **강화 석모도**

서울과 가까워 섬이란 느낌은 덜하지만, 아름다운 노을과 갈매기 떼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곳. 불교의 3대 관음도량으로 유명한 보문사와 마애관음보살상 등은 여행의 의미를 더해주기에 손색이 없다. (032)930-3623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큐레이터와 '전통 명품' 세계로

국립박물관 3~10월 토요일 명품감상 진행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청소년들이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된 문화재들을 살펴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이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33회에 걸쳐 '박물관 토요 명품감상-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감상회는 고려자기, 불교조각, 분청사기, 조선백자, 금속공예, 회화, 서예, 목칠공예, 석조미술 중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을 선정, 1일 1전시실별로 5~10점에 대한 집중 감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고고학 및 미술사학 등 박물관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통역안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작품에 담긴 예술성, 시대적 배경과 사상 등을 소개하며, 문화재에 대한 이해는 물론 관객과 대화할 수 있는 열린 장으로 이끈다.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 2층 안내데스크 앞으로 오면 동참할 수 있다. (02)398-5133

고구려 역사 특강

12·17일 정토회관서

(사)좋은벗들이 '찬란했던 역사-고구려를 다시 찾아서'라는 역사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한·중·일 간 영토와 역사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3국의 역사 갈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강은 3월 12, 17일 오후 7시 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다. 12일에는 서길수 고구려연구회 대표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배경과 이후 전망', 17일에는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조성렬 선임연구원의 '한, 중, 일 역사전쟁과 동북아 평화공존'이 강연된다. (02)587-8996

매화향 가득한 섬진강으로 오세요

전남 광양서 12~22일 매화축제


매화마을에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

"매화 향기 가득한 섬진강으로 오세요."

국내 최대 매화 군락지인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이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매화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봄꽃축제로 매실 세계화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행사와 함께 풍성하게 치러진다.

행사는 첫날 전국노래자랑을 시작으로, 국제매실심포지엄과 매실 세계화의 밤 행사로 막이 오른다. 이튿날부터는 매화솟대세우기 등의 의식행사와 대형매화그리기, 연날리기 등의 꽃놀음, 사자춤 등의 들놀음과 토우만들기 등의 길놀음, 사물놀이, 퓨전풍물놀이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 14일에는 매화축제기념 페러글라이딩 대회와 어린이·청소년들의 끼를 겨루는 한마음 대제전, 16일에는 예술단의 화관무·사랑무 공연, 17일에는 청학동 김봉곤 훈장과 함께하는 제3회 매화사생대회, 20일에는 매화퀴즈대탐험과 매화골 장기자랑, 21일에는 매화촬영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매화마을과 섬진강변 곳곳에서 진행된다. (061)797-2607

케이블 TV 푸드채널, 웰빙 전문 프로 선보여


푸드채널 '테이스트 유어 라이프'의 한 장면

케이블·위성 요리전문 채널 푸드체널은 3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테이스트 유어 라이프(Taste your life)'를 방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어 트렌드(Your Trend)', '유어하우스(Your House)', '유어 키친(Your Kitchen)'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는 웰빙전문 프로그램이다.

오는 11일 방송에서는 봄맞이 주방 인테리어 법을 비롯해 최근 코엑스에서 열린 '2004 프랜차이즈 서울 Spring' 현장을 찾아간다. 또 오염방지와 공기정화의 효과 가 있는 신개념 건축재 광촉매와 숯을 이용한 건강주택을 살펴본다.

20면 상식 퍼즐 정답

만	세		산		강		하	사
수	종	공	신		냉	수	마	찰
	대		각	설	이		터	
천	왕	문		탕		사	면	체
		하	수		교	리		
고	학	생		직		불	제	자
	수		교	무	실		아	
고	고	학	과		무	념	무	상
교	대		서		자		리	오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06:05 불교강좌
09:05 차한잔의 선율
14:05 국악발견
17:00 무명을 밝히고
20:05 다시듣고 싶은 노래
24:00 살며 생각하며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Btn 불교TV <ch 32>

10일 08:30 열린마당
11일 12:00 향토음식기행
12일 09:10 차문화 산책
13일 12:40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4편
14일 21:35 외국인스님의 영어법문
15일 15:25 화엄경 강의
16일 17:25 자비의 천수천안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김용우의 국악발견(3월 14일 14:05~14:45)- 전통국악과 창작국악을 들어보고 우리민요를 직접 배워보는 프로그램. 이 날 방송은 새로운 국악의 흐름과 국악신보를 감상하는 '새바람 국악이야기'와 경기민요를 배우는 '우리가락 따라잡기'로 꾸며진다.

■**불교텔레비전**: 외국인스님의 영어법문(3월 14일 21:35~22:20)- 3월 둘째 주 방송되는 '외국인스님의 영어법문' 시간에는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무심 스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의 참모습은 무엇이며, 또 어떤 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진정한 행복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황토목베개



목뼈를 부드럽게 받쳐주고 편한 자세를 유지시켜 목근육의 경직을 방지하는 제품. 목베개를 감싼 천연 황토염색천은 습도조절, 온도유지, 전자파흡수, 원적외선방출효과 등이 탁월해 특히 환자와 노인들에게 좋다. 크기 37cm×31cm 겉지: 황토염색천 100% 베개속: 녹차와 한약재 100% 1개 3만원, 2개 1세트 5만 8천원. (02)732-1520

극장가



아웃 오브 타임(Out of Time) / 스릴러 / 105분
개봉예정일: 3월 12일
감독: 칼 프랭클린
출연: 덴젤 워싱턴, 에바 멘데스, 산나 라단 등
플로리다 작은 마을의 보안관 매트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인물. 그러나 어느 날 방화사건이 일어나면서 매트는 용의자로 지목되고, 혐의를 벗기 위해 직접 증거확보에 나선다. 스릴러 특유의 반전은 다소 약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는 짜임새 있고 긴장감이 넘친다.



모나리자 스마일(Mona Lisa Smile) / 드라마 / 117분
개봉예정일: 3월 19일
감독: 마이크 뉴웰
출연: 줄리아 로버츠, 커스틴 더스트, 줄리아 스타일즈 등
1950년대 사회적 여성의 지위가 바뀌기 시작하던 미국을 배경으로 한 여성관객을 위한 드라마. 자유분방한 캐서린 왓슨은 보수적인 명문 웰레슬리 여대에 단기 강사직을 맡게 된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진취적인 여성상을 가르치고 싶지만 학교에서는 전통적인 여성덕목만을 강조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서서히 캐서린의 주장에 감화되기 시작한다.



고독이 몸부림칠 때 / 코미디
개봉예정일: 3월 19일
감독: 이수인
출연: 주현, 송재호, 양택조, 선우용녀 등
중견 배우들이 노년의 로맨스를 이야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기존 영화에서 지겨우리만치 반복된 젊은이들의 사랑이야기가 아닌 머리가 희끗한 노년의 진솔한 사랑과 삶이 담긴 영화. 관객에게는 박장대소보다 입가에 오래 머물 미소를 선사할 것이다.

게시판

공부합시다

춤명상 워크숍 정신세계원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여분 동안 춤명상 워크숍을 진행한다. 매주 다른 느낌의 음악과 명상법을 통해, 자연치유력을 높이고 자의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춤명상 워크숍은 누구든지 참가 가능하다. 일일참가비 2만 5천원. 회원은 2만원. (02)747-7033

차(茶)수행 강좌 남양주 봉인사(www.bonginsa.net)가 지운 스님(전 송광사 강주)의 지도로 자비수관(慈悲手觀) 수련과 차(茶)수행법 강의를 진행한다. 자비수관 수련은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간, 차수행법 강의는 14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된다. 수강료는 각각 18만원, 4만원. (031) 574-5585

전통사찰음식 강좌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는 3월 13일부터 제 44기 전통사찰음식 정기강좌를 진행한다. 사찰음식의 유래와 특징 등 이론수업과 요리실습 등 매주 토요일 주1회 수업으로 총 13주 동안 진행된다. (02)355-5961

사찰에서 영어회화 봉선사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100여분동안 봉선사 경내에서 스님 및 신도들을 위한 기초영어회화 강의를 실시한다. 경희대학원 세바스티안 학생 등 다수의 외국인이 강의를 나눠 진행할 예정. (031)527-1951

우리 역사 바로알기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가 3월 12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에서 '7세기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신라의 삼국통일 전략'을 주제로 제24회 신라문화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당시의 주변정세와 통일전략문제, 그리고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층 연구하게 될 이번 학술대회는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054)770-2502

중국어 동아리반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새봄을 맞아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중국어동아리반을 운영한다. 17일부터는 전통민화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연령외의 참가제한은 없으며, 단 선착순 마감. (02)385-1351

어린이 영어법회 화계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 8시 30분부터 화계사 어린이방에서 무료 영어교실을 운영한다. 국제선원 범현 스님 및 외국인 스님들과 함께 영어로 부처님법을 배워보는 시간.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다. (02)900-4326

주말만화교실 부천만화정보센터가 3월 18일까지 만화가를 꿈꾸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만화교실'을 7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날 진행한다. 선, 인체, 정물, 캐리커쳐 그리기와 스토리 만들기 등 만화에 대한 탄탄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기회. (032)614-3745

함께 해요

청소년문화페스티벌 인천청소년문화사업단이 청소년문화페스티벌을 3월 20일 오후 2시 인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장기자랑, 청소년동아리 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및 청소년인터넷유해환경, 왕따,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도 진행된다. (032)434-5711~2

가족과 함께 영화를 국립중앙박물관이 3월 14일 오후 2시 사회교육관 강당에서 가족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우수 다큐멘터리 '이집트-파라오의 비밀'을 상영한다. 상영전 20분전부터 선착순 240명에 한에 입장 가능하며, 영화 상영후에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도 증정한다. (02)398-5079

북한동포들과 체육대회 좋은벗들이 북한동포와 함께하는 '새봄맞이 좋은이웃 체육대회'를 3월 14일 오전 9시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한다. 북한동포축구단 등이 참가하는 행사는 축구, 피구, 족구, 장애물달리기, 이어달리기, 2004통일체육축전 준비위원회 결성식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나 도움을 줄 개인 및 단체는 좋은벗들로 연락하면 된다. (02)587-8996

치매어르신과 함께 하는 작품전 불교사회복지회는 치매어르신과 함께하는 '자비의 작품전' 준비를 위해 동양화, 서양화, 공예품, 전각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을 후원받고 있다. 작품전은 3월 말경 대구 노인전문요양시설 여래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053)476-6631

나만의 선물포장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이 3월 11일~12일 '나만의 선물포장' 단기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15일~19일까지는 건강 발맛사지에 대한 강의도 진행한다. (051)868-0750

창업특강 수요창업멘토링 부천시 여성회관이 '준비하기, 창업하기, 성공하기'라는 주제의 '2004 테마별 창업특강, 수요창업멘토링'을 17일 복사골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수요창업멘토링은 멘토(mentor)개념을 활용해 완벽하고 철저한 창업 준비과정 등을 소개한다. (032)326-6923

청소년 동아리활동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동아리활동과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3월부터 4월 초까지 영상동아리단 '8m 세상이야기', 홈페이지 제작활동 동아리 '홈피천하'의 새내기를 모집한다. 부산 사하구 지역 내 중학생이면 모두 참가 가능하다. 단 선착순 마감. (054)263-9033

상담 자원봉사자 불교상담개발원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불우한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상담 자원봉사자를 양성한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 저녁 7시 서울노인복지센터 시청각실에서 진행될 기초 상담교육과정에 수강을 원하는 이는 3월 27일까지 불교상담개발원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수강료 30만원. (02)737-8803

동물과 함께해요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www.childrenpark.or.kr)이 3월 31일까지 '에코스쿨'을 운영하고 동물생태 영상학습, 먹이 주기 체험행사 등을 진행한다. 참가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참가비는 가족(4인 이하)당 2만원. (02)450-9381

영화의 비밀을 밝혀라! 63빌딩(www.63city.co.kr)이 '아이맥스' 영화의 비밀을 직접 체험하고 배워볼 수 있는 '빅스크린 빅체험' 이벤트를 3월 매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영사실 견학과 함께 전문 영사기사로부터 아이맥스영화의 영사시스템과 음향시스템 등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789-5663

즐겁게 떠나요

3월 가족 체험단 한국관광공사(www.visitkorea.or.kr)가 '남도 봄맞이 삼색체험'으로 전북 고창의 청보리밭과 선운사의 붉은 동백꽃, 전남 영광의 파란 바다를 돌아보는 고인돌 탐방과 우도 농악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3월 20일~21일, 27일~2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참가비의 30%는 관광공사가 지원한다. 성인 7만원, 어린이 5만 6천원.

해남 땅끝마을 온라인투어(www.onlietour.co.kr)가 3월 12~13일 해남 땅끝마을과 보길도, 보해 매실농장으로 테마여행을 떠난다. 땅끝에서 보는 남해안의 일출과 보길도의 고산정원 세연정이 여행의 묘미를 선사한다. 성인 6만 8천원, 어린이 5만 8천원. (02)511-6769

쌉싸름한 봄나물로 입맛 확~ 잡아라

매일 가족들의 건강과 입맛을 걱정하는 주부들. 특히 봄철이 되면 입안이 깔깔해지는 탓에 주부들의 반찬고민은 커진다. 그렇다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 자극적인 재료로 요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봄철 식탁 위의 마법사라 할 수 있는 나물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 몸은 봄이 오면 활동기에 접어들어 각종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 봄나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무기질 등 이 시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 나물 각각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유지하고 본래 맛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사찰식 나물 요리법이 안성맞춤이다.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장 적문 스님이 추천한 봄 나물 요리법을 살펴보자.

사찰식 봄나물 조리법



머위대 나물

재료: 머위대 300g, 들깨즙 1컵, 소금 1큰술, 들기름 2큰술, 깨소금 1큰술

① 머위대를 삶은 뒤 껍질을 벗기고 3~4cm로 손질해서 찬물에 5~6시간 담가둔다.

②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달궈 손질한 머위대를 넣고 중불에서 서서히 볶는다.

③ 볶다가 소금 간을 한 뒤 들깨즙을 넣어 한소끔 끓은 뒤 식힌다.

④ 깨소금을 넣고 무친다.

※ 머위대는 통통하고 싱싱한 것으로 고른다.



원추리나물 무침

재료: 원추리 300g,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깨소금 1작은술

① 원추리를 깨끗이 다듬어 씻는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살찬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낸다.

② 고추장,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등의 양념을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③ 데친 원추리를 그릇에 살살 펴서 담은 뒤 ②번 양념장을 넣어 고루 무친다.

※기호에 따라 식초와 설탕을 넣어도 좋다.

산취나물 들깨무침

재료: 산취나물 200g, 볶은 들깨소금 1큰술, 된장 1큰술, 들기름 1큰술, 참깨소금 1큰술, 청장약간

① 취나물은 적당한 크기로 손질해서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서 찬물에 헹궈 꼭 짠다.

② 된장, 들깨소금, 들기름, 청장, 참깨소금을 넣어 양념한 뒤 손질한 취나물을 넣고 무친다.



고소 겉절이

재료: 고소 200g, 청장 1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통깨 1작은술, 식초약간

① 고소는 적당한 크기로 손질한 뒤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② 청장, 고춧가루, 식초, 통깨를 넣어 양념을 만든 뒤 고소를 넣고 살짝 버무린다.

※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도 없어지고 고기 맛을 담백하게 한다.



주부들이 적문 스님으로부터 봄나물 요리법 등 사찰요리 강의를 듣고 있다.

돌미나리 무침

재료: 돌미나리 200g, 배 8분의 1쪽, 잣가루, 초고추장

① 돌미나리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② 지저분한 잎과 밑동을 잘라낸 뒤 3cm 길이로 채 썬다.

③ 배는 껍질을 벗겨 2cm 길이로 채 썬다

④ ②, ③를 초고추장에 골고루 버무린다.

※ 초고추장 만들기: 고추장 1큰술, 물엿 2큰술, 통깨 1작은술, 식초 1큰술, 잣가루 1작은술



시금치 생절이

재료: 시금치 300g, 고춧가루 1작은술, 진간장 1작은술, 참깨 1작은술, 식초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① 시금치는 연한 것을 선택해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서 물기를 뺀다.

② 고춧가루, 고추장, 진간장, 식초, 참깨, 참기름을 넣고 양념장을 만든다.

③ ②에 손질한 시금치를 넣고 무친다.

통도라지 볶음

재료: 통도라지 300g, 들깨가루 3큰술, 소금 1큰술, 들기름 1큰술

① 도라지는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식힌다. 4~5cm 길이로 굵게 썰어 손질한다.

②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볶다가 소금간 한다.

③ ②에 들깨가루를 넣고 물을 여유있게 부어 중불에서 서서히 끓인다.



두릅밀전병 무침

재료: 두릅 200g, 밀가루 2분의 1컵, 소금 약간, 식용유 약간, 물 4분의 1컵, 고춧가루 1작은술, 청장 1작은술, 참깨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① 두릅은 깨끗이 씻어 굵은 것은 밑동에 + 자로 칼집을 넣는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은 뒤 데쳐서 물기를 뺀다.

② 밀가루에 물, 식용유, 소금을 약간씩 넣고 오래 저어 끈기가 나도록 걸쭉하게 반죽한다.

③ 팬을 달궈 기름을 살짝 두른 뒤 밀전병을 얇게 부쳐서 차게 식힌다. 식힌 밀전병을 가로 1cm, 세로 4cm 길이로 자른다.

④ 넓은 그릇에 두릅과 밀전병을 넣고 고춧가루, 청장, 참깨, 참기름으로 무친다.

※ 두릅은 일반 나물류보다 오래 삶는 것이 좋다. 두릅은 덜 삶아지면 파랗고 싱싱한 빛깔을 띠지 않고 까맣게 변하기 때문.



애쑥 튀김

재료: 애쑥 200g, 밀가루 2분의 1컵, 녹말가루 2분의 1컵, 물 3분의 2컵, 양념장(진간장 1큰술, 식초 조금, 통깨 1작은술)

① 애쑥은 깨끗이 다듬어 씻어 물기를 빼고 밀가루를 얇게 묻힌다.

② 밀가루와 녹말가루를 찬물로 반죽해 튀김옷을 만들어 놓는다.

③ 쑥을 하나씩 잡고 튀김옷을 얇게 골고루 묻힌다.

④ 엉키지 않게 살살 털어가며 140~150°C의 끓는 기름에 튀겨낸다.

※ 튀김옷을 입힐 때는 쑥을 조금씩 넣도록 한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현장에서 만난 우바이

한성대 의생활학부 이기향 교수



"저의 '근기'는 의상 작품들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시각화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라만상의 진리를 담은 불법이 저에게는 무한한 컨텐츠가 될 것이니 슬럼프나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제 작품이 대중의 가슴에도 불법의 메시지를 심어줄 수만 있다면 무엇을 더 서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인터뷰의 서두를 연 이기향 교수(49 · 한성대 의생활학부)에게서는 불자로서의 긍지와 의상예술 작가로서의 자신감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자만심과는 분명히 다른, 자신의 작품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일상에서 불법을 깨달아가는 참 불자의 환희심이었다.

이 교수가 원래부터 신심이 돈독했던 건 아니다. 그가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남편인 유필화 교수(성균관대 경영학부)의 영향이 컸다.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를 집필한 바 있는 유 교수는 훌륭한 도반으로서 이 교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불교적 영감을 불어넣어준다. 남편의 후원을 발판으로 이 교수 또한 지난 2002년 국제포교사 자격증을 따는 등 활발히 신행활동을 해오고 있다.

옷에 불교담아 세계로…

국제포교사로 한국불교 알리기 '열성'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침반 삼아 자신 있게 작품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이 교수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본 등지에서 유학까지 하고 1989년 한국에 돌아왔지만 그에게 쉽게 기회를 주는 곳은 없었다. 의상을 하기 위해 국내 대학원 시험에 응시해 낙방했고, 이후 교수에 임용되기까지 몇 번의 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장애가 오히려 저 자신을 반성하도록 하는 스승이 됐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부처를 바라보듯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후 이 교수는 1999년 열린 '영취산의 환희', 2003년 '화(華)' 등 불교적 주제로 의상전시회를 여는 등 작품을 통해 그만의 독특한 색채와 실루엣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아왔다. 이 교수의 작품들은 불교를 직접적으로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의상 자체가 지닌 조화로써 관객에게 감동과 찬사를 이끌어 냈다.

그는 요즘 지난 해 '화(華)'에서 선보였던 작품과 각 의상의 디테일, 작업 뒷이야기 등을 담은 DVD의 마무리 작업으로 바쁘다. 4월경 제작이 완료되면 영국, 미국, 일본 등지의 아시아 관련 박물관과 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그의 DVD가 의상예술 자료로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문화,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내년에 돌아오는 연구년을 맞아 해외 학계와의 교류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이 교수는 세계무대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무대에서 의상을 통해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한상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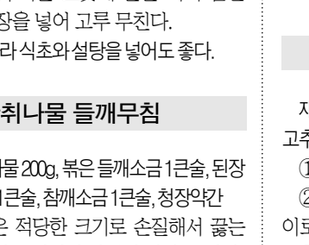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 2기 불교의식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3월초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 합니다.

과 정

㉮ 초급반 (3개월)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기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

㉯ 중급반 (3개월)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시다림법, 점안의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 작법반 (6개월)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
천수바라, 다게작법,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 고급반 (6개월) :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희망자 소수)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 · 범패 의식교육원 · 정토사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한국 불교범음범패 대학원 제2기

수강생 모집

◆개 강 : 4월 초

◆수강요일 : 매주 수, 목 4시 ~ 6시까지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을 수료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과 정

▶ 초급과정(3개월) : 사물(목탁,요령, 징, 북)다루는 법.
도량석,쇳송,각단예불,관음기도법 등

▶ 중급과정(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기초범음범패)

▶ 대입과정(6개월) :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각종어산(범음범패), 49재

▶ 특 수 반 :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연 락 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77-54번지
011-849-0961, 051-554-1518

한국불교의식대학원 원광사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3월의 꽃샘추위 속에서도 봄소식이 전해지는 요즘, 남도에서는 갖가지 들꽃은 물론 동백, 매화, 산수유, 개나리 등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향긋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찻자리에도 꽃 한 송이를 올려 봄기운을 만끽해보자.





화사한 봄 찻자리 꽃이 있어 더 좋아라



사진제공=허충순 <한국의 다석화>
담원 김창배 화백.

<한국의 다석화(茶席花)>를 펴낸 부산꽃예술연합회 허충순 회장은 "그동안 찻자리 꽃이라고 하면 무조건 일본 다도문화에서 들여온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남긴 시와 그림을 보면 차를 마시며 꽃을 감상한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일례로 조선 영조 때인 18세기 유중림이 쓴 <증보산림경제>에서 '가정에 준비해 두어야 할 기구들' 중 '재실(齋室)안에 있어야 할 기구들'에 '꽃병(花甁), 약연(藥硏), 다관(茶罐), 다종(茶鐘)'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허 회장은 "중국 명나라 원굉도(袁宏道)는 '차를 곁들여 꽃을 감상하는 것은 최상이고, 이야기를 곁들여 꽃을 감상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술을 곁들여 꽃을 감상하는 것은 최하이다'고 말했다"며 "그만큼 찻자리의 꽃은 조형미 뿐만 아니라 차의 정신과도 부합한다"고 말한다.

찻자리 꽃 일본유래로 오해
탕례, 다례와 함께 중요한 위치
"조선시대 사찰문화의 근간"

한국차학회 김명배 고문 역시 "다도 수련에서 찻자리에 꽃을 꾸미는 일은 향 사르기, 탕례(湯禮), 다례(茶禮)와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소설가 정동주 씨는 자신의 저서 <한국 차살림>에서 "일본 초암차의 특징 중 하나인 꽃꽂이는 조선시대 사찰 문화를 근간으로 성립된 것이다"며 "초암차 선구자들이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대나무 꽃병, 넝쿨식물의 줄기를 이용한 꽃병 등을 직접 만들어 쓴 것은 모두 청빈한 조선 사찰 수행자와 서민들의 생활에서 발견해낸 것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찻자리 꽃은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 찻자리 꽃은 크게 병화(甁花)와 분화(盆花)로 나뉜다.

꽃병으로는 동병(銅甁), 은병(銀甁), 옥병(玉甁), 유리병 등이 있는데 봄과 겨울에는 구리 그릇을, 여름과 가을에는 자기를 쓴다. 꽃병은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고 매화나 모란, 봉선화, 작약, 국화, 치자 등을 꽂는 것이 적당하다. 다만 국화꽃을 꽂을 때는 홀수가 되도록 하고 여러 색을 섞기보다는 한 가지 빛깔로 장식하는 것이 좋다.

화병 계절따라 재질 다양
매화, 모란, 국화 등이 적당
다실 정서 고려 강한 좁 자제

꽃나무를 화분에 심는 분화는 오지그릇(도기)과 사기그릇, 질그릇, 돌그릇, 옥그릇 등에 매화와 동백꽃, 수선화, 석창포, 월계화, 파초, 난초, 연 등을 주로 가꾼다. 화분은 반드시 그늘과 볕이 번갈아 드는 곳에 두어야 한다.

꽃그릇을 고를 때는 모양이 안정되고 앉히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꽃의 빛깔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 또 내구성이 좋고 식물의 생리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값싸고 구하기 쉬운 것으로 선택한다.

차실의 꽃꽂이는 인공적인 조형을 최대한 억제하고, 꽃의 종류는 한두 가지로 단순화하여 부담 없이 차실의 분위기를 꾸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차문화협회 장문자 이사는 "찻자리 꽃은 꽃을 꺾어 인위적으로 기교를 배합하는 '꽃꽂이' 과정에서 차실의 정서가 훼손되는 경우가 잦다"며 "조금이라도 더 차실의 정서에 접근하고 차의 정신과 접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배분(栽培盆)을 그대로 찻자리 꽃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다만 꽃색이 너무 원색일 경우 조용해야 할 찻자리 정서에 어울리지 않고 가시가 있거나 잎이 너무 큰 야생화는 실내의 공간 균형을 깨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꽃향이 너무 강하면 차향(茶香)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수령 기자



우리 사찰 모임 — 통도사 선다회

헌다의 자부심 봉사활동으로 회향

우리 차문화 전통을 이어온 사찰에는 일찍이 스님과 신도가 함께하는 차 모임이 꾸려져 왔다. 수행의 방편으로써 뿐만 아니라 사찰행사 참여를 통한 결속 강화와 포교활동 등에 앞장서고 있는 사찰 차모임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3월 2일 통도사(주지 현문) 대웅전에는 꽃이 피었다. 통도사선다(禪茶)회 12기 수료식이 열린 이날 법당을 수놓은 꽃은 다름 아닌 선다회 회원들. 꽃보다 고운 빛깔의 한복으로 단장한 회원들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보궁을 향해 육법공양을 올렸다. 이날의 헌다는 1년 기초과정을 수료한 초보 다인들의 떨리는 손길이 그 엄숙함을 더했다.



40여 사범회 회원 다회 주축
부도헌다 등 의식과 이론 정립
고증 거쳐 사찰문화로 정착

특히 이날 수료식 2부 행사로 설법전 아래 법당에서는 오행다례 시연이 열렸다. 헌다, 진다, 끽다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시연은 음악, 그림, 꽃이 한데 어우러져 팽주, 손님, 이를 지켜보던 관객 모두를 다도의 세계로 몰입시켰다.

선다회 회원은 사범회, 학생회를 모두 합쳐 90여명. 그 중에서도 40여명의 사범회 회원들이 선다회의 주축이다. 사범회는 4년 과정을 수료한 다인들이 별도 모임을 만들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 더욱 깊이 있는 다도 공부를 이어가는 모임이다. 특히 사범회내에는 20여명의 교육부를 두고 류용숙 사범회 회장을 비롯 안귀순, 강선자 회원 등이 직접 강의를 맡아 진행한다. 역량있는 선배 강사진과 더불어 보궁헌다, 부도헌다 등의 의식과 이론을 정립했다는 자부심은 선다회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1990년 2월 승가대학 중강이던 범해스님을 법사로 선다회를 창립한 이후 고증을 거쳐 사찰 헌다 의식을 정립해 나갔다. 처음엔 생소하기만 했던 사찰 다도를 제사, 법회 등에서 일반적인 사찰문화로 정착시키며 사찰 헌다 문화를 선도해왔다.

이 같은 회원들의 자부심은 차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더 크게 회향되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 보살계 수계산림, 개산대재 등에 빠짐없이 차공양을 올리고 있다.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에는 통도사를 방문한 월드컵 조직위원들에게 한국 다도의 멋과 맛을 선사해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일년동안 선다회가 헌다를 하는 행사만도 대략 30여 차례에 이르니 통도사에선 없어서는 안될 신행단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부처님께로, 또 선의 세계로 한 걸음 다가서고자 했던 통도사선다회 회원들의 발원은 이렇게 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천미희 기자

인터뷰 — 류용숙 회장

조다행사, 행다실기 등 알찬교육



"차는 나와 부처님을 이어주는 매개이며 수행과 포교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차의 세계로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선다회 사범회 류용숙(54) 회장은 회원들 모두가 '찻물이 흠뻑 든 다인'이라고 자랑했다. 조다행사, 다도학 이론, 불교교리강좌, 다도고전 강의, 행다실기, 찻자리꽃, 다식만들기 등의 알찬 교과과정을 통해 차에 매료돼 10년을 훌쩍 넘긴 회원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선다회는 지회 설립을 추진중이다. 류회장은 "지금 부산에서 활동중인 사찰 다도회와 다인들 대부분이 선다회 출신이 많아 지회를 원하는 이들이 많다"며 "지역별 지회를 설립하고 활성화시켜 사찰 다도 문화 정착과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수의 가격표

상품명	재질(성분)	원사가공지	판매가격
국화1호	삼베100%	경북안동지역	1,515,000
국화2호	삼베100%	강원일부지역	1,395,000
국화5호	삼베100%	경남남해지방	1,249,000
국화7호	삼베100%	충남서천,홍성지방	950,000
특 1호	삼베100%	중 국	670,000
보성삼베	대마+저마	전남보성지방	1,450,000
남해삼베	삼베100%	경북남해지방	2,345,000
안동삼베	삼베100%	경북안동지방	4,300,000

윤달 3월 21~4월 20일 원하시는 날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 주문 받습니다.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세시풍속 <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금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입혀드린 후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품직의 수의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적정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런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3) 금번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올한올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 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하여야 매장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요.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孝 대광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

태초가 무엇인가요?

문 주위에서 '태초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 설왕설래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비 분별 하는 우리의 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듯 삶이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엉망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소견을 넓혀주십시오.

답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타의의 이름이나 형상을 보고서 기도하고 비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정말로 지나야 되고요. 종교라는 건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형상과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도 둘이 아니고 생명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하다는 겁니다. 처음 발심해서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방편으로 모셔 놓고 '당신하고 둘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될 텐데,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전부 이름과 형상을 믿으라고 하고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안 된다면 지금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여러분한테는 한 번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자재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남한테 만날 빌어야만 하니까, 얻어먹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얻어먹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람, 흙, 먼지, 물이 한데 합쳐져서 자꾸자꾸 모여 보세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따뜻한 온기가 나오겠죠? 그게 불입니다. 생명! 태초에 생기는 생명입니다. 그게 가공이 돼 있기 때문에 따뜻해진 거죠. 그러니깐 거기에서 생명체가 생긴 겁니다. 근데 다 생기고 나서 제일 나중에 생긴 게 사람입니다. 왜냐. 미생물로 생겨서 그 미생물이 형성되고 진화되고, 진화되고 형성되다 보니까 제일 나중에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 가지 배울 게, 미생물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일 때에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고,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이렇게 진화돼서 사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넓게 보면 전부 내 아버지 아님이 없고 내 어머니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깐 계율에서 첫째 살생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두가 전자에 내가 사람이 되기 이전에 나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으니까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전자에 미련했을 때의 못났던 그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두 자기 아님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자기한테 스스로,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서 스스로 인정을 받고 스스로 '착하구나, 착하구나. 참 너는 정말이지 착하구나.' 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먹게 되고 스스로 살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는 지수화풍입니다. 사람만 지수화풍으로 된 게 아니죠. 미생물에서부터 쭉 인간까지 전부가 지수화풍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수화풍으로 돼 가지고 지수화풍을 먹고, 또 지수화풍으로 돌아갑니다. 어때요? 그렇게 에누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수화풍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보세요. 죽을 때는, 지수화풍이 딱 벌어졌을 때는 자기 거는 자기가 찾아갑니다. 바람은 바람대로 자기가 찾아가고, 흙은 흙대로 자기가 찾아가고, 물은 물대로 자기가 찾아가고, 불은 불대로 자기가 찾아가요.

남는 거라고는 바로 자기 영원한 생명의 근본 자체만 남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은하계 별성이나 마음의 별성이나 똑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나의 별성 그 자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과 내 육신과, 그렇게 친다면 물질계의 나와 정신계의 나가 둘이 아니게끔 통신이 되는 거죠. 바로 정신계의 불성이 바로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의 그 모두를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안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한 생을 통해서 세세생생 끝없는 세상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자유권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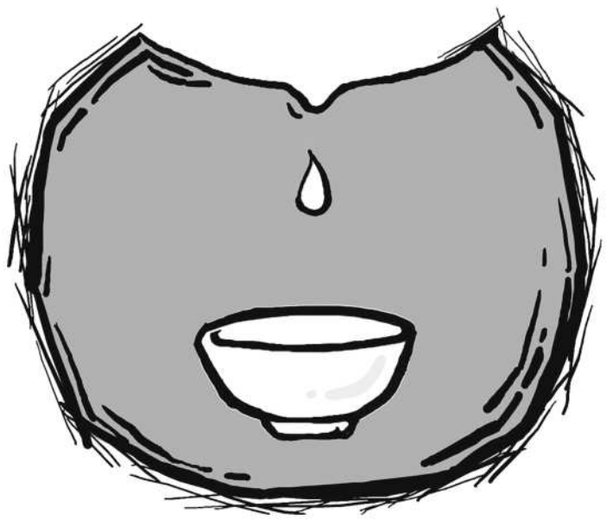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 생을 통해 끝없는 세상 맛볼 수 있어야

돌아가신 환자들을 위해서

문 미국에서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남편의 전공이 노인 내과여서 개업을 하고 제가 병원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노인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도 저희와 인연이 맞아서 남편의 손을 거쳐서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천도재라도 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못 고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관해야 할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환경에 따라서요.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옛날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 의미가 아주 깊어요. 이거는 이 마음공부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한생각에 할 수가 있어요. 또 두번째는 음식을 그렇게 차려 놓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세번째는 상대방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그 부질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언짢거든요. 좋지 않죠, 섭섭하고. 그러니 의사로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한생각으로 하세요. 한생각으로 그냥 '주인공, 너만이 좋은 데로 인도할 수 있잖아. 너만이 요다음 세상에는 고생 안 하고 살게끔 할 수 있잖아.' 한다면 그대로 재깍 그게 법이 됩니다.

그리고 병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의식 속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러 주기를 "의식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깐 그 의식 속에서 그러는 거를 다 주인공에다 맡겨라." 하고 요렇게만 일러 주시고, 의사도 '주인공, 너만이 그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다면 좋아질 겁니다. 그게 결부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자리는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허공을 다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로 결부가 되면 결부된 그 자체가 바로 거기에서 또 결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낫게 되는 거죠. 모두 둘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속도를 알고 싶어요

문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 공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실 물리학을 하게 되면 참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설법하시는 도중에 보면 마음은 빛보다 빨라서 아니 가는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음이 빛보다 빠르다는 그 얘기보다도 무한하다는 거, 순간적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생각인지요?

답 왜 빛보다 빠르냐 하면 빛은 가다가도 착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 그럴까요? 빛은 가다가도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무한해서 어디고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알며, 남의 말을 듣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며, 또 마음의 눈으로 다가 모든 거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신통을 벗어나야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신통을 벗어나게 되는 거는, 즉 말하자면 '대뇌를 통해서 누진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천체물리학도 되고 심성의학도 되고 또는 심성과학도 되고, 아니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비유할 때 몸 하나에 수백 아니, 헤아릴 수 없는 모습과 헤아릴 수 없는 생명과 헤아릴 수 없는 의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 몸뚱이는 집합소밖엔 안 되는 거죠. 생명들의 집합소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한 개체지요.

그래서 지구로 비유한다면, 생명체가 바깥으로 나오면 죽는다, 지구 바깥으로 벗어나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몸 하나를 가지고 지금 모두 연구해 나가면서 알아보면 내 몸이 지구와도 같고 우주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관한 건에 있는 게 생명의 근본, 즉 별성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북두칠성이나 이런 것이 어떠한 관계로 생겼는지도 알 수 있구요. 그러니깐 모든 혹성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육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심안으로 보는 사람들은 차원이 쪼금, 또는 혜안으로 보는 사람 차원이 더 좀 높고, 법안으로 보는 사람 좀 차원이 더 높고, 아주 높은 사람은 불안으로 본다, 이런 문제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는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낮은 소리만 하게 돼 있구요, 높으면 높은 대로 소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맛을 못 보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는 생각이 안 나듯이, 우리가 이 소리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마음공부를 해 가다 보면 '아, 이건 이거로구나.' 하고 자꾸자꾸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는 거만 가지고가 아니라, 배우면 배우는 대로 넓어지는 거는 마음입니다. 덮어놓고 마음을 넓힌다고 해서도 아니 되니까 하나하나 체험해 가면서 학생의 것으로 만드세요.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 스님,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직을 갖게 되고 이러는 것이 저만의 사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교수가 되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는 것도 좋겠지만 이미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그 공부를 하는 시간에 차라리 병원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고 갈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그거는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로서 보시를 하는 거보다도 마음의 보시를 하는 겁니다. '일체제불의 노래' 있죠? 한마음을 음파를 통해서 전 우주에 전해지도록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음파를 통해서 마음들이 전부 개선이 되고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런 말을 했죠. 물질 하나를 보시하는 거보다도, 고건 당장 쓰고 나면 고만이고 먹고 나면 고만이니까 물질보시보다도 무주상 보시를 공심으로서 한다면 그거는 끊어지지 않는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얻게 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라는 것이 너무도 크고 광대해서 오히려 무주상 보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요. 그저 남들이 보게 내가 '이거 얼마를 시주했다. 얼마를 했다.' 이런 것만 모두 생각들을 하시는데 함이 없이 해야 그게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지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미 무주상 보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 때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러 가면 그 물건의 값어치대로 돈을 내고 물건을 가져온단 말입

☞30면으로 계속

물질보시보다 무주상 보시를 공심으로 한다면 끊어지지 않는 삶 얻을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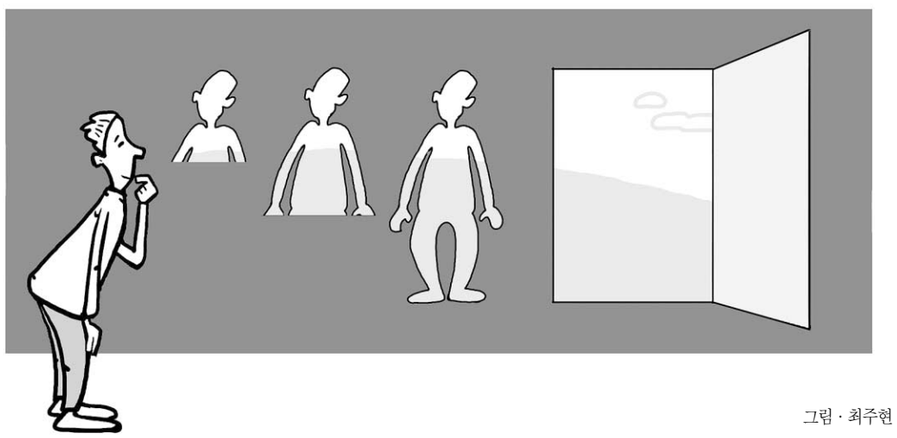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육바라밀 행을 하려면 내 마음부터 정립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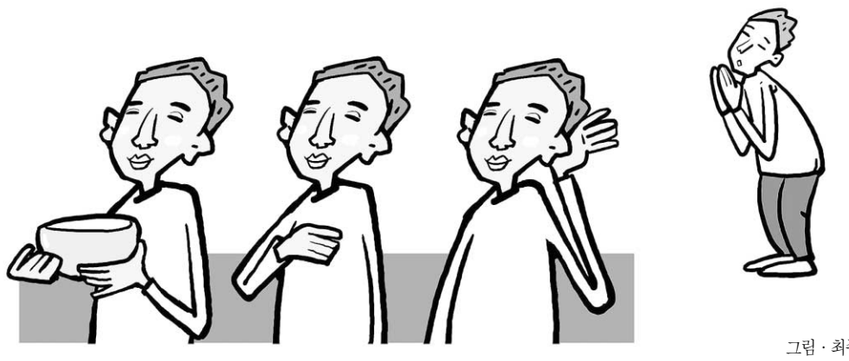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니다. 그렇다면 가게 주인에게 돈을 준 게 없고 그 사람도 돈을 받은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받고 주고 했으니까 피장파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줬으면 준 대로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얼른 쉽게 말해서, 더 이상의 값어치를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그 이상 거를 받지 못해요. 한 게 없기 때문에요. 입으로 구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여러분이 노래를 한마디 하는데 그냥 하거나, 그림을 한 장 그렸는데 그냥 그렸다거나 이런다면 그건 산 음성이 되지 못하고 산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해서 음성을 낸다면 그 음성이 가사에 의해서, 그 가사의 용도에 따라서 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건질 수 있느냐, 남을 이롭게 하는 가사냐,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가사냐 하는 겁니다. 가사에 따라서 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공부입니다. 세세생생에 끝간 데 없이 말입니다. 우주가 끝이 없듯이 우리가 사는 것도, 진리도 그렇게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거를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우리 아버님께서 교도소에서 나오셔야 될 텐데 나오시질 않으니까 서명을 받아서 진정서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 한생각이라면 저절로 나올 텐데 떳떳하다면 왜 비굴하게 그것을 받아서까지 진정서를 내느냐." 그랬습니다. 그건 뭐 이름을 대면 안 되겠으니깐 그냥 말하겠습니다만, 전직에 무모하게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을 생각하고 그런다면 모든 게 우리나라의 수치거든요. '쪼금 아쉽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전 세계로 볼 때도 참 수치지요. 그래서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런 거와 같이 한생각이다, 이게 말로는 한생각이라고 아주 쉽게 하지만 한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광대무변하고 묘법인지 몰라요. 음파가 그대로, 얼른 쉽게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가 전부 나가서 조절을 하거든요. 마음을 조절을 해서 둘 아니게 응신이 되면 그 마음들이 다 풀리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스님네들을 우습게 보고, 그냥 마구 해 대는 수가 많거든요. 아무리 말 못하는 돌멩이라도 내가 공부한 대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공부를 했다면 꽃나무도 전부 같이 통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물에는 용신이 있고 산에는 주산신이 있고 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 통해야 남이 아니고 서로가 조직적인,



그림 · 최주현

전부 같이 통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우주전체가 조직적인 진리로서 에누리 하나 없이 틀림없이 진행해 나간다 이런 거죠. 질서정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질서정연치 못하니까 질서정연치 못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득이 없고, 자기를 자기가 망치고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남을 위해서 하는 봉사라 해도 무주상보시가 되어야 합니다.

육바라밀을 완성하려면

문 대승불교에서는 욕망과 고통으로 얼룩진 사바세계에서 해탈의 경지를 상징하는 피안의 언덕으로 넘어설 수 있는 수행법인 육바라밀을 불자라면 꼭 실천하도록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해야 육바라밀을 생활 속에서 온전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요.

답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벌써 '내가 이러한 일을 해야겠다' 하고 자동적으로 마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겠다고 하기보다도 인간이 되었으면 벌써 스스로서 자기가 하는 행이 육바라밀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한데 합쳐서 육바라밀 하면 그냥 간단하지마는 우리 마음을 빼놓고는, 육바라밀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면 보시를 해도 무주상 보시와 유주상 보시가 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무주상 보시라고 말하기 이전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한 그릇 떠 줬어도 보시요, 마음을 잘 내 줬어도 보시요, 말 한마디를 잘 해 줬어도 보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벌써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처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또 부처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보살행을 해야 하고, 보살행을 해야 한다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그대로 자기가 행할 줄 알아야만 이 이게 육바라밀의 근본적인, 마음 자체는 하나지마는 마음 내는 거는 수천수만 가지로 낼 수 있는 그 마음을정립해서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하셨겠지마는 우리가 동물로서 사는 이런 본위로, 물질 본위로만 산다면 육바라밀의 행을 못합니다. 우리는 남을 이익하게 하지 않고, 남의 걸 뺏으려고 하고 부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내 것만 알고 나라고만 한다면 이것은 육바라밀의 정립이 될 수 없는, 인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下)의 동물입니다. 고등 동물이 아니라 하의 동물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이라면 스스로 육바라밀을 행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물질 본위로 나간다면 육바라밀을 행할 수가 없고, 물질 본위가 아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와 한생각의 무주상 보시나, 하여튼 마음을 한데 합쳐서 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행하는 모든 것이 전부 보시죠. 하나도 보시 아닌 게 없거든요. 자기도 중생이니까 자기 몸을 이익하게 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자기 몸도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이 몸이 없고 어떻게, 그럼 뭘 알겠어요? 내 가치관을 알고 또 우주를 알고 불교를 알고 부처님들을 알고, 전부 알고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각자 알고 있는 그 자체로써 행하면 그대로 그게 육바라밀의 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갸타부타가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안 한다 한다가 어디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떠한 돈에도 팔리지 않고
어떠한 이름에도 팔리지 않는
원심력을 가졌다면 그대로 보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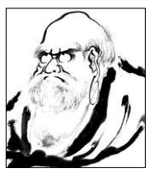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육바라밀 행을 하려면 내 마음부터 정립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정립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의 철학이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도 물질과학이라는 것을 철학으로 혼합을 시키면 바로 지금 현재 육바라밀의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나가는 것이 철학이라면, 만약에 물질 본위로 물질을 만드는 과학이라면 혼합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겸하면 더욱 좋지만 그래도 정신력과 지금 현재의 물질력에 한데 합해서 우리가 행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이지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신력으로 산다 하면 마음을 정립해서 만약에 두뇌로 통해서 나가는 그 행이라면 그대로 보살행인 겁니다. 자기가 어떠한 돈에도 팔리지 않고 태산 같은 물질에도 팔리지 않는가 하면, 어떠한 이름에도 팔리지 않는 그러한 철학을 가졌다면, 그러한 원심력을 가졌다면 그대로 보살행이에요. 하나하나가 전부 보시 아닌 게 어딨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래를 한다 무슨 국악을 한다, 설법을 한다, 무슨 과학이다 무슨 철학이다, 무슨 정치다 무슨 공업이다 경제다 국방이다 이런 것도 전부 거기에 합쳐서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식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고 지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사량으로 나누는 거지, 정신력으로서 마음을 정립해서 나간다면 그건 그냥 육바라밀 보살행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그대로 보살행이죠.

그래서 육바라밀도 한마음 속에서 여섯 가지가 다 나가는 겁니다. 보시든 지계든 인욕이든 다 거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에도 팔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정립이, 부동한 마음의 정립이 됐다면 거기에서 아니, 육바라밀만 나가겠습니까? 천차만별로 다 나가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벌써 눈 간 데 코가 가고, 코 간 데 귀가 가고, 귀 가는 데 맛을 알게 되고,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한마음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마음도 물러나는 마음도, 보는 마음도 듣는 마음도 또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도 다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립을 하면 스스로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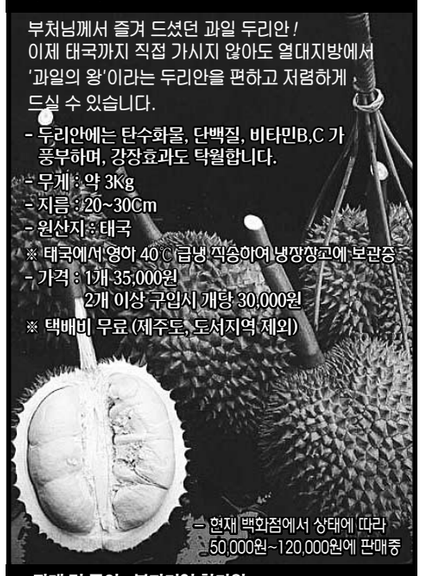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운명을 사전에 알고 액운을 막고 가야 하는 것이다. 고해라고 불리우는 이 풍진 세상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가없는 중생들을 위해 산승이 기도와 제을 올리고 법시술로 중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번뇌에 의하여 업을일으키고 업에 의하여 고통을 부른다. 번뇌와 업과 고통의 이 세가지는 같이 굴러서 한이없고 끝이 없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라 한다.

- 굿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고통속에 사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에 재수가 안들고 이사매매가 막혀 궁금하신 분
- 평생 제복과 관운이 없어 본인의 관상과 사주를 알고 싶으신 분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다합니다.
아직 인연이 닿지않는 분들 혼자서 고민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요.
인연이 되시는 분은 직접 오셔서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힘을 얻는 좋은기회가 될 것입니다.중생들의 앞일을 스님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경기도 하남시 관음사 주지 고봉 합장
011-715-6333
불사에 어려움이 많은 비구,비구니스님이나 불자님 도인비법 방술 전수함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8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당 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월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려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 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홍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한빛한국본부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11병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



건강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맨손으로 건강 지키기

"약손은 인간이 그 존귀한 생명을 스스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능 치유법이다."

한국약손연구회가 말하는 '약손'의 의미다.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신뢰하는 대체의학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약손요법을 포함한 맨손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맨손치료는 수술이나 다른 기구의 사용 없이 오로지 손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 약물과 의료기구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손에 기댄 치료가 웬 말인가 싶지만, 그것은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모르고 하는 소리. 맨손을 이용한 자연치유법을 소개한다.

▌카이로프랙틱 · 추나요법= 카이로프랙틱이란 그리스어로 '손'이라는 의미의 '카이로(chiro)'와 '이루어졌다'는 의미의 '프랙틱(practic)'이 결합된 말이다. 이는 1895년 미국의 팔머 박사가 고안한 치료법으로, 손을 이용해 척추뼈의 어긋남(변위)을 교정함으로써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척추와 질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두뇌와 척수는 인체의 모든 생명활동을 관리하는 총감독 역할을 한다. 신경의 중추인 척수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24마디의 척추 뼈다. 그러나 척수로부터 갈라져 나온 척수신경이 척추에 눌려 압박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신경전달기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크고 작은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카이로프랙틱 치료의 근본이론이다.



이동현 한국약손연구회 대표가 약손요법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약손연구회.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으로 질병 치유
추나요법-기 흐름 원활히, 보조약물 병행

동양의 추나요법도 그 치료원리는 이와 같다. 단지 관점에 있어 카이로프랙틱이 "뼈의 이탈이 근육의 경직과 신경계 혈관계의 순환장애를 낳는다"는 입장이라면, 추나요법은 "기의 통로가 압박돼 기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조약물을 병행하며 치유하는 것이 카이로프랙틱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지압 · 마사지=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경락(기의 통로)이 분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경락에 이상이 생기면 통증(痛症), 냉감(冷感:차가움), 경결(硬結:근육의 뭉침), 함몰(陷沒:근육의 꺼짐)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경락 상에 나타난 이상은 곧바로 기의 흐름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기 흐름의 중심이라 생각되는 경혈에 압자극을 줘서 흐름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손바닥, 손가락,

경혈 압박 통한 氣 회복
팔꿈치, 무릎까지 사용

손가락 관절, 팔꿈치, 무릎까지 사용해 자극을 준다. 이것이 곧 지압이다. 따라서 지압의 핵심은 정확한 경혈을 짚어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비운다'라는 '보(補)'와 '사(瀉)'에 있다.

▌약손요법= 한국약손연구회 이동현 대표는 기공의 원리와 방식, 경락이론 등을 결합해 한국식 약손요법을 고안해 냈다. 맨손으로 기를 담아 막힌 경락을 뚫어주면 간단한 병은 물론 비교적 심각한 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약손요

기공 원리, 경락 이론 결합
치료자 마음자세 환자전달

법의 기본이다.

그러나 약손요법이 일반적인 기공 · 경락 요법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치료자의 마음자세에 있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지극한 마음이 치료자의 손끝에서 배어나올 때 약손요법의 효능이 온전히 살아난다. 그 지극함으로 주무르고 짚고 쓸어내린다면 환자가 불편한 부분을 본능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이동현 대표는 "약손요법은 치료자가 병을 치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환자의 본능적인 자연치유 메카니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⑩

3도샤, 체질에 맞는 음식으로 조절

3도샤가 인생의 각 단계에 미치는 영향



각 도샤 하루 4시간씩 2번 작용
카파-과식, 기침 등이 부조화 원인
피타-물 많이 마시고 몸 차게 유지

각 도샤는 24시간을 각각 4시간씩 여섯 등분해 하루에 2번씩 2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선 아침 6시에 기상해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10시까지는 카파 기운이 왕성하게 작용한다. 10시부터 태양빛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오후 2시까지는 피타가 기세를 떨친다. 오후 2시부터 해가 지는 6시까지는 바타의 영향권 내에 있다. 이상에서 보듯 24시간 중 카파 시간대는 생기가 넘치고 힘이 비축되어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피타로 넘어가면서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지만 바타 시간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점차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빠져 나간다. 재충전이 필요한 시간대이다.

그러면 이 도샤들에 부조화를 일으키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카파의 부조화를 야기시키는 원인으로는 과식, 과도한 수면, 운동 부족, 무기력, 기침, 단 음식 등을 들 수 있다. 입맛이 없을 때도 카파의 부조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부조화로 일어나는 질병으론 부종, 비만,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폐렴 등이 있다. 또한 비부강 울혈, 고혈압, 당뇨, 식욕부진, 신열이 오르며 심한 재채기와 콧물을 동반하는 건초열에 걸릴 수 있다. 부조화는 감정 변화에도 나타난다. 혼자 절망하며 분노를 감춘다거나 무관심, 집착, 욕심 등의 감정이 두드러진다. 시샘이나 악의를 품고 불안정하거나 변덕스런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음식을 통해 조절, 치료할 수 있다. 여름에는 신선한 샐러드 종류를 많이 섭취하고 겨울 역시 따뜻한 성질의 채소나 샐러드, 건조하고 따뜻한 종류의 음식을 먹어 주는 게 좋다. 특히 쓴맛, 떫은맛, 신맛이 카파 체질에 도움을 준다.

피타는 마약, 음주, 흡연, 뜨겁거나 매운 자극성 음식, 태양 광선 등에 의한 지나친 노출로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다. 지나친 경쟁이나 성적 탐닉, 경쟁적인 스포츠 등은 피할 것을 권한다. 노란색이나 오렌지색 등 붉은 색 계통의 음식들도 좋지 않다. 질환으로는 피부 발진, 열, 위산 과다, 위염, 위 십이지장 궤양, 설사 등에 걸리기 쉽다. 또한 열이 많은 관계로 지나친 갈증과 다뇨 증상이 찾아오고 자기도 모르게 활동이 과다해진다. 흡사 갑상선 기능 항진성 환자와 비슷하게 가슴이 뛰고 열이 나므로 어떤 식으로든 열을 발산하기 위해 과도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간질 발작, 안구 충혈, 간염, 각종 염증성 질환을 수반하며 피부나 대소변 색깔이 노랗거나 혹은 붉은색, 오렌지색으로 변한다. 감정적 변화도 두드러진다. 매사 비판적으로 변해 분노, 증오에 사로잡히는가 하면 질투, 분열, 무모함, 만용에 휩싸인다. 또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해 매사 참을성이 부족하고 공격적이 된다.

이런 체질을 고치기 위해선 항상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또한 열을 내릴 수 있는 시원한 양념이 들어간 음식이나 날음식, 샐러드, 몸을 차게 하는 약초가 들어간 음식을 섭취토록 한다. 단맛, 쓴맛, 떫은맛이 도움을 준다. ■ 포천중문의대

보은의 영험이 가득한 치악산 국형사

삼사 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치악산 국형사는 신라경순왕 1150년전 무착선사께서 창건한 이래 명승고찰로써 명성을 이어 왔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 대왕이 전국 오악 명산에 산신단을 모셔서 국태민안과 우순풍조를 기원드린바 있습니다. 이 전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자 치악산(동악산) 국형사는 동악단을 모시고 현재까지 매년 봄가을에 지역 시장, 군수, 지역유지들과 원주지역 모든 시민 불자님들을 모시고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치악산 국형사는 **꿩 보은의 유래에 걸맞게 꿩 방생 장소**로 최적지 입니다. 전국의 불자님께서는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치악산 국형사에 많은 성지참배를 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국형사 주지 합장

▶ 대형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98번지 국형사 **033-747-1815**

※ 방생전 사전 연락주시면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겠습니다.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 망해사 · 흥복사 · 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

갑신년 윤달엔 천년고찰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구산선문 5백명 스님들이 담선회를 열고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한국불교의 대표적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등 다수의 보물 및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윤장대는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많은 중생들이 정성껏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면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로우시며 영험한 부처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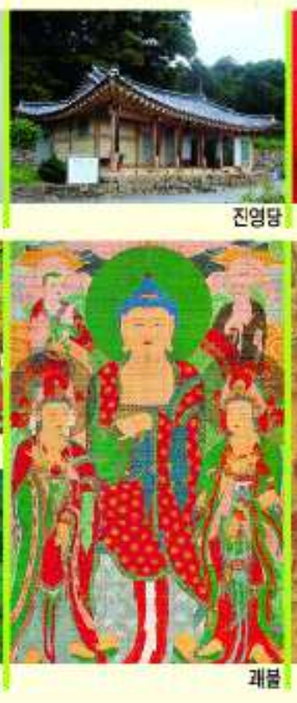
올 갑신년에는 윤달이 있습니다. 윤달에는 '풍속에 결혼하기에 좋고, 수의를 만드는데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윤달에는 사람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드리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여 사방의 노인들이 분주히 달려오고 다투어 모인다"고 합니다(〈동국세시기〉). 특히 윤달에 생전예수재를 행하기 전에 방생과 사찰순례를 먼저 하면 불보살님의 무량한 가피가 한층 더 할 것이라 하여 사람들은 이름있는 절들을 찾아 방생을 합니다. 용문사에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용문사에 오셔서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모든 액이 소멸되고 바라는 바 소원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합장


윤장대(보물 제684호)


대장전(보물 제145호)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진영당


교지(보물 제729호)


자운루(문화재 자료 제143호)

보광명전 삼존불

명부전 지장보살 · 업경대

괘불

팔상탱

명부전 금강역사상

영남제일강원

용문사 전경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4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호외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3월 3일(음력2월 13일) 수요일

조계종 명예원로 · 직지사 조실

관응당 지안 스님 원적

2월 28일 황악산 중암에서 … 세수 95 · 법랍 76세

3월 3일 원로회의葬, 종정 법전 스님 법어 발표

조계종 원로회의 명예원로이자 제8교구 직지사 조실인 관응당 지안 대종사(사진)가 2월 28일 오후 7시 주석처인 직지사 중암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95세, 법랍 76세.

영결 · 다비식은 3월 3일 오전 11시 직지사 만덕전과 다비장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된다.

관응 스님은 1910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해 29년 탄옹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일본 용곡대(龍谷大)에서 수학했으며 직지사 주지, 김용사 강원 강사, 동국학원 이사, 보문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설법집 〈화엄의 세계〉가 있으며, 전강 제자로는 원산, 범하, 자일, 연관 스님 등이 있다.

관응 스님은 임종게(臨終偈)를 남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직지사는 "후학들에게 무언으로 가르침을 보여주신 평소의 모습 그대로 마지막 가시면서도 그 가르침을 전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게를 대신해 직지사는 1996년 화가 김호석씨가 그린 진영(眞影 · 스님의 초상화)을 보고 읊었다는 '진찬게(진영을 찬탄하는 게송)'를 발표했다.

한편, 3일 영결식에 앞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 총무원장 법장 스님 등은 3월1일과 2일 법어와 조사, 영결사 등을 발표하고 가르침을 되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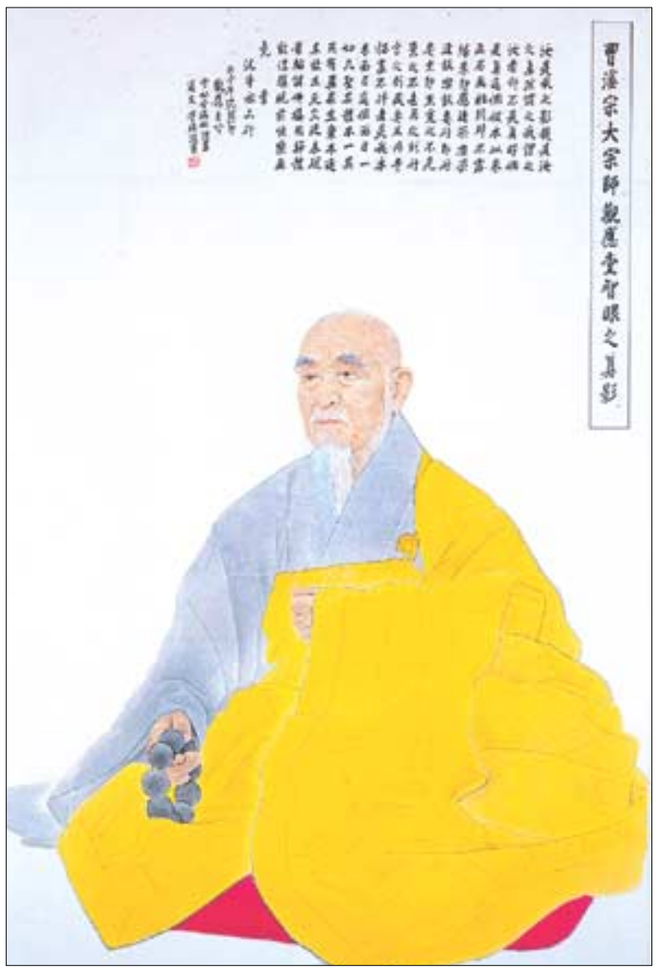
법전 스님은 영결 법어에서 "살아서 천상(天上)의 즐거움을 부러워하지 않고 죽어서도 지옥(地獄)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승(老僧)이 오늘 아침 육도(六道)의 관문(關門)을 열고 환귀본처(還歸本處)하니 이것이 활중득사(活中得死)입니까, 사중득활(死中得活)입니까"라며 "재철지기안가측(裁鐵之機安可測)이리요, 돈개천안막능규(頓開千眼莫能窺)로다. 무쇠 끊는 기틀을 어떻게 측량하리요, 천개의 눈을 단박 뜨더라도 엿볼 수 없도다"라고 말했다.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은 영결사에서 "스님에게 귀의하여 안심입명과 해탈의 진미를 맛보고 실리를 얻은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조사에서 "스님은 수행자의 표상이요, 교화의 수령(首領)이자 포교의 선구자였고 한국불교 역대준걸 가운데 이렇듯 선교(禪敎)를 겸비하고 수행과 전법을 한 몸으로 감당한 분은 참으로 드물었다"며 관응 스님의 업적을 기렸다.

직지사=배지선 기자



"본체로 돌아가는 까닭에
쾌락이 무궁하다"

너는 나의 그림자, 나는 너의 참 모습.
그러나 나니 너니 하는 것 모두 참 아니니
어느 것이 참 모습인고?
이것은 본래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한가로울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인연이 되면 바로 응하나니,
차가 있으면 차를 마시고
밥이 생기면 밥을 먹으며
가야 하면 가고 앉아야 하면 앉는다.
찾아도 볼 수 없고 버려도 떠나가지 않으며 쓰면
(도를)행하고 품으면 갈무리된다.
색칠하고 그림 그려서 얻을 수 없는 것이
나의 본래면목이니
이 면목은 모두 범부와 성인이 바탕은 같되
작용은 다르다.
중생은 근본을 버리고 지말을 좇는 까닭에
생사를 되풀이하며 고통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부처님들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까닭에 열반을 나투시며
쾌락이 무궁하다.
쉿.
진흙소가 물 위로 가도다!

■이 찬문은 관응 스님이 1996년 김호석 화백이 그린 진영에 직접 부친 것이다.

*16+16*의 즐거움!

매주 32면이 발행되는
현대불교신문은
세계 불교 정보의 '총본산' 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신청

■ 전화요금 합산 납부 신청
전화요금에 구독료를 합산하여 납부
(한국통신 전화번호와 전화가입자 이름만 전화로 통보하시면 신청완료 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납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 1구좌 1천원 법보시 후원 동참 하세요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양로원, 복지기관 등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 월 구독료 : 5천원
■ 구독 · 법보시 동참 문의
02)737-0090, 02)737-8881



"더 오래 계셨으면 좋았을텐데…"

직지사 설법전 분향소 각계 조문 이어져

관응 스님이 입적한 둘째 날인 2월29일 오전부터 분향소가 마련된 설법전에는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오전에는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종산 스님이 분향소를 찾았으며,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과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등도 입적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조문을 했다.

이날 저녁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조문을 했다(사진). 법장 스님은 "스님께서 더 오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셋째날인 3월 1일에도 설법전은 수많은 조문객들로 분주했다. 원로의원 천운 스님을 비롯, 순천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원택 스님,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 스님 등이 빈소를 찾았다. 설법전 한쪽에서는 만장 준비가 계속됐다.

한편, 다비장은 영결식이 봉행될 만덕전에서 은선암 쪽으로 20여분 거리에 준비되고 있다. 은선암 주지 등각 스님의 지휘로 준비되고 있는 다비식은 지안 스님의 평소 생활처럼 간소하고 소박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3월1일에는 원로회의장으로 치러지는 장의위원회 명단이 확정됐다. 장의위원회 증명은 종정 법전 스님이, 장의위원장은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 장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종산 스님(원로회의 수석부의장) · 원명 스님(원로회의 차석부의장)이 각각 맡았으며, 오랜 도반인 석주 스님이 호상으로 추대됐다.

배지선 기자

■ 호외 발행 직지사 조실 관응 스님의 원적과 관련 현대불교는 3월 3일자로 호외를 발행합니다. 이 호외는 제464호와 함께 독자 여러분께 배달됩니다.

● 2~3면: 다시 듣는 관응 스님 법어
● 4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법어, 각계 조사, 영결식순

관응 스님 입적 관련기사 buddhanews.com서 보세요

圓 曹溪宗 元老 觀應堂 智眼大宗師 元老會議葬 寂

訃告

大韓佛敎曹溪宗 元老이신 觀應堂 智眼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8年 2月 28日(陰 2月 9日) 午後 7時 황악산 직지사 중암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永訣日時 : 불기 2548(2004)년 3월 3일(陰 2月 13日) 오전 11시
■永訣式場 : 황악산 직지사 만덕전
■茶毘場 : 황악산 직지사 연화대

증 명 : 법전
장 의 위 원 장 : 도원
장의부위원장 : 종산 원명
장 의 위 원 : 법룡 도천 지종 성주 활안 숭산 원담 보성 이두 정천 천운 동춘 지관 진제 지혜 혜정
호 상 : 석주
진 행 위 원 장 : 법장
진행부위원장 : 지하 월서
진 행 위 원 : 지유 고산 월주 능가 송담 월운 정무 정일 법정 도문 밀운 법룡 철웅 봉주 정원 송월 종하 설정 홍교 오현 도영 현해 현성 종범 도법 수경 지선 한능 능해 우룡 이환 지안 혜총 혜인 무문 정태 정찬 성주 법산 법안 일면 암도 성타 정련 천제 청우 종걸 무공 근일 벽봉 무진장 현봉 무비 현오 성파 진철 각성 호진 정락 마근 정념 지명 진각 법정 지성 법타 종상 세민 원정 대성 현문 혜승 평상 두백 명섭 영조 몽산 용주 법여 철안 원혜 혜자 명공 일원 상현 기성 명정 도선 정호 일우 법진 종우 일오 일윤 성재 광제 도정 밀행 도오 철산 활성 법종 영선 탄공 정견 제우 철인 현각 효광 지근 종림 청강 대우 지성 혜광 지원 성진 회정 관조 청운 성원 인보 덕기 원명 법선 일관 도형 법현 의룡 현봉 지은 태봉 태관 혜인 현고 종주 명우 혜주 성타 성림 동림 덕륜 현장 고우 무여 적명 인각 현기 명정 현산 항주 정광 우송 원용 현묵 고원 혜국 의정 명진 영진 정찬 천진 무문 정태 정용 덕민 통광 혜남 응각 종묵 홍선 현진 진원 종진 성우 무관 철우 지현 혜능 지만 지현 동광 효림 성적 성월 정휴 도후 도완 원담 지구 장옥 탄우 이행 선광 혜승 법광 장적 무이 장주 종광 향적 현응 선각 정인 이암 원정 상운 지준 도문 설송 법조 원행 일화 현공 의연 지만 일문 무자 보경 보선 월우 중원 광조 법경 성국 초격 정문 원택 지홍 학담 종훈 청화 지홍 정호 도각 정안 영담 종삼 영배 도진 장윤 법안 자승 도공 수현 본각 도문 운달 홍륜 혜원 계호 경륜 정성 혜원 혜해 태구 지명 상덕 성원 광우 진관 묘엄 명성 태경 상륜 현문 법용 불월 혜근 자광 자행 현오 자민 묘순 경희 법성 육문 영운 혜등 일초 지형 일연 일법 해주 쾌성 일진 정안 뇌묵 태헌 성공 일우 지문 〈묘下순〉
외 호 대 중 : 백창기 선진규 서돈각 고은 홍기삼 조윤제 김기재 하수봉 김규칠 이병춘 주호영 중앙옹무기관 종무원 초심 · 재심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신사위원 조계학 교관리위원 교육위원 교재편찬위원 역경위원 군불교위원 군스님사 전국 경승 전국 향승 전국비구니회 전국 포교사 전국 각 종립학교 교직원 중앙신도회 · 전국신도회 8교구신도회 연합회원 교사불자회원 대한불교청년회원 교사불자회 청년회 관음회 지장회 보시회 정명회 다도회 금강불교회 보리수학생단 선우회 운전자불자회 경전회 불교대학 직지인심 정토회 어린이회 화랑협우회 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 법보신문 주간불교 대한불교 각 신행단체장 〈묘下순〉
집 행 위 원 장 : 자광
집행부위원장 : 등각 정류
도 감 : 성관 혜창 법등
병 법 : 원명 희현 대우
의 전 : 법성 성웅 효담 법광 정산 미산 범하 재원 장윤 성진 법준 진오 탁연 성묵 묘장 명인 혜명
지 객 : 법천 청안 성광 상광 법조 법보 광조 법일 정광 호법 지원 대진 원초 정진 적묵 동참 수타 심운 지행 보각 선혜 선근 지원 보명 보경 종명 정인 선수 선학 선만 묘각 묘원 무각 백화 동조
재 무 : 보정 장명 진관 법천
홍 보 : 여연 일관 진명 홍선 청학 무심 불교신문사 총무원 기획실
호 법 : 원공 법매 종열 성현 일공 덕운 진홍 동초 묘관
주 차 관 리 : 법초 정신 지열 성태 원오 노우 도일 현종 정엽 묘우 청화 동관 조정호
접 수 : 덕영
영 선 : 보륜
다 비 장 : 현오 대혜
치 산 : 정우 기현 도광
문 상 객 : 공곡 진원 희광
문 중 원 : 장명 성경 자성 묘봉
대 표 : 녹원
도 감 : 덕해
상 좌 : 도윤 법안 도형 혜안 명안 영주 제원 일당 혜철 상오 도상
법 상 좌 : 법인
전 강 제 자 : 원산 법하 자일 연관 재원 지수 원욱 진성 성정 정관 지욱
손 상 좌 : 도진 정원 가열 도현 대암 법천 만엽 광엽 수근 재성 혜원 혜림 효원 효천 효선 지평 밀행 묵담 효원 운산 각진
증 손 상 좌 : 진관 진명 진량 진원 진홍 진웅 덕운 덕선 덕암 돈성
재 가 제 자 : 정해창 권중달 안상환 각시월 대선행 일봉화 만덕상 대원행 승묘행

■ 문의 및 연락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직지사 ☎ 054-436-6174

曹溪宗 元老 觀應堂 智眼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자신 속 부처 찾으면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

이 법문은 현대불교신문 317호(2001년 5월 1일자)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김천 황악산에 토굴 하나 지어 수십년 간 두문불출 정진하고 계시는 직지사 조실 관응 스님을 만나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와 수행 이야기를 들었다.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중암은 해발 1천여m가 넘는 황악산 중심부.

이곳을 찾아간 날은 길목마다 봄의 향연이 한창이었다. 길가엔 이름 모를 잡초들이 연두빛 새순을 수줍게 내밀며 천연의 융단을 만들고, 노랑 분홍 등 갖가지 꽃들이 앞다퉈 수를 놓고 있었다.

중암의 첫 인상은 깨끗하고 조용했다. 법당과 요사채는 암자답지 않게 웅장했지만 세속의 자취라곤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선계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푸근해졌다.

관응 스님을 뵙고 예를 올린 후 법문을 청했다. 스님은 처음엔 "큰 절의 스님들이 잘 알지, 이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돌아가라고 손을 내저으셨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자 침묵하시던 스님은 기왕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덕담이나 듣고 가라 하셨다.

"부처님은 오신 적도 가신 적도 없습니다. 참나인 무아(無我)가 부처님인데 따로 부처님이 오시고 가시고 할게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오신 근본 이유를 살펴야 해요.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이나 수많은 설법을 했어도 '내가 한 말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 속의 부처 찾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됩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다는 의미를 되새기며 일심으로 닦아 부처를 만나는 인연이 되는 기쁜 날이 되도록 서원하십시오."

스님은 자신 속의 부처와 하나가 되어 부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볼 것을 권한다. 마음의 눈을 뜨면 중생이 곧 부처란 얘기다. 이처럼 스님께서는 우주만물의 형상만 보지말고 그 본디의 성질을 깊이 사유할 것을 강조하셨는데 물을 비유한 설명을 덧붙이셨다.

"물은 본래 티 없는 청정한 맹물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커피가루를 타면 커피가 되는 것이고, 된장이나 국거리를 넣어 끓이면 국이 되는 법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몸 속에 들어가거나, 땅 속에 들어가 정화되면 본래의 성질인 맹물로 되돌아옵니다. 인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식(識)이라고 합니다. 이 식 때문에 안으로는 육근(六根)이 생기고, 밖으로는 육진(六塵)이 생겨서 18계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육감으로 보는 것은 모두 가짜이며 허상입니다. 물이 본래 한가지인 것처럼 생명의 실상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등이 '나'라는 명제를 세우고 자꾸만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다 라는 진리를 터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이 위에서 동화됨으로써 소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모두가 자기에게도 와서 하나로 동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몰두하다 보면 우주 법칙의 기운이 하나로 체화되는 묘력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무심 속에서 '나'라고 하는 강한 아상이 사그라지면 자유자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한 생명체로 보고 있다. 불교에서 말한 법이란 곧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 법을 깨달아 인격화한 분이 부처님이란 것이다.

깨침의 세계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생사가 따로 없을 뿐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열반적정(涅槃寂靜)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불자들에게 이 깨달음의 세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법문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의 세계를 모르는 불자들에게 깨친 자의 입장에서 진리만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니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란 것이다. 그래서인지 스님은 정사(正思) 정념(正念)을 먼저 강조한다. 스님은 자주 법문에서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여러 개의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독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생명체예요. 인간이 죽어서 자연의 일부가 되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생명체를 상일주재(常一主宰)한 진여법신(眞如法身)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불교는 생명의 실체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49년 설법은 모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이며 이는 곧 인생철학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현상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멸과 생성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주만물이 성(成) 주(住) 괴(壞) 공(空)의 법칙에 의해 유전하듯 인간도 생로병사의 법칙에 의해 삶과 죽음의 명암을 이룹니다."

비록 육신은 쇠약해져 발음이 어눌하지만 끊임없이 쏟아지는 스님의 설법은 막힘도 걸림도 없었다.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듯 스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자유자재했다.

스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간 법문을 해왔으면서도 아직까지 한번도 법문 준비를 미리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미리 준비하는 법문은 참된 법문이 아니라는 것이 스님의 법문 철학인 셈이다. 불자들의 알음알이를 잘 살펴 그에 적합한 설법을 해 오신 스님은 불교교리 특히 유식학의 뛰어난 대가로 평가받고 있다. 스님의 설교적 재능은 부처님의 제자 '부루나 존자'에 비견될 만큼 탁월하다고 한다.


교학과 선에 모두 뛰어났던 관응당 지안스님. 스님은 특히 유식학의 대가이다.

참나인 무아가 부처님인데 따로 오고 갈게 있습니까

"법신 망각하면 생사 속박 못벗어나니 일념으로 닦아 깨달음의 씨앗 길러라"

한 때 스님 슬하에서 공부한 정휴 스님(구미 해운사 주지)은 "스님에게서 받은 첫 인상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신라의 뛰어난 예술이 빛어낸 반가사유상에서나 느낄 수 있는 내밀한 미소를 볼수 있었다"며 "해박한 경전 지식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논리 전개는 나의 학문의 허기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교학에 밝으신 관응 스님은 항상 "스님을 부처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셨다. 60년대 용주사에서 주지를 하면서도 강사를 자처해 학인들을 가르쳤던 일, 80년대 직지사에서 <선문염송> 강의를 열어 오늘날 각 강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10여명의 강사를 배출한 것 등은 인재 양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학에도 뛰어났지만 스님은 선(禪) 수행도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환갑의 나이에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여 동안이나 두문불출하며 수행한 일은 지금도 승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무문관이 어떠한 곳인가. 사방이 막힌 무명 속에서 모든 것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생사일여의 활로를 찾는 곳이 아닌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시방세계가 거대한 무문관이며 생활이 곧 참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수행론이다.

또 스님은 "참선 공부는 노장들에게 다년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덧붙이신다. 교학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 선공부는 글자를 떼어놓고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선지식의 가르침이 없으면 헤매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인간의 6근을 지혜의 구멍이라며 나무가 뿌리를 통해 땅의 기운을 받아 성장하듯, 6근을 통해 깨달음의 씨앗인 지혜를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또 자기의 본성인 법신을 파악하여 체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고 일념으로 닦아야 한다고 수행의 중요성을 말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의 함정에 속박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육체에 대한 속박은 뭘지 모르나 우리들 모두가 갖고 있는 자성까지 속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법신을 망각하고 무명과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인간적인 조건을 초극하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온전히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삼도봉, 대덕산과 더불어 소백산맥의 연봉을 이루는 황악산. 그 심장부에 '이 시대의 대강백' 관응 스님이 주석하고 계셔서 일개 하산하는 길에 보는 산세 또한 지극히 자비스럽게 느껴졌다. 그곳에 계시다는 자체만으로도 수행심이 불 일어나듯 분발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심법문(安心法門)을 이심전심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큰스님, 관응 스님은 그러한 분이다.

손상좌 도진 스님의 '시봉 38년' 이야기

"안개가 스쳐가듯 열반에 드셨습니다"

"안개가 스쳐가듯 고요한 적멸의 세계에 들어가듯 그렇게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고 자연스러웠지요."

관응 스님의 맏손상좌인 도진 스님(중암 주지)은 관응 스님의 입적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고요히 숨을 거두는 정도가 눈에 띄지 않고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죽음과 적멸에 이르는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관응 스님의 입적 모습을 통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던 '적멸(寂滅)'을 느꼈다는 도진 스님은 관응 스님과 같은 죽음을 맞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도진 스님은 18세 용주사에 출가할 때부터 약 38년 간 스님을 모셨다. 1984년 10명의 제자에게 3년간 전강을 내린 후 조용히 살겠다는 관응 스님의 서원에 따라 중암을 복원하고 주지로 부임하여 20년간 스님과 함께 지냈다.

도진 스님은 관응 스님의 행장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1965년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 조계종 정화 직후 1959년 조계사 초대주지 취임, 또 1975년 청암사 수도암에서 세수 66세의 노구로 젊은 납자와 함께 안거 정진했던 순간까지.

1965년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에는 처음 5명이 들어갔으나 끝까지 회향을 마친 스님은 두 분뿐이다. 그중의 한분이 관응 스님. 무문관 6년 결사를 회향하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공부한 것이 없다"이다. 도진 스님은 지금도 그 뜻이 무엇인지 예측을 못하겠다고 말한다.

1959년 정화 직후, 당시 종정이었던 동산 스님은 포교를 맡아 할 인물이 관응 스님뿐이라는 판단에 직지사 강주로 있던 관응 스님을 조계사 주지와 중앙포교사로 동시 임명했다. 관응 스님은 당시 학인들을 그냥 둘 수 없어 80명의 학인스님을 모두 데리고 조계사로 갔다. 그러나 스님들이 공부하기에 적합지 않아 다시 용주사 정화에 들어갔다. 용주사 정화에는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은 평화적인 정화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세수 66세 때는 청암사 수도암에서 고승 스님, 석주 스님과 몸소 찬물에 당신 옷을 빨아가며 수행 정진했다. 젊은 납자와 탁마 정진한 안거는 드문 일로서 당시 젊은 납자들에게 공부할 신심을 불러일으킨 충분한 동기가 됐다. 당시 수도암 암주가 장의위원회 증명으로 추대된 지금의 종정 법전 스님이다.


관응당 지안 스님이 주석했던 중암의 '수미산방'.

무문관 6년 결사 등 생사 건 수행 '귀감' 선·교 치우침 없는 공부하라 가르쳐

도진 스님은, 1984년 관응 스님이 75세의 노구를 이끌고 원산·범하·연관 스님 등 10명의 제자에게 3년간 부처님의 경전을 가르쳐, 전강을 내렸던 일은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회고했다.

최고의 대강백살면서도 김수환 추기경이 포도주를 권할 때 기꺼이 받아 마시는 포용력까지 갖추었다.

늘 자비스러웠던 스님은 인자한 표정 하나만으로도 제자들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상하 구분 없이 누구나 만나고 무엇이든 받으셨다고 한다. 심지어 개구쟁이가 장난감을 가져오면 장난감을 받아 방 한 켠에 고이 진열까지 했었다.

관응 스님은 열반게를 남기지 않았다. 도진 스님이 어른 스님께 열반송을 부탁드리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그림자를 낳지 않는다."

그 말씀이 지금은 도진 스님에게 화두가 되었다.

"평소 하신 말씀이 임종게지 따로 생각할게 있겠냐"고 말하는 도진 스님은 "항상 열심히 수행하라는 당부와 수행자는 '정지견(正智見)'과 '겸손'을 가져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며 '선(禪)·교(敎)에 치우치지 말라'는 가르침과 함께 늘 앉아서 수행정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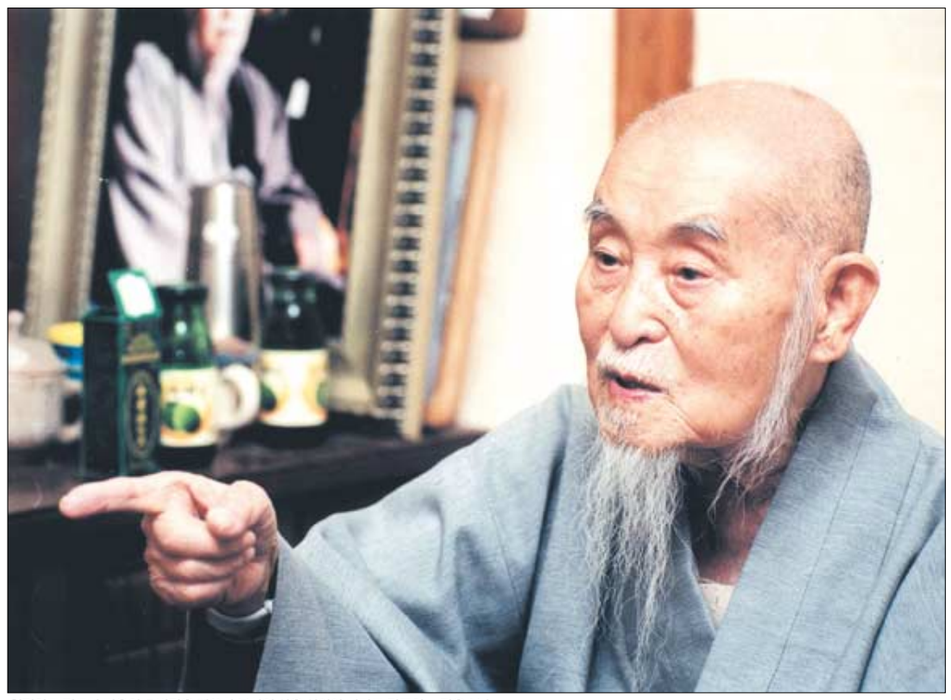

손상좌 도진 스님.

배지선 기자

■ 관응 스님 행장

- 1910년 경북 상주군 외서면 출생.
- 1929년 상주 남장사에서 혜봉 스님을 계사로, 탄옹 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34년 유점사 전문 강원 대교과 졸업.
- 1936년 서울 선학원에서 보살계 및 비구계 수지.
- 1938년 중앙불교전문학교 졸업, 문경 김용사 강사 취임, 해인사 해외유학생으로 선발.
- 1942년 일본 경도 용곡대(龍谷大) 졸업.
- 1943년 오대산 월정사서 안거.
- 1952년 해인사 백련암, 고성 옥천사 등서 안거 수행.
- 1956년 황악산 직지사 조실 추대.
- 1959년 조계사 주지 및 중앙포교사 취임.
- 1961년 동국학원 이사
- 1963년 용주사 주지.
- 1965년 대구 능인학원 이사.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
- 1981년 직지사 주지.
- 1985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 1989년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 1994년~2004.28 조계종 원로회의 명예원로.

생활이 곧 참선될때 삶과 죽음은 하나의 길



청정하고 평등한 마음의 본바탕을 깨우쳐 부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관응스님.

이 법문은 현대불교신문 158호(1998년 1월 14일자)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법이란 진리입니다. 진리를 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상상밖으로 어렵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어느 전생에서인가 부처님은 보통사람으로서 설산공부를 하셨습니다. 설산은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우는 에베레스트봉이 있는 히말라야를 말합니다. '히말'이란 뜻은 눈을 의미하고 '라야'는 감추다라는 뜻으로 '눈에 파묻힌 산'이라 합니다. 인도는 열대지방이지만 산이 높아 만년설에 뒤덮여 있습니다. 또 부처님은 전생에 한 귀절의 말씀을 위해 나찰에게 목숨을 바쳤는데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까. 중국의 혜가대사는 달마대사로부터 법을 가르쳐 받으려 했으나 안가르쳐 주니 팔 하나를 잘랐습니다. 이와 같이 구도열로서 정신을 무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불교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선재동자도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1백20생이나 걸렸습니다. 그 거리가 대단한 것이며 그의 구도정신을 새롭게 받아지녀야 합니다.

30 여년전에 조계사 주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하도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맡은게 그럭저럭 10여년간이나 하게됐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비구 대처 분규로 분란이 끊이지 않던 때라 염증을 느껴 조용히 머물수 있는 곳을 물색하다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無門關)에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무문관에서 환갑을 맞이했으니 늦은 나이에 인연이 닿은셈이지요.

무문관은 음식물을 넣어 주는 구멍만 남겨 놓은채 사방을 다 막아놓아 외부세계와는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이렇게 폐관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요. 부처님의 6년간 설산고행을 본받아 한번들어가면 4~6년간 일체 문밖에 나올 수 없고 면벽참선만하게 됩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벽을 박차고 나오는 것은 곧 자신의 거짓된 껍질을 완전히 부수어 내외가 명쾌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문관에서는 모든 것을 단순화하여 오롯이 일념으로 화두의심만 챙기는 것이니 최소한의 생활로 선정삼매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방이 막힌 무명속에서 생사여일의 활로를 찾는 과정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시방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무문관입니다.

일평생 삶을 사는 동안 인생의 근본을 알고 사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다시 없습니다. 또 일상의 생활자체가 곧 참선이 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생사여일의 활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평상심(平常心)이 곧 도(道)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모습이 닮는다고 합니다. 염불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꾸 익힘으로써 한가지만을 생각하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글 쓰고 조각하는 이들이 그 일에 열중하다가 보면 묘력이 나옵니다. 묘력이 나면 그 지혜가 둥글어집니다. 이와 함께 삶이 동화됩니다.

한가지 일에 스스로가 몰두하다가 보면 우주 법칙의 기운이 체화됩니다. 무심속에서 '나'라고 하는 강한 아상이 사그라져 우주법칙이 스며들어 자유자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이들은 토끼 한마리를 그려도 익숙해진 손놀림을 통해 저절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는 마음먹어서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해보지도 아니한 채 단 한번의 시도로써 안 되는 일로 판단함으로써 무명에 휘감기고 마는 것입니다.

선수행에서 망기(忘己)라 하여 자기를 잊으라 강조하며 성인은 자기 아닌 바가 없다하여 무소불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상에서 벗어나면 태평양에 물 한방울 떨어져 태평양 전체와 한덩이되듯 우주 전체와 한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상에서 벗어나고 집착과 결별하면 하늘과 땅과 더불어 목숨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물건에 한도 끝도 없이 부딪쳐 다치곤 합니다. 욕심을 내어 부딪치므로써 쉽게 몸이 아프고 늙고 맙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물건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리 늙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상에서 벗어나면 우주와 한 덩어리
화두는 집착·망상 벗고 '깬 기운' 받는 것

전체의 생명과 하나될 때에는 모자라는 것도 남는 것도 없어 수명이 온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에서 설해지는 내용입니다. 나 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주 전체의 기운과 하나되면 우주의 기운이 자기에게 들어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편할수록 얼굴에 덕이 있어지나 마음을 삐뚤게 지닐수록 마음에 낀 그림자가 반영되어 어두운 모습이 됩니다. '얼이 빠졌다'는 말이 있는데 얼굴의 모습도 자신이 마음먹은대로 자꾸만 변화해 갑니다. 정신이 맑으면 표정이 맑아지며, 짜증스러워지면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평생 좋은 일을 하면 몸이 자꾸 좋아집니다. 그림을 그려도, 글을 써도, 노래를 불러도 온통 무심이되어 우주법칙 그대로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중국 중생사의 관세음보살은 우주의 축소판 그대로가 담겨있어 알지 못한 이들도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 성취가 됩니다.

화두도 마찬가지여서 깨달은 것이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집착과 망상이 모두 사라지고 우주의 기운만이 남도록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깬 기운이 화두에 있으므로 나쁜 기운이 모두 소독되어 녹아지는 것입니다.

"정신이 맑으면 표정이 맑아지고 좋은일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진언의 경우도 깨달음의 기운이 이름에도 스며있어 관세음보살만을 염해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하는 가운데 깨달음은 만나집니다. 일념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에 폭발되는 것이 견성입니다. 그러나 화두만이 견성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어느 집이든지 문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지 어느 쪽 문만 사용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닌것처럼, 팔만사천의 법문 그어느 문으로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여도 되며, 자기 근기에 적합한 것 하나로 몰입해 보시기바랍니다. 불교의 공부나 도리는 전부 이러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거든 성품을 깨달아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네 마음자리에도 체, 상, 용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시야로 볼 수 없는 마음이지만, 지위가 높은 이거나 낮은 이거나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추위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평등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디 평등한 이 마음을 평등하게 쓰는 이가 드물고, 청정한 것을 탁하게 쓰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자리는 자재(自在)합니다. 자재란 가고 싶으면 가고 눕고 싶으면 눕는 구속됨이 없음을 일컫는 것은 모두 자재한 쓰임을 갖고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청정하고 평등하고 자재하기는 어른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그 작은 속에 부처가 들은 줄은 모르고 요놈 저놈 하며 업신여긴다면 큰일입니다.

우리네 마음은 본바탕이 청정하고 평등하고 자재하니 이를 옳게 쓰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 나라 백성들이 모여 하나를 통일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계층에게 치중하거나 소외됨 없이 더하고 덜한 것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리를 의지해 살아갈 때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치는 우주의 법칙과 한덩이가 되어 자타가 없는 대자대비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남을 좋아해도 편애를 합니다. 치우쳐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기도로써 마음을 맑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욕심을 버리면 복을 얻습니다. 욕심 집착을 버리면 우주 전체의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주가 자기의 것이 될때를 지혜, 보리라고 합니다. 흐르는 우리의 관념을 어떻게 없앨 것입니까. 깨치지못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것입니까.

이는 흐르는 해악을 막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흐르는 생각은 모르는 물건 앞에서 중단됩니다. 아는 경계를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알지못함으로 인해 흐르지 못하면 쌓이고 쌓이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확트입니다.

관응 스님의 저서 〈화엄의 바다〉
조계사 화엄산림법회 강의 내용…화엄경 이해 지름길

지난 2월 28일 원적에 든 관응 스님은 수많은 설법으로 후학양성에 매진했지만 책은 단 한권만을 남겼다. 1993년 10월 펴낸 <화엄경> 강설집 <화엄의 바다>가 바로 그것이다.

1980년대 직지사에서 '선문염송' 강의를 여는 등 인재 양성에 앞장 선 관응 스님은 90년대 초, 노구(老軀)로 자주 법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당시 조계사 주지 법등 스님(구미 도리사 주지)이 '조계사 화엄산림법회'를 열어 스님께 법을 청했고, 그 때 강의를 녹음?기록한 자료를 정리하여 전강제자 시현 스님과 손주상좌 도진 스님이 책으로 엮어 펴낸 것이다.

이 책을 엮은 도진 스님은 서문에서 "보다 많은 불자들이 <화엄경>과 인연을 맺고 보살도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으로 묶었으나, 부족하고 학문이 얕은 저로서는 큰스님의 깊은 사상을 온전히 표현하는데 역부족이었다"며 "고르지 못한 문맥이나 내용은 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제자들의 허물이다"고 밝히고 있다.

관응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집대성한 것이 <팔만대장경>이라면 대장경 가운데 진수는 단연 <화엄경>"이라며 "시공을 초월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세계를 묘사한 <화엄경>은 자기의 기준을 떠나 실상의 세계를 보는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조금이나마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응스님의 저서 <화엄의 바다>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쉽게 전하고 있다.

<화엄의 바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장 '화엄경의 대의'에서는 <화엄경>이 어떤 경전이며, 해인삼매(海印三昧)에서 보이는 세간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세간(衆生世間),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정물(無情物)들의 기세간(器世間), 깨달음의 세계인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장 '화엄경의 구성'에서는 <화엄경>의 종류와 이를 설한 때와 장소, <화엄경>의 본래 이름인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에 담긴 뜻을 쉽게 설명해 놓았다.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제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의 '대방광' 3자는 우주의 대진리인 법의 체·상·용을 설명한 말씀이며, '불화엄경'은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처럼 <화엄경>의 이름 자체가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경 전체를 읽고 외우는 것도 좋지만 경의 제목 일곱 자만 수지독송해도 큰 공덕이 있습니다."

3장 '화엄경 입법계품 강의'는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담고 있는 <화엄경입법계품>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은 후 이에 대한 스님의 강의를 풀어 놓은 것이다. 300여 페이지의 분량에 달하는 강의에서 스님은 다양한 비유와 일화를 통해 경전에 담긴 뜻을 알기 쉽게 풀어 그 가르침의 핵심을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준다.

"우주의 법칙인 본체를 알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법(理法)이라 하고 부처님이 이를 깨달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설법하신 것을 교법(敎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법은 깨달으신 바를 그대로, 즉 우주법칙을 있는 그대로 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화엄경>의 방대한 가르침이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벌레가 찌르르 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엄경> 자체가 우주법칙의 진리를 그대로 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의·구성·입법계품 등 세부분으로 해설
"우주 법칙인 본체 알아 부처경지 이르라"당부

책 뒤편에는 신라 고승 의상 스님이 <화엄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이한 후 이에 대한 스님의 강의를 덧붙여 놓았다. 300여 페이지의 분량에 달하는 강의에서 스님은 다양한 비유와 일화를 통해 경전에 담긴 뜻을 알기 쉽게 풀어 그 가르침의 핵심을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준다.

"우주의 법칙인 본체를 알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법(理法)이라 하고 부처님이 이를 깨달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설법하신 것을 교법(敎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법은 깨달으신 바를 그대로, 즉 우주법칙을 있는 그대로 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화엄경>의 방대한 가르침이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벌레가 찌르르 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엄경> 자체가 우주법칙의 진리를 그대로 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 뒤편에는 신라 고승 의상 스님이 <화엄경>의 깊은 의미를 함축해 지은 게송인 '법성게(法性偈)'를 실어 이해를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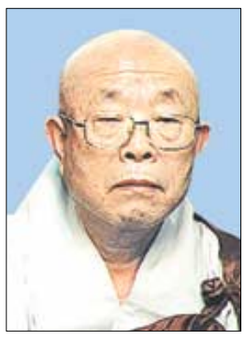
"부처가 되는 길은 멀고 한량없는 시간이 걸리지만, 마음에서 보리심을 발하면 그때부터 부처의 행동이 나온다"고 말하는 스님은 불자들에게 육바라밀의 실천과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한다.

"마음속에서 일체의 탐심을 털어내 버리면 산 속에 금은이 들어있는 것을 환하게 볼 수 있고, 생명을 해롭게 하려는 생각을 멀리하면 만물이 환히 보이고 서로 동화되는 것입니다. 금강석 자체에는 타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불에 넣어도 타지 않는 것과 같이, 내 속에 남을 해하거나 욕심을 내려는 생각이 없다면 일체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화엄경>의 도리가 이처럼 법계성(法界性)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이와 같아서 섣부른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부지런히 닦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스님의 가르침은 불교카세트포교회가 발간한 오디오 테이프 '무문관대강좌 1, 2'와 '반야심경강의', '유식론대강좌'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벗어나는 관문이 없다면 목마는 칼날 위로 달릴 것이고"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법어

살아서 천상(天上)의 즐거움을 부러워하지 않고
죽어서도 지옥(地獄)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승(老僧)이
오늘 아침 육도(六道)의 관문(關門)을 열고 환귀본처(還歸本處)하니
이것이 활중득사(活中得死)입니까. 사중득활(死中得活)입니까?
활중득사(活中得死)라고 한다면 반야영검(般若靈劍)을 면하기 어렵고
사중득활(死中得活)이라고 하면 불조(佛祖)도 신명(身命)을 잃을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야 투탈생사(透脫生死)하고
불조(佛祖)의 신명(身命) 잃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구(求)함이 있다면 석가(釋迦)는 낙절(落節)하고
가섭(迦葉)의 패궐(敗闕)은 깊어질 것입니다.
벗어나는 관문(關門)이 없다면 목마(木馬)는 칼날 위로 달릴 것이고
석녀(石女)는 불 속에 몸을 감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산중(山中)에 노승(老僧)이 몸을 감추고
머리도 꼬리도 없는 주장자를 한번 치니
허공(虛空)의 뼈는 부러지고
오취중생(五趣衆生)이 금대(金臺)에 오릅니다.
이것이 오고 감이 없는 활계(活計)입니까?
시방법계(十方法界)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기략(機略)입니까?
회마(會麽) 알겠는가?
재졸지기안가측(裁鐵之機安可測)이리요
무쇠 끊는 기틀을 어떻게 측량하리요
돈개천안막능규(頓開千眼莫能窺)로다
천개의 눈을 단박 뜨더라도 엿볼 수 없도다.

영결식순

사회 : 범하 스님

-. 명종(5타)
-. 개 회
-. 삼 귀 의
-. 반야심경
-. 영결법요(원명 스님 정오 스님)
-. 행 장(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종산 스님)
-. 추모입정(육성법문)
-. 영 결 사(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
-. 법 어(법전 종정예하)
-. 조 사: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수좌 대표
  전국신도대표
  내빈 대표
-. 조 가(오느름관현악단, 정율 스님, 보리수합창단)
-. 헌화: 문중대표
  종단대표(종정 스님, 호상 스님, 원로의장, 총무원장, 종회의장, 수좌대표 본사주지 대표)
  내빈대표
  신도대표
-. 문중대표 인사말
-. 사홍서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조사 (요약)

"꽃이 피면 꽃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가르침 베푸소서"



선교겸전(禪敎兼全)의 대종장(大宗匠)이며 수행(修行)과 포교(布敎)의 귀감(龜鑑)이신 관응당(觀應堂) 지안(智眼)큰스님.

진성(眞性)은 무성(無性)이라 생사(生死)가 없고, 진불(眞佛)은 무형(無形)이라 거래(去來)가 없다했습니다. 이 도리(道理)를 투득(透得)한 자는 얼음 위를 달리고 칼날 위를 걸어도 종횡무진(縱橫無盡)으로 자유자재(自由自在)하니 이것이 바로 앉아서 온 세상의 시비를 모두 끊어버리고 천개의 눈을 단박에 뜬다는 조사(祖師)의 행화(行化)입니다.

오늘 큰스님께서 문득 세연(世緣)을 거두신 것 또한 숨 한번 멈추는 것으로 생사(生死)를 초절(超絶)하고 시비(是非)를 발거(拔去)하여 본분진상(本分眞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눈앞에 드러난 현성공안(現成公案)의 깨닫지 못한 우치중(愚癡衆)은 건곤(乾坤)이 운행(運行)을 멈춘 듯 경악(驚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천년만년(千年萬年) 더 오래 재세(在世)하면서 교편(敎鞭)을 들어 미망(迷妄)을 일깨우고, 염화(拈華)로써 사견(邪見)을 척파(斥破)해 줄 것으로 믿었더니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욕심인지 오늘에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략)

실로 스님은 진지(眞摯)한 수행자(修行者)의 표상(表象)이요, 교학(敎學)의 수령(首領)이자 포교(布敎)의 선구자(先驅者)였습니다. 한국불교 역대준걸(歷代俊傑) 가운데 이렇듯 스님처럼 선교(禪敎)를 겸전(兼全)하고 수행(修行)과 전법(傳法)을 한 몸으로 감당한 분은 참으로 드물었습니다. 그리므로 종도(宗徒)들로서는 큰스님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맹구우목(盲龜遇木)의 법연(法緣)이라며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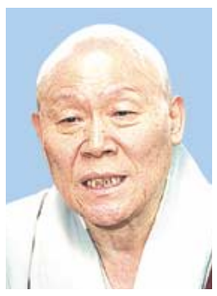
그러나 종도(宗徒)들은 오늘 큰스님을 영결(永訣)하면서 천추(千秋)의 후회(後悔)가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진작 큰스님을 번듯한 회상(會上)으로 모셔서 더 많은 감로법문(甘露法門)을 청하지 못했던가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것은 현대 한국불교가 외적팽창(外的膨脹)에만 몰두하고 분열쟁투(分裂爭鬪)만 일삼다가 정작 정법계승(正法繼承)과 선양(宣揚)을 게을리 한데 대한 가슴앓이기도 합니다.

큰스님.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무례(無禮)를 무릅쓰고 청(請)하올 말씀이 있습니다. 경(經)에 이르기를 대비천제(大悲闡提)는 중생(衆生)을 구제하기 위해 원생(願生)으로 태어난다 했습니다. 하오니 큰스님께서도 피모각재입전래(被毛角載入廛來)하여 우발라화화리개(優鉢羅華火裏開)하는 도리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는 오직 큰스님 생전(生前)에 못다 배운 진법(眞法)을 다시 배워 무지몽매(無知蒙昧)를 없애려는 기특한 마음에서입니다.

큰스님. 오늘 여기 모인 사부대중(四部大衆)의 희원(希願)을 들으시거든 꽃이 피면 꽃으로 오시고, 바람이 불면 바람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베풀어주소서. 환귀사바(還歸娑婆)하시어 무명중생(無明衆生)의 귀와 눈을 열어주소서. 삼가 종도(宗徒)들은 향(香)을 피워 합장(合掌)하고 감청(敢請)하나이다.

조계종 원로의장 도원 스님 영결사 (요약)

"자애로운 진용과 사자후 어디서 뵙고 들어야 합니까?"



관응 큰스님!

어느 세계(世界)로 출리(出離)하셔서 이처럼 공적(空寂)하고 적막(寂莫)합니까?

적요허광(寂寥虛曠)하여 형명(形名)으로도 진용(眞容)을 뵈올 수가 없고, 유심(有心)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사자재(生死自在)한 기용(機用)을 갖춘 스님께서 이처럼 깊고 고요한 진상(眞相)을 이루니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세연(世緣)을 통(通)해 어깨에 지고 있던 천만가지 짐을 놓아버리고, 얽매임에서 벗어나니 얼마나 자유(自由)롭습니까?

스님이 이룬 적멸(寂滅)의 분상(分上)에는 불조(佛祖)의 얽매임도 범성(凡聖)의 분별(分別)도 없는데 어찌 나고 죽음의 슬픔이 있겠습니까?

스님께서는 적멸(寂滅)의 즐거움이 되는 말후(末後) 일구(一句)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무생법계(無生法界)에 태어나셔서 사바(娑婆)에 머무신 것은 법신(法身)의 묘용(妙用)을 보인 것입니다.

큰스님!

여기 모인 사부대중(四部大衆)을 위(爲)해 평소(平素)에 소리쳐 부르던, 어지럽게 비바람이 일고 우뢰와 번개가 비오듯 한 격외지기(格外之機)를 한번 보이십시요.

(중략)

스님의 불언지교(不言之敎)와 무위지사(無爲之事)의 자비(慈悲)스런 교화(敎化)는 산(山)과 바다를 이루었고 줄탁(啐啄)의 지혜(智慧)는 만물(萬物)도 감득(感得)케 하였습니다.

눈 먼자는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였고, 농자(聾者)는 귀가 열려 듣고 싶은 소리를 들었으며, 꽃망울을 머금은 꽃들은 우주(宇宙)의 신비(神秘)를 열게 한 뛰어난 포교사(布敎師)였습니다.

(중략)

여러분

오늘 큰스님께서 보이신 적멸(寂滅)의 진상(眞相)이 즐거움이 되고, 자유(自由)스러움이 됨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면 하늘의 관문(關門)을 열어젖히고 지축(地軸)을 흔들 것이며, 못 깨달았다면 생사(生死)에 얽매여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노사(老師)가 우리에게 남긴 최후(最後)의 설법(說法)입니다.



관응 스님의 빈소가 마련된 직지사 설법전은 큰스님을 추모하는 불자들의 발길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직지사 회주 녹원 스님이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관응 스님을 추모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오른쪽으로 녹원 · 법등 · 법장 · 자광 스님. 직지사=배지선 기자

종회의장 · 전국 선원수좌회 등 조사 잇따라 … 각 정당서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뿐 아니라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함주 스님,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등이 관응 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는 조사를 발표했다.

지하 스님은 조사를 통해 "그 크신 학문(學問)과 식견(識見)을 바탕으로 이 땅 불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신데 벌써 원적(圓寂)에 드시다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함주 스님도 "삼동(三冬)의 찬 기운 사라지고 만상(萬象)이 봄기운을 찬탄할 즈음에, 대종사의 장강설법(長江說法)을 기다렸는데 홀연히 묘체(妙體)를 거두어 버리시니 그저 답답하고 슬픈 마음뿐입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백창기 회장은 "스님은 스님의 '있음'만으로 우리 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자존심"이라며 "스님이 지극한 중생사랑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표현했다.

이 외에도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민주당 연등회, 조윤제 청와대 불자회장도 각각 조사를 발표했다.

정동영 의장은 조사에서 관응 스님을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대부중에게는 세상시름을 잊게 할 시원한 큰 나무 그늘이었고,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커다란 언덕"이라고 표현하며 원적을 아쉬워했고, 연등회는 "환갑의 나이에도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여 동안이나 두문불출 수행하시며 대중들에게 '생활이 곧 참선이 돼야 한다'고 설한 가르침은 지금도 많은 국민과 사부대중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제 회장도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종단은 물론 민족과 국가나아가 인류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승보살의 길로 매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남동우 기자

관응 스님 입적 관련기사 buddhanews.com서 보세요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2004 부다피아 SUMMER CAMP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10주년을 맞아 100년전 이민의 첫발을 내디딘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합니다. **2004 부다피아 썸머 캠프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 및 문화체험 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폴리네시안 및 미국 현지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넓은 세계를 배움으로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 **참가대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 간** : 7월 28일 ~ 8월 17일(20박 21일)
□ **참 가 비** : 250만원(여권 · 비자수수료 별도)
□ **정 원** : 선착순 50명
□ **참가신청** : 3월 15일 ~ 5월 10일까지(※미국 비자신청은 별도문의 바람)
□ **장 소** : 하와이 한인문화원
□ **주 최** : 현대불교신문 · 하와이 무량사
□ **주 관** : 하와이 싯다르타대학교 부설 영어교육원
□ **후 원** : 조계종포교원 진각종통리원 (재)보덕학회
□ **문 의** : 현대불교신문 **02) 722-4162~3, 016-2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준 비 물** : 여권, 미국 비자, 학생증, 필기도구, 카메라와 필름, 속옷 3~4벌, 셔츠와 바지 2~3벌, 모자와 선글래스, 수영복과 샌들, 비옷, 수건과 비누, 자외선 차단크림, 작은가방



◇하와이 한인문화원 전경

※ 참가학생 부모님의 경우 하와이 사찰에서 공동생활을 전제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관광비용 포함해 1주 180만원, 2주 200만원, 3주 220만원입니다.

□ 프로그램 일정표

일 정	시 간	프 로 그 램
7월 28일(수)	오전 8시	영어학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원어민 선생님과 영어전용)
7월 29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7월 30일(금)	09시~16시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자연박물관 관람
7월 31일(토)	10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8월 1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8월 2일(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3일(화)	09시~16시	카할리만다린호텔 돌고래쇼 및 코닥 홀라쇼 체험
8월 4일(수)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5일(목)	09시~16시	하와이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8월 6일(금)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7일(토)	09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8월 8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8월 9일(월)	09시~16시	진주만 방문,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8월 10일(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1일(수)	09시~16시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및 퍼레이드 관람
8월 12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3일(금)	09시~16시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에서 수영
8월 14일(토)	09시~16시	영어학교 졸업식, 휴식
8월 15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8월 16일(월)	09시~18시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8월 17일(화)	10시~	출발